

■ 워크숍 자료집

##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

- 일 시 : 2011. 3. 18(금) 14:00~18: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
- 주 최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진행순서

	사회: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 - 2:10	<input type="checkbox"/> 개회 국민의례 <input type="checkbox"/> 환영사 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2:10 - 3:50	<b>1부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b> ○ 국가간 청소년 교류사업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발표: 유휘경 (청소년교류센터 부장) 정성홍(한국청소년연맹 과장) 토론: 박철웅 (백석대 교수) ○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발표: 김용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부장) 지세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토론: 박재우 (코피온 팀장) ○ 국제행사 지원 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발표: 안원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팀장) 토론: 송진호 (한국YMCA 실장)
3:50 - 4:00	coffee break
4:00 - 4:10	<input type="checkbox"/> 인사말씀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김혜경 (여성가족부비서관)
4:10 - 5:40	<b>2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발전방안</b> ○ 외국의 청소년 국제활동 동향 발표: 박선영 (동서대 교수) 토론: 조아미 (명지대 교수) ○ 국제교류사업 발전방안 및 새로운 국제활동방안 발표: 김병주 (한국외대 교수) 토론: 조우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팀장) ○ 한국의 ODA사업(청소년분야) 추진방향 발표: 김병관 (한국국제협력단 실장) 토론: 오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5:40 - 5:50	종합토론
5:50 - 6:00	폐 회



## 목 차

### 1부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 ○ 국가간 청소년 교류사업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 국가간 청소년 교류사업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 3
-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성과와 개선방안 ..... 16
- 토 론 ..... 32

#### ○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 해외데마활동, 해외자원봉사활동 현황 및 성과와 개선방안 ..... 35
- 해외조사연수, 국제회의·행사 파견 성과와 개선방안 ..... 58
- 토 론 ..... 73

#### ○ 국제행사 지원 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 국내 개최 국제행사(아시아청소년캠프, 국제청소년광장)의 성과와 개선방안 ..... 76
- 토 론 ..... 92

### 2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발전방안

#### ○ 외국의 청소년 국제활동 동향

- 해외 청소년국제교류활동 동향과 과제 :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 105
- 토 론 ..... 124

#### ○ 국제교류사업 발전방안 및 새로운 국제활동방안

- 국제교류사업 발전방안 및 새로운 국제활동방안 ..... 129
- 토 론 ..... 138

#### ○ 한국의 ODA사업(청소년분야) 추진방향

-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와 청소년 국제 활동 ..... 143
- 토 론 ..... 150



## 1부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 ○ 국가간 청소년 교류사업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발표: 유휘경(청소년교류센터 부장)/정성홍(한국청소년연맹 과장)

토론: 박철웅(백석대학교 교수)

### ○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발표: 김용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부장)/지세선(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부장)

토론: 박재우(코피온 팀장)

### ○ 국제행사 지원 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발표: 안원태(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팀장)

토론: 송진호(한국YMCA 실장)



# 국가 간 청소년 교류사업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유 휘 경 (청소년교류센터 부장)

## 국가 간 청소년교류

### 1. 목적

국가 간 청소년교류는 청소년의 다양한 세계 문화체험을 통한 글로벌 리더쉽과 국제시민 의식 함양, 서로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의 교류를 통한 국가 간 우의 증진 및 미래 협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2. 경과 및 현황

1965년 말레이시아와 시작된 국가 간 청소년교류는 2011년 현재 약30개국과 약정 체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약정체결 국가: 30개국('11 현재)

- 아시아(10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 유럽(10개국): 러시아, 프랑스, 체코,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그리스, 스페인, 터키
- 중남미(2개국): 칠레, 멕시코
- 중동, 아프리카 등(8개국):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수단, 모로코,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튀니지

위 협정국들과의 약정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상호 동등한 수준의 교류 추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용부담 부분에 있어서는 파견국은 항공료, 초청국은 체재비 부담, 교류 기간과 인원 부분에는 평균적으로 10일/10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협정국에 따라 약간의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예: 일본은 초청국 전액부담이며 15명/15일 교류, 베트남 초청의 경우 전액 초청국 부담이며 30명/10일 등)

현재까지 교류실적을 보면, 2010년까지 약29개국, 약 7,400여명이 초청과 파견 사업에 참여하였다. (\*2011년 일정협의를 기준 24개국 343명 파견, 353명 초청 예정)

국가 간 청소년교류는 국가 간 협정에 의한 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직접 실시되었다가 2007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전담하는 기구인 '청소년교류센터'를 설립하여 사업을 주관시키고 있다. 교류업무 담당조직 변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88년           체육부 청소년국에 청소년 교류과 설치,  
                      교육부 업무 이관 받아 수행
- 1993년~2005.  4월 문화체육부 및 문화관광부 청소년교류과, 청소년지원과,  
                      청소년 참여과 에서 업무 연계 수행
- 2005.4.27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책단 교류문화팀 으로 업무 이관
- 2006.1.23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책단 “국제교류팀”으로 기능 조정
- 2006.3.30       “청소년위원회”의 기관 명칭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
- 2008.3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로  
                      통합.이관
- 2010.3.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
- 2011.현재       “여성가족부” 청소년교류과에서 업무 담당

“청소년교류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하여 2007년2월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위치:강서구 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에 위탁, 운영 되고 있다. 현재 비상근 1명, 상근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국가간 청소년교류 관련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① 국가 간 청소년교류사업 실행
- ② 참가자 사후관리
- ③ 프로그램 정보제공
- ④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정보관리

### 3. 국가 간 청소년교류 사업

국가 간 청소년교류 사업은 매년 초, 상대국과 교류일정 협의로 시작된다. 국가와 국가 간의 공식 협정사항이므로 담당 부처에서 공식 외교채널을 통하여 당해 교류일정 및 프로그램 내용을 협의하여 확정하게 된다. 초청과 파견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준비가 시작된다.

#### 1) 파견사업 - 선발, 사전 준비, 교류활동, 사후평가 및 활동

당해 연도 협의된 교류일정 및 프로그램에 따라 각 국가별 파견청소년 대표단 모집을 진행함으로 교류 사업이 시작된다. 참가대상은 만16세~24세까지의 대한민국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비용은 참가자는 항공료의 80%(단, 기초수급자와 통역은 전액 국고보조), 나머지 준비비와 체재비 등은 국가와 초청국에서 부담한다.

대표단은 서류와 면접심사로 선발되며, 국가 간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와 확실한 국가관의 정립 유무, 단체 활동의 적합성 및 인성(소양), 특기, 언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어려운 청소년이나 소년소녀가장, 기초수급자 자녀 등을 우선 배려하고, 성비 및 수도권 대비 지방거주 청소년에 대한 사항도 고려하여 선발 한다. 선발은 온라인신청([www.iye.go.kr](http://www.iye.go.kr)), 서류심사, 면접심사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선발된 대표단들이 세계에 나아가 민간외교 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선발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하게 되는데, 주된 내용으로는 국제예절 및 소양교육, 파견국 정보 공유, 기참가자들의 멘토링, 팀업무 분담, 공연준

비 등 파견활동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과 팀워크 구축 등이 포함된다.

초청국에서의 교류 프로그램은 보통, 청소년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 시설 방문, 문화체험과 유적지 방문, 우수 산업체 방문, 청소년들과의 직접 교류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정국마다 사업진행의 방법과 내용, 구성 등이 다르다. 각 국가마다 외교적 형식(예: 관계 기관이나 시설 방문 치중 등)에도 무게를 두거나, 또는 실제 청소년들의 교류에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등, 국가의 사정과 문화 등에 따라 약간씩 정도의 차이는 있는 편이다. 실제 양쪽 측면 모두 장단점이 있고, 교류의 평가나 만족도는 파견 년도의 각 국 정세와 팀 구성과 분위기,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 등의 여러 변수들이 조합되어, 다양하게 나타난다.

교류 프로그램 이후에는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각 국가별 교류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전체 참가자 모두가 모여 사후평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가간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은 기참가자 모임인 KEYOSC의 멤버로 활동하게 되며, 국가에서도 이들 기참가자들의 사후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 지원하고 있다.

## 2) 초청사업 - 프로그램 기획, 초청교류 시행 및 평가

우리 청소년들을 해외로 파견하는 사업과 마찬가지로, 연초에 협의된 교류일정 및 프로그램에 따라 상대 협정국의 대표단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일정에 따라 각 국가별로 대표단이 입국 전에 미리 일정(안)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협의하고, 대표단에 대한 정보를 송부 받아 초청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초청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주요 담당 관계 부처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시설 등의 방문과 간담회를 갖게 되고, 교육시설 방문 및 토론, 청소년들과의 직접 교류, 산업시설 시찰, 문화 체험 (홈스테이, 문화 유적지 탐방 등) 등을 주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한국 기참가자들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 일부 방한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초청된 청소년들과의 직접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에는 방한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로 평가 및 개선사항 의견 수렴을 하여 이후 사업에 반영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 사후활동

현재 활동 중인 기참가자들의 온라인 클럽을 매개체로 국가 간 청소년교류 활동 및 프로그램 정보공유를 통한 청소년교류 네트워크 강화 지원하고, 기참가자를 중심으로 한 모임(KEYOSC)을 활성화하고 각종 청소년교류 사업에 이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기참가자 중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을 발굴하여 성공사례로 홍보함과 동시에 선·후배들 간의 인적네트워크 구축하는 일을 지속하고 있다.

참가자들의 사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참가자들이 사업의 목적과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상호교류가 한번 외국에 나갔다 오고, 외국 청소년들을 만나는 단편적인 활동이며 단순한 개인 경험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 청소년들의 국제 역량을 강화하는데 국가에서 각 개인들에게 투자하는 것이며, 참가자들은 이러한 투자의 혜택을 받은 자로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현재 사업주관자들은 국가간 청소년교류에 참가한 KEYOSC(기참가자들의 모임) 구성원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의 양적/질적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청소년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도록, 이에 대한 동기 부여 및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과제를 인식하고 있다.

#### ※ 국가간청소년교류 사후활동 모임 (KEYOSC)

KEYOSC는 Korea Exchange program Youth leaders Of Sustainable Community의 약자로 국가간 청소년교류 파견 기참가자들의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임이다. 기참가자들의 자발적인 결성으로

2008년 출발되었으며, 기참가자들 간의 교류 뿐 아니라, 새로이 선발된 파견 대상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시대 속에 한국과 세계를 잇는 KEY(열쇠)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결성되어, 2011년 현재까지 5기 운영진 구성(KEYOSC 이끄미)을 이루어 다양한 활동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 국가 간 청소년교류 기참가자들 간의 지속적인 모임 활성화 도모
- 기참가자들 간의 연락망 구축 및 업데이트
- 국가 간 청소년교류 사업 홍보 및 관련 행사 기획, 진행, 참여증진 유도

#### 4. 성과 및 개선사항

##### ○ 전담기관 청소년교류센터

청소년교류센터가 국가 간 청소년교류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자원(관계, 경험 등)을 축적함으로써 의사결정기관(담당부처)의 잦은 변동과 이동에도, 크게 지장을 받지 않고 기본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청소년교류센터가 향후 국가의 청소년 국제프로그램의 중추적인 역할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의 확대 설치, 운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 국내외 사업협력 네트워크

사업의 특성 상,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담당자와의 네트워크 확립과 좋은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다. 협정국 중에는, 우리처럼 전담기관이 없는 국가들이 있고, 조직변동과 인사이동이 잦기 때문에, 실무기관과 담당자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곧 교류프로그램의 내실화로 연결된다.

현재 교류프로그램은 협정국의 고유 권한이지만, 참가 청소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협정국과의 긴밀한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양국의 문화와 사회적 통념(예: 시간관념, 공사구분, 성별차이 등)등의 차이로 인해 양측의 필요와 요구를 수용하고 시행하는 과정이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 일이지만, 최소한 교류국가 간 실정에 맞는 주제를 선정, 양국 청소년들의 토론과 관련된 탐방 및 참여가 들어가 있는 실용적 교류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협정국은 매년 늘고 국가별 교류인원도 확대되는 추세인 반면, 예산은 매년 삭감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교류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협정국들과의 협의 과정을 외교채널과 유선연락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여러 차례 업무협의 방문을 하듯, 우리도 정부차원의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자와 실질적이며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 ○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교류활동 (사후활동)

과전 청소년들이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확고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팀워크에 대한 개념을 지녀야 한다. 이에 대표단 선발과 참가자 교육에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선배들(기참가자들)의 멘토링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교류 후, 상대국에서 실시한 교류 프로그램(과전) 평가와 다음 프로그램을 위한 개선 사항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 도출 과정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초청사업의 경우에도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그 이후의 활용방안이 미진한 상태로 이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이 필요하다. (예: 다국적 온라인 커뮤니티 개발 및 활용 등)

#### ○ 청소년들에게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홍보 강화

예전에 비해 국가간청소년교류 참가자들도 늘어나고 그들의 창의적인 활동과 사회진출이 많아지고,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는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각계각층의 청소년들의 지원이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 간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를 확산 시켜, 많은 청소년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형태의 홍보의 시도와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 5. 맺음말

국가 간 청소년교류에 참가하는 청소년들 간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하는 방식, 마인드, 기대치 등이 다양하여 프로그램 참여 이후 평가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우리 참가자들보다는 외국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이는 대부분의 협정국들보다는 우리나라가 국가브랜드나 경제적인 면에서 좀 앞서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높은 수준의 복지와 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사업의 긍정적 결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머지않은 미래에 각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해외의 젊은이들에게 우리나라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과 인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는 것이 우리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표이며 성과 중의 하나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들도 주요 선진국에만 국한되어 있던 국제적 사고와 시야를 넓히고, 문화의 다양성과 민족과 인종 간의 이해와 포용력을 높이며, 개인들에게는 확실한 국가관과 함께 국가와 사회, 가정 등, 자신이 속해있는 공동체에 감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자세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처럼 국가에서 주도하는 국가간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직접적인 청소년들의 교류와 다양한 문화적 체험으로 이루어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1> 국가별 교류협정 체결 현황 및 교류현황

	교류 약정국 (주관기관)	시행 근거	최초 시행 년도	약정 내용 (인원 · 기간)	'10까지 교류인원 (명)		
					초청	파견	총인원
1	말레이시아 (청소년체육부)	한말문화협정('65) 한·말청 교류약정('92. 4)	'79	15명 10일간 ('02년부터 30명)	544	553	1,097
2	사우디 (청소년복지처)	양국정부합동 위원회 합의('81)	'81	10명10일간	264	265	529
3	일 본 (내각부)	정상회담 공동선언('84)	'87	40명15일간 ('03년부터 30명씩, 초 청국 전액부담	689	786	1,475
4	중 국 (중화전국청년연합회)	양국수교시 교류합의 ('92) 청 소년교류양해각서('98)	'93	20명씩10일간 (98년부터40명)	602	636	1,238
5	헝가리 (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약정서('92)	'93	15명 10일간	25	57	82
6	러시아 (교육부)	청소년협력계획서('95)	'94	30명씩 기간 미 명시 ('01.부터 10명 8일간)	159	165	324
7	필리핀 (교육문화체육부)	청소년교류 협력계획서 ( '95)	'96	24명 10일간	115	141	256
8	모로코 (청소년체육부)	청소년교류약정서('94)	'96	15명 2주간 (격년제)	85	118	203
9	핀란드 (교육부)	청소년협력 협의각서 ( '96)	'96	3명/ 7명 6일간 (연초 협의 결정. 청소년전문가)	53	71	124
10	칠 레 (청소년처)	청소년협력약정서('96)	'98	20명10일간	26	47	73
11	베트남 (청소년위원회)	청소년교류약정서('99) 재약정 체결('04, '09)	'99	20명10일간(30명)	368	237	605
12	몽 골 (사회복지노동부)	청소년분야협력 약정서 ( '01)	'00	10명, 10일간	114	104	218
13	멕시코 (청소년원)	청소년협력약정서('00) 재약정 체결('08)	'01	10-20명, 10일간	96	103	199
14	이스라엘 (청소년교류협회)	청소년협력약정서('02)	'02	10~20명, 10일간	79	87	166
15	프랑스 (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약정서('02)	-	10-20명, 10일간	2	0	2
16	체코 (교육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약정서('03)	'03	10명,10일간	30	40	70

	교류 약정국 (주관기관)	시행 근거	최초 시행 년도	약정 내용 (인원 · 기간)	'10까지 교류인원 (명)		
					초청	파견	총인원
17	수단 (청소년체육부)	청소년·체육협력약정서 (‘04.5)	‘05	10명, 8일간	50	57	107
18	폴란드 (교육체육부)	청소년·체육교류 양해각서(‘04.12)	‘05	10~20명, 10일간	60	60	120
19	인도 (청소년체육부)	청소년교류약정서(‘05.4)	‘06	10~20명, 10일간	70	69	139
20	파키스탄 (청소년부)	문화교류계획서(‘05.9)	‘06	7명 7일간 (10명,10일간)	39	9	48
21	이집트 (청소년부)	청소년교류양해각서 (‘05.12.14)	‘06	10-20명, 10일간	20	50	70
22	그리스 (교육종교부)	청소년분야양해각서 (‘06.12.13)	‘06	8명, 6일간 (정부공무원5, 지도자3)	10	8	18
23	터키 (청소년체육부)	2005~2008년도 문화 및 과학 교류계획서(‘05.9.23)	‘07	10-20명, 10일간(청소년)	62	60	122
24	스페인 (청소년청)	청소년분야협력약정 (‘07.3.26)	‘07	매2년 실무그룹구성 우선사업 실행	3	3	6
25	아제르바이잔 (청소년체육부)	청소년분야 협력양해각서 (‘07.4.23)	‘08	약20명, 일정 상호협 의(청, 공, 지도)	29	29	58
26	불가리아 (청소년청)	청소년분야 협력약정 (‘07.12.10)	‘08	10~20명, 10일간	12	19	31
27	인도네시아 (청소년체육부)	청소년분야 협력약정 (‘09.06.01)	‘09	10명 10일간 (청소년, 지도자 각각 시행)	11	10	21
28	튀니지	청소년분야 협력약정서 (‘09.06.30)	‘10	인원 및 일정은 협의에 따라 실시	5	10	15
29	싱가포르 (청소년 위원회)	청소년분야 협력 양해각서 (‘09.06.26)	‘09	격년체제 실시, 약10명씩 7일간	10	10	20
30	브루나이 (문화청소년체육부)	청소년분야 협력약정(‘10.2)	‘11	10명10일간	0	0	0
<b>30개국</b>					<b>3,642</b>	<b>3,804</b>	<b>7,436</b>

<참고 2> 2010 국가 간 청소년교류 일정

월	한국 청소년 파견			협정국 청소년 초청		
	국가명	기간	인원	국가명	기간	인원
2				이집트	2.20 ~ 2.27 (8일)	11
4				베트남(청소년)	4.06 ~ 4.15 (10일)	30
5	이스라엘	5.01 ~ 5.11 (11일)	10	핀란드 터키	5.12 ~ 5.15 (4일)	5
	아제르바이잔	5.11 ~ 5.20 (10일)	10		5.31 ~ 6.09 (10일)	20
	중국	5.11 ~ 5.20 (10일)	40			
	베트남	5.11 ~ 5.20 (10일)	20			
6	몽골	6.22 ~ 7.01 (10일)	10	튀니지 중국	6.02 ~ 6.11 (10일)	5
	칠레	6.22 ~ 7.01 (10일)	5		6.02 ~ 6.11 (10일)	37
	모로코	6.23 ~ 7.01 (9일)	16			
7	인도	7.01 ~ 7.10 (10일)	19	멕시코 아제르바이잔 말레이시아(1차) 말레이시아(2차) 모로코	7.02 ~ 7.11 (10일)	9
	러시아	7.01 ~ 7.10 (10일)	17		7.02 ~ 7.12 (11일)	10
					7.02 ~ 7.11 (10일)	15
					7.12 ~ 7.21 (10일)	15
					7.25 ~ 8.04 (10일)	12
8	이집트	8.02 ~ 8.13 (12일)	10	폴란드 인도	8.11 ~ 8.19 (9일)	10
	멕시코	8.20 ~ 8.29 (10일)	12		8.12 ~ 8.20 (9일)	20
9	체코	9.02 ~ 9.12 (10일)	10	몽골 일본 싱가폴	9.01 ~ 9.10 (10일)	10
	필리핀	9.17 ~ 9.26 (10일)	10		9.02 ~ 9.16 (15일)	29
	사우디아라비아	9.28 ~ 10.07 (10일)	10		9.27 ~ 10.03 (6일)	10
	말레이시아(1차)	9.28 ~ 10.07 (10일)	15			
	폴란드	9.28 ~ 10.07 (10일)	10			
10	말레이시아(2차)	10.12 ~ 10.21 (10일)	14	수단 이스라엘 필리핀	10.06 ~ 10.15 (10일)	9
	핀란드	10.18 ~ 10.22 (7일)	5		10.09 ~ 10.19 (10일)	10
	터키	10.26 ~ 11.05 (10일)	20		10.19 ~ 10.29 (11일)	9
	튀니지	10.26 ~ 11.05 (10일)	10			
	수단	10.26 ~ 11.05 (10일)	10			
11	일본	11.03 ~ 11.17 (15일)	30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칠레	11.02 ~ 11.11 (10일)	10
	불가리아	11.10 ~ 11.16 (7일)	5		11.02 ~ 11.11 (10일)	11
	인도네시아	11.12 ~ 11.21 (10일)	10		11.15 ~ 11.24 (10일)	5
12				러시아	12.01 ~ 12.10 (10일)	17
	<b>23개국</b>	<b>24회</b>	<b>328</b>	<b>22개국</b>	<b>23회</b>	<b>319</b>

<참고 3> 2010 한-일본(초청) 일정

일 자	시 간	활 동 내 용	비 고
9.2 (목)	14:25 16:00~17:00 17:30~	- 김포국제공항 입국(OZ1015편)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예방 및 오리엔테이션 - 석식, 숙소 체크인	서울
9.3 (금)	07:00~09:00 10:50~11:50 12:00~13:30 15:00~16:00 16:00~18:00 18:00~19:00 19:00~21:00	- 조식 - 여성가족부 예방 - 환영 오찬 - 오리엔테이션 및 숙소 체크인 (한일 청소년 교류회) - '한일 문화교류의 밤' 리허설 - 석식 - 아이스브레이킹 (1·2부)	서울⇒천안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9.4 (토)	08:00~09:00 10:00~12:00 12:00~13:00 13:00~14:00 14:00~15:00 15:00~18:00 18:00~19:00 20:00~22:00	- 조식 - 한일 청소년 공개토론회 - 중식 - 한일 청소년 공개토론회 - 한일 청소년 공개토론 발표회 - 한일 합동 체육대회 - 석식 - 한일 문화교류의 밤 및 폐회식	(한일 청소년교류회)  천안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9.5 (일)	08:00~11:00 11:00~13:00 14:00~15:00 15:00~	- 조식 및 휴식 - 이동 및 중식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전시관 방문 - 이동 및 석식, 숙소 체크인 및 휴식	(한일 청소년교류회) 국립고흥 청소년우주체험센 터
9.6 (월)	08:00~09:00 09:30~10:30 10:30~12:00 12:00~13:00 15:00~17:00 17:30~18:30 18:30~	- 조식 -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예방 - 시설 라운딩 및 체험 활동 - 중식 - 낙안읍성민속마을 - 순천시청 예방 - 석식, 숙소 체크인 및 휴식	고흥⇒순천 (기참가자 교류①)
9.7 (화)	08:00~09:00 10:00~12:00 12:00~13:00 14:00~15:00 15:30~16:30 17:00~19:00 19:00~	- 조식 및 숙소 체크아웃 - 순천매산고등학교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 중식 - 여수시청 예방 - 2012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 방문 - 한려해상국립공원 - 오동도 - 석식, 휴식	순천⇔여수 (기참가자 교류②)

일 자	시 간	활 동 내 용	비 고
9.8 (수)	08:00~09:00 09:30~12:00 12:00~13:00 14:00~15:30 15:30~21:00	- 조식 - 순천만자연생태공원 - 중식 - 화업사 - 이동 및 석식, 숙소 체크인 및 휴식	순천⇒서울 (기참가자 교류③)
9.9 (목)	07:00~09:00 10:00~12:00 12:00~13:00 13:00~15:30 16:00~17:30 17:00~18:00	- 조식 - 삼성전자(주) 디지털시티 견학 - 중식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수원화성 - KBS수원센터 견학 - 석식 와 휴식	서울⇔수원
9.10-1 1 (금.토)	07:00~09:00 10:00~12:00 12:00~13:00 14:00	- 조식 - 강북청년창업센터 방문 - 중식 - 홈스테이 프로그램 대면식 및 개시 (홈스테이 계속)	서울⇒고양  홈스테이
9.12 (일)	10:00 11:00~13:00 13:00~20:00 20:00~21:00	- 홈스테이 프로그램 종료 - 중식 및 숙소 체크인 - 서울 자유 관광 - 석식 와 휴식	고양⇒서울 (기참가자 교류④)
9.13 (월)	07:00~09:00 09:30~18:00	- 조식 - 2010 서울문화체험	서울 (기참가자 교류⑤)
9.14 (화)	07:00~09:00 10:00~12:00 12:00~13:00 13:00~14:30 15:00~17:00 17:00~18:00 18:30~21:30	- 조식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학생 교류 - 중식 - 기참가자 교류 - 서울양진중학교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 석식 - CJ마구마구 프로야구 경기 관람	서울 (기참가자 교류⑥)
9.15 (수)	07:00~09:00 10:00~12:00 12:00~13:00 14:00~15:30 18:00~21:00	- 조식 - 국제만화가대회 · 부천국제만화축제 2010 관람 - 중식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방문 - 환송 만찬 및 소감문 발표회	서울 (기참가자 교류⑦)
9.16 (목)	-	- 출국	

##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성과와 개선방안

정 성 홍 (한국청소년연맹 교류과장)

##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성과와 개선방안

### □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사업개요

#### ○ 연 혁

- 한·중 정상간 합의('03,7월), 한·중 청(소)년 교류약정('04.5월)  
을 통해 04년부터 매년 중국 청(소)년 500명을 초청(08년만 400명)
- 한국 청소년 '06~08년간 100명씩, '09년 200명, '10년 400명파견

#### ○ 주관

- 한국 - 여성가족부
- 중국 - 중화전국청년연합회(400명), 중국 외교부(100명)

#### ○ 초청대상

- 중국 : 20~40세미만의 중국 각성의 청년 대표로 구성
- 한국 : 청소년(만16세~24세미만)  
성인(40세미만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 ○ 초청기간

- 한국 : 10 일간
- 중국 : 10 일간

#### ○ 초청지역

- 한국 : 전국일원(제주도 포함)
- 중국 : 중국(전지역 포함)

#### ○ 경비 : 초청국에서 항공료, 체재비 등 전액 부담

○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추진현황('04~)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초 청	500	500	500	500	400	500	500	500(예정)
파 견	-	-	100	100	100	200	400	200(예정)

□ 사업 목적

- 한·중 청(소)년의 상호이해 증진과 상호 협력관계 기반 구축
- 양국 차세대 주역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양국의 문화·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 증진과 양국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인적 연계를 강화, 향후 한·중 관계강화 및 경제, 정치등 양국 전반적인 협력 등에 기여
- 중국 내 한국 우호 정서 확대 및 한국 내 중국 전문가 육성

□ 사업의 필요성

한·중 양국 청소년 교류의 당위성

-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물적, 인적 교류의 비약적 증가
- 2008년 양국 정상외의 전격적 동반자 관계 선언
- 양국 미래세대 청소년들의 교류는 양국 발전의 바로미터

중국 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

- 한국의 청소년들이 좋아하면 중국 청소년들도 좋아한다(예: 한류, 한국상품).
- 한국은 중국 청소년들에게 학습국가인 동시에 경쟁국가
- 중국 청소년들이 가보고 싶은 나라 한국

## 국가 간의 언어와 문화의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세대

- 현재 양국의 청소년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글로벌제이션 사고를 중요시 하는 세대
- 언어와 문화의 국경은 존재 하지 않은 사고를 지닌 양국 젊은 세대로 방중.방한 대표단을 구성

## □ 사업 추진 방향

### “대한민국 미래” 역동적인 한국 청소년 및 청년과의 교류 소통활동

- 미래 한국의 주역인 청(소)년과의 교류활동을 통해 우호적 공감대 형성
- 단순 양국 방문을 넘어선 실질적인 인적교류 네트워크 구축
- 한국의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청년들의 모습을 방한단 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운영
- 대화와 체험, 공동 활동 등 실질적 교류가 가능한 프로그램 구성
  - 청(소)년 세미나, 좌담회, 스포츠 레저 및 문화체험 활동, 가정방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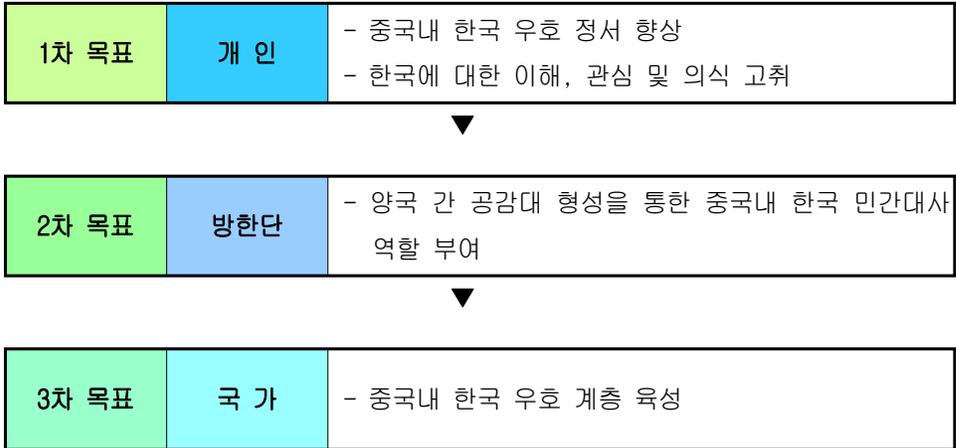
### 대한민국의 발전된 사회 시스템을 학습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한국의 발전된 사회 시스템을 이해 및 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
  - 한국의 발전·강점 프로그램, 수요자별 맞춤 프로그램 구성
-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한국의 사회상 제공
- 방한단 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학습효과 동기 부여
  - 한국의 발전된 사회 복지 시스템 및 안전 관리 체계 등

### “온고지신(溫故知新)”한국 체험 활동

- 옛것을 발전 현재에 접목한 문화 콘텐츠 강국 한국의 면모제공
  - Non-Verble 포퍼먼스 등 세계적인 한국의 공연문화 제공
-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문화적 자부심 과시
- 단순 견학이 아닌 몸소 체험 하는 감지(感知)한국 및 소통의 기회제공

## □ 사업 목표



## □ 초청 사업 지침

- 국내 유관 부처 협의 및 중국 측의 희망 등을 사전 고려
  - 프로그램 관련 관계부처 사전 협의 및 프로그램 시행 협조 요청
  - 세미나, 좌담회 등은 중국 측과 주제 등 사전 조율을 통해 준비
- 중점 주제.목표 설정 및 실현을 위한 구체적.체계적 프로그램 수립
  - 중국관련 이슈, 한.중 국가상황 등을 고려 해당연도 주제.목표 설정
  - 주제. 목표 관련 강연, 세미나, 교류 및 체험 프로그램 편성
- 참가자 특성별 분단별 편성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분단별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전체공통 프로그램 조화 추진
- 교류 체험 프로그램 강화 및 한국 강점 프로그램 등 신규 개발
  - 유관기관, 시설 등과의 협조강화 및 한국 참가자 사전교육
- 방문지역 지지체, 청소년유관 기관.시설 등과의 협조 추진
  - 교류회, 오.만찬, 체험.견학 프로그램 등 사전 협의
- 과다. 과소한 프로그램 배제 및 균형과 여유 있는 일정 편성
  - 이동. 준비 시간 등 고려 및 자유 쇼핑 시간 등 배려
- 일과 후 운영자 평가 및 익일 준비회의 개최
  - 중국 측에 필요 및 준비사항 통지

- 참가자의 편의를 고려, 항공일정 편성 및 사전 예약
  - 조기 항공편 배제
  - 국적기 이용을 원칙으로 함
- 연초 사전 예약 등으로 좌석 확보 및 항공요금 적절성 확보
- 단장 등 주요인사에 대하여 인센티브 비즈니스석 확보
- 통역은 전문 통역 과 일반 통역으로 구분 선발
  - 전문통역은 주요업무, 귀빈수행 등 담당
  - 일반통역은 통상업무 및 일상적 수행 담당
- 운영요원은 주관단체 사무처 직원이 담당
  - 중국어 가능자 우선 선발 및 가능하면 일반 통역 업무도 겸임
  -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도 통역요원에 준해 실시
- 사업홍보는 중앙언론 및 방문지 지역 언론 에 대한 홍보 역점
  - 사업의의, 활동상황, 인적교류, 세미나 내용등 중점 부각

## □ 프로그램 내용

### ○ 초청사업

구 분	내 용
▶ <b>해오름</b> : 만남의 시간	
만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한민국’ 바로알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기초정보 알기(현대한국의 이해), 기초한국어 배우기</li> <li>- 한·중 관계의 미래와 전망 전문가 초청 강연</li> <li>- 한국 한류문화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강연</li> </ul> </li> <li>● <b>환영의 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영식, 양국 전통문화 공연, 만찬 (한국 소개와 문화교류의 시간으로 구성)</li> </ul> </li> </ul>
▶ <b>물오름</b> : 견학, 교류, 체험을 통해 <b>‘발전된 한국’</b> 을 느끼고 소통하는 시간	
배움 + 교류 + 체험 ↓ 이해 ↓ 소통	<p style="text-align: center;"><b>교 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한국의 교육시설 견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대학교 방문 및 한·중 청년 세미나 실시</li> <li>- 한국 대학생들과의 교류 및 수업참관, 세미나 실시</li> </ul> </li> <li>● <b>한국의 청소년 수련 시설 방문 교육활동 참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청소년 수련시설 방문 프로그램 체험활동을 통한 한국 청소년 기관의 이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 궁궐에서 실시하는 태권도 체험 (기본동작, 호신술)</li> <li>○ 한국 초등학교 방문을 통한 세계적인 한국 교육시스템 습득</li> <li>○ 환경을 중요시 하는 사고를 지향하기 위한 "친환경 쓰레기 처리시설 브리핑 및 교육"</li> <li>○ 전통국악과 공연, 태권도가 어우러진 시범공연 관람 및 교육</li> <li>○ 한국의 재난방지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교류</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교 류 + 체 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서울 시민들과 함께하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 청년들과 함께하는 서울숲 한·중우호식수 보약주기</li> <li>- 한강고수부지에서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li> <li>-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관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문화) 궁궐(경복궁), 유네스코 세계유산 불국사, 석굴암 답사</li> <li>○ (전통문화) 한지를 이용한 전통문화체험 - 한지공예</li> <li>○ (전통문화) 풍물체험, 전통음식 만들기, 전통혼례체험</li> <li>○ (현대문화) 비디오아트의 거장 백남준 아트센터 견학</li> <li>○ (현대문화) Non-verbal 퍼포먼스 관람 (점프, 미소)</li> <li>○ (현대문화) 한류열풍의 주역 ‘울인’, ‘대장금’ 세트장 탐방</li> <li>○ (한류문화) 대표적인 한류 촬영지인 '남이섬' 체험</li> <li>○ 한국 각 방면 청년 리더들과의 만남 (교류회)</li> <li>○ 한국 전통 가옥 방문을 통한 홈스테이 활동(가정탐방)</li> <li>○ 중국인의 관심사인 한국의 분단상황 정확한 이해(DMZ)</li> </ul>

구 분		내 용
배움 + 교류 + 체험 ↓ 이해 ↓ 소통	산업-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1위의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 산업,의료현장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산업의 선두주자 '삼성전자'</li> <li>- 세계적인 철강기업 '포스코'</li> <li>- 세계적으로 유명한 첨단 건강검진 시스템 체험</li> </ul> </li> <li>○ (산업경제) 최신 토목기술의 집대성 인천대교 견학</li> <li>○ (산업안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서울시민안전체험관 견학</li> <li>○ (산업관광도시) 시민만족의 최고도시 선진 용인시청 방문</li> <li>○ (의료관광산업) 최고의 의료, 서비스 체험</li> <li>○ (관광산업) 감물 천연염색, 감글따기체험</li> <li>○ (관광산업) 서울의 랜드 마크 남산서울타워 탐방</li> </ul>
		<p>▶ <b>타오름</b> : 동북아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서 우정의 열매를 맺는 시간</p>
약속과 상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송의 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 청년간의 희망메세지 전달 및 발전방향 모색</li> <li>- 약속의 밤 행사, 장기자랑 등</li> </ul> </li> </ul>

## ○ 방중사업

### - 제1일차

- ▶ 10:40 북경수도공항 도착
- ▶ 12:30 CA1223편 환승 북경공항 출발
- ▶ 14:25 서안 함양공항 도착
- ▶ 15:00 호텔로 이동
- ▶ 18:00 간부단 협서성 청년연합회 방문
- ▶ 18:30 협서성 청년연합회 주최 환영만찬

### - 제2일차

- ▶ 09:00 조별활동
  - 제1조 : 서안 고신구 도착, 기업참관
  - 제2조,3조 : 서안 고신구 도착, 기업참관(1조와 다른 기업)
- ▶ 14:30 서경학원 도착, 학생좌담활동, 연합환영회  
(좌담주제: 한,중앙국대학생의 학습 과 대학생활,미래전망,  
한,중앙국청년문화비교및 청년교류)
- ▶ 18:30 중국학생제공 만찬(서경학원 학생 식당)

- 제3일차

- ▶ 09:30 참관 진시황릉, 병마용박물관
- ▶ 13:30 협서성 역사박물관 참관, 대안탑 견학
- ▶ 18:00 만찬후 호텔이동 휴식

- 제4일차

- ▶ 10:50 CZ3709 편 탑승 서안출발
- ▶ 11:40 은천하동국제공항 도착
- ▶ 14:00 영하박물관 견학
- ▶ 18:30 영하자치구 청년연합회 주최 만찬

- 제5일차

- ▶ 08:30 영하대학 이동
- ▶ 09:00 영하대학 캠퍼스 투어
- ▶ 10:00 중국 가정방문 접견식
- ▶ 10:30 가정방문
- ▶ 20:00 가정방문 결속, 호텔귀환

- 제6일차

- ▶ 08:30 사호자연보호구 이동
- ▶ 09:30 참관 사호자연보호구
- ▶ 13:00 서하왕릉이동
- ▶ 13:40 참관 서하왕릉
- ▶ 17:00 참관 종료 이동
- ▶ 18:00 만찬

- 제7일차

- ▶ 09:00 YBC 영하 은천청년공작소, 은천시 청년취업,창업지구 참관
- ▶ 10:30 참관 중화 회족자치풍정원
- ▶ 13:30 공항이동

- ▶ 15:45 CA1220 영하출발
- ▶ 17:30 북경 수도공항 도착
- ▶ 18:30 만찬

#### - 제8일차

- ▶ 09:00 조별활동
  - 제1조 : 주민복지센터 방문
  - 제2조 : 참관 린록원(환경보존교육)
  - 제3조 : 798예술거리 참관
- ▶ 13:00 북경어언대학 방문
- ▶ 14:00 학생교류 및 좌담
- ▶ 18:00 종료후 석식장소 이동
- ▶ 18:30 만찬

#### - 제9일차

- ▶ 08:00 만리장성 이동(팔달령)
- ▶ 10:00 만리장성 참관(팔달령)
- ▶ 13:30 한국측 내부회의
- ▶ 16:00 집합, 호텔로 이동
- ▶ 18:00 주요간부단원 서기 접견
- ▶ 18:30 환송만찬(수도대주점)

#### - 제10일차

- ▶ 08:30 공항이동
- ▶ 09:50 공항도착 출국수속
- ▶ 11:50 대한항공852편 탑승후 북경출발
- ▶ 14:55 인천국제공항 도착

## □ 한·중 특별교류 참가자 선발 및 인적구성

### ○ 초청사업

- 인원선발은 중국측 주관기관인 중화전국청년연합회(간칭:중청연) 400명, 중국외교부에서 100명을 선발함.
- 선발방식은 전국 성청년위원회 추천 과 자체 공개모집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음.
- 또한 중앙정부의 추천 형식으로 선발을 함.
- 선발 연령은 20세 - 40세 미만 중국 청년으로 구성함.
- 총단장은 중국 중앙정부에서 국장급 이상의 지위로 임명하며, 각 분단의 단장은 지방 중청연 주석 및 부주석이 담당을 함.
- 선발인원은 중국 23개성 지역에 고루 분포하여 선발하고, 56개 민족이 포함할 수 있도록 선발을 함.(한족 70%, 소수민족 30%)
- 선발이 완료되면 한국 파견 3일전 북경에 전 단원이 집결하여 2박3일간 한국에 대한 사전교육 및 소양교육이 이루어짐
- 중국측 인적구성(2010년 기준 3차 기준)

#### o 1차(중청연 선발)

직업별						연령별			
공청단	공무원	기업인	교육 언론예술인	사회 단체	학생	10대	20대	30대	40대
41	76	41	14	0	20	2	47	132	11

#### o 2차(외교부 선발)

직업별								연령별			
외교부	공무원	기업	언론	예술	의학	교육계	학생	20대	30대	40대	50대
18	22	8	8	5	4	7	26	31	51	15	1

### o 3차(중청년 선발)

직업별						연령별			
공청단	공무원	기업인	교육 언론예술인	사회 단체	학생	10대	20대	30대	40대
62	20	29	25	19	32	8	66	108	5

### ○ 방중사업

- 인원선발은 한국 중앙정부 여성가족부 주관아래 공개 선발을 원칙으로 청소년 80%와 청소년지도자 20% 를 기준으로 200명을 선발함.
- 모집 시기는 신학기가 이루어지는 3월중에 선발 공고와 함께 선발에 종료됨
- 국가 간 청소년교류 청소년대표단 모집안내 와 더불어 23개국 청소년 대표 단 모집공고와 동시에 선발함.
- 모집대상은
  - o 파견단원 : 만16세 - 24세 대한민국 청소년
  - o 통역요원 : 만20세 - 29세 해당언어 능통자 로 선발하며
  - o 청소년지도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 청소년기관의 만40세 미만의 청소년지도자로 구성 함
- 방중대표단의 총단장은 중앙정부 국장급이상의 고위 공직자로 선임 하며, 각 분단별 단장은 지방자치단체 사무관급 공무원과 청소년단체 실무책임자 로 구성함.
- 청소년은 자체회의를 통하여 청소년 대표와 총무를 선임하여, 책임감과 동시에 자긍심을 심어 줄수 있게 선발.
- 청소년 선발기준은 최근 3년 내 여성가족부 시행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기 참가자는 선발 지양과 더불어 16세 - 24세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청소년선발
- 선발 완료이후 파견 1일전 전체 선발단원 합숙형 사전교육 실시 후 출국

## 중국초청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 설문조사 개요

- 전체 설문대상 477명 중 453명 응답(95.0%)
  - 1차(192명), 2차(84명), 3차(177명)
- 숙박, 음식, 프로그램, 한국문화이해도 등 10개 항목 : 붙임 참조

### □ 종합 만족도

(단위 : 명,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계
<b>계</b>	<b>63.3%</b>	<b>32.4%</b>	<b>4.2%</b>	<b>0.1%</b>	<b>0.0%</b>	<b>100%</b>
1차	62.0%	31.9%	5.8%	0.2%	0.1%	100%
2차	61.1%	35.4%	3.5%	0.0%	0.0%	100%
3차	66.1%	31.3%	2.5%	0.1%	0.0%	100%

### □ 항목별 만족도

(단위 : 명, %)

항목	차수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계
<b>&lt;1번&gt; 숙박</b>	1차	63.0%	32.3%	4.7%	0.0%	0.0%	100%
	2차	56.0%	40.5%	3.6%	0.0%	0.0%	100%
	3차	68.9%	31.1%	0.0%	0.0%	0.0%	100%
	<b>계</b>	<b>64.0%</b>	<b>33.3%</b>	<b>2.6%</b>	<b>0.0%</b>	<b>0.0%</b>	<b>100%</b>
<b>&lt;2번&gt; 음식</b>	1차	54.2%	37.5%	7.3%	1.0%	0.0%	100%
	2차	51.2%	45.2%	3.6%	0.0%	0.0%	100%
	3차	57.6%	38.2%	3.5%	0.7%	0.0%	100%
	<b>계</b>	<b>54.8%</b>	<b>39.3%</b>	<b>5.2%</b>	<b>0.7%</b>	<b>0.0%</b>	<b>100%</b>
<b>&lt;3번&gt; 차량,교통</b>	1차	67.7%	27.6%	4.7%	0.0%	0.0%	100%
	2차	71.4%	28.6%	0.0%	0.0%	0.0%	100%
	3차	77.9%	22.1%	0.0%	0.0%	0.0%	100%
	<b>계</b>	<b>72.1%</b>	<b>25.8%</b>	<b>2.1%</b>	<b>0.0%</b>	<b>0.0%</b>	<b>100%</b>

항목	차수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계
<4번> 자원봉사자 태도	1차	86.5%	13.5%	0.0%	0.0%	0.0%	100%
	2차	82.1%	17.9%	0.0%	0.0%	0.0%	100%
	3차	80.5%	18.8%	0.6%	0.0%	0.0%	100%
	계	<b>83.5%</b>	<b>16.3%</b>	<b>0.2%</b>	<b>0.0%</b>	<b>0.0%</b>	<b>100%</b>
<5번> 통역	1차	60.4%	33.9%	5.7%	0.0%	0.0%	100%
	2차	75.0%	21.4%	3.6%	0.0%	0.0%	100%
	3차	71.4%	27.3%	1.3%	0.0%	0.0%	100%
	계	<b>67.2%</b>	<b>29.1%</b>	<b>3.7%</b>	<b>0.0%</b>	<b>0.0%</b>	<b>100%</b>
<6번> 진행방식	1차	54.2%	37.0%	7.8%	0.5%	0.5%	100%
	2차	50.0%	42.9%	7.1%	0.0%	0.0%	100%
	3차	62.2%	35.3%	1.9%	0.6%	0.0%	100%
	계	<b>56.3%</b>	<b>37.5%</b>	<b>5.6%</b>	<b>0.5%</b>	<b>0.2%</b>	<b>100%</b>
<7번> 문화체험	1차	58.3%	34.4%	6.8%	0.5%	0.0%	100%
	2차	45.2%	47.6%	7.1%	0.0%	0.0%	100%
	3차	62.2%	37.8%	0.0%	0.0%	0.0%	100%
	계	<b>57.0%</b>	<b>38.2%</b>	<b>4.5%</b>	<b>0.2%</b>	<b>0.0%</b>	<b>100%</b>
<8번> 좌담,토론	1차	55.2%	32.8%	11.5%	0.0%	0.5%	100%
	2차	39.3%	52.4%	8.3%	0.0%	0.0%	100%
	3차	55.2%	33.8%	11.0%	0.0%	0.0%	100%
	계	<b>52.1%</b>	<b>37.0%</b>	<b>10.7%</b>	<b>0.0%</b>	<b>0.2%</b>	<b>100%</b>
<9번> 한국역사 문화이해도	1차	64.1%	31.3%	4.7%	0.0%	0.0%	100%
	2차	71.4%	27.4%	1.2%	0.0%	0.0%	100%
	3차	63.6%	31.8%	4.5%	0.0%	0.0%	100%
	계	<b>65.3%</b>	<b>30.7%</b>	<b>4.0%</b>	<b>0.0%</b>	<b>0.0%</b>	<b>100%</b>
<10번> 한국전체 이해도	1차	56.8%	38.5%	4.7%	0.0%	0.0%	100%
	2차	69.0%	29.8%	1.2%	0.0%	0.0%	100%
	3차	59.7%	37.7%	2.6%	0.0%	0.0%	100%
	계	<b>60.2%</b>	<b>36.5%</b>	<b>3.3%</b>	<b>0.0%</b>	<b>0.0%</b>	<b>100%</b>

## □ 한·중 특별교류 사업의 성과

### 한·중 양국 주관기관의 신뢰감의 구축

- 양국의 주관 기관인 한국의 여성 가족부 와 중국의 중화전국청년연합회, 외교부와의 신뢰감이 구축
- 한·중 특별교류 사업의 효과로 양국 청소년 단체간의 우호적 교류 사업 증가
- 한·중간 특별교류 사업 사전회의 등의 정례화
  - 양국 간의 청소년 문제 관심사와 정보교환 등의 긍정적 파급효과 발생

### 한·중 양국 정부 간 교류인원의 증가

- 한·중 특별교류사업의 초기에는 한국 측의 일방적인 초청사업만 실시
- 2006년부터 중국 측의 한국청소년 100명 초청사업 실시를 시작으로 10년도 400명의 한국청소년의 중국 방문
- 양국의 특별교류 사업에 참가 하였던 구성원의 개별적 청소년단체간 교류인원의 비약적 증가

### 사업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 한·중 특별교류사업의 초기 단순 견학위주의 프로그램 구성
- 견학위주의 프로그램에서 체험 교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의 변화로 방한단 으 로 하여금 한국을 정확히 이해 할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 양국의 현황 문제에 대한 세미나 및 토론으로 양국을 이해 할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기여

### 참가대상의 다양화

- 초기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에 국한에서
- 중국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실질적인 중국의 차세대 대표들로 구성하여 한국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인물들로 구성
- 중국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로 대표단을 구성

## □ 한·중 특별교류 사업의 개선부문

### 한·중 양국 청소년간의 실질적인 교류 및 체험 활동 강화

- 기존의 단순 교류활동 탈피, 공동의 주제로 세미나 및 토론 실시 와 함께 체육활동 병행 실시
- 대규모 인원의 교류로 인한 주제 및 시간의 제한성 탈피 합숙형 프로그램 구성 필요
- 한·중간 특별교류 사업 사전회의 등의 확대 정례화
  - 사전회의의 기간 확대를 통한 양국의 실질적인 관심사 확대 토론 효과 발생

### 세미나, 좌담회 등의 진행 내실화

- 세미나 주제 강연 외에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 마련 및 내실화
- 청소년 좌담회의 주제 사전선정 및 준비, 진행 충실화
- 주제 등의 사전 확정으로 인한 양국 청소년들의 교류시 명확한 주제의식과 문제점 도출용이

### 사업 홍보 강화

- 한·중 특별교류 사업의 언론 홍보 강화 필요성
- 한·중간 대규모 청소년교류로서의 상징성 도출 미흡, 사전 언론 홍보로 국민들로부터 하여금 관심 유발을 할수 있게 유도.
- 참가자로 하여금 책임감과 자부심 부여할수 있는 기능

### 적극적 사후관리의 필요

- 한·중 특별교류 사업의 사후관리의 필요성 대두
  - 참가자들의 인적 변동 등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필요
- 1회성 교류가 아닌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대두

## □ 맺음말

한·중 특별교류에 참가하는 한국 및 중국의 청년 및 청소년들은 각자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특별교류에 참여 한다. 물론 한·중간 교육방식,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하 오해와 가치 차이가 있지만 동양문화라는 큰틀 아래에서는 서로의 공통

적인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04년도 처음에 실시하였을 당시 중국 청년들은 단순히 한국을 관광이라는 개념으로 방문을 하였다면, 현재 특별교류로 방문하는 중국의 청년들은 한국을 학습하고, 이해하려는 중국신세대들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 측 제공 프로그램의 참여도 또한 매우 높다. 이것은 중국에 파견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특별교류에 참여 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국가대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사업에 참여 하고, 양국의 이해의 관계를 넓히고 오해의 폭을 좁힐 수 있는 목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 하고, 특별교류의 취지를 이해하고 해를 갈수록 적극적인 사고와 양국의 우호증진 및 청년간의 교류와 소통이라는 큰 틀 아래 사업을 임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볼 때에는 이 한,중 특별교류 사업은 양국 청년의 소통과 교류의 증대라는 큰 목적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긍정적인 결과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머지않은 미래에는 양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양국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과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려는 분위기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이며 큰 성과 중의 하나이다.또한 서구 위주의 사고지향적인 양국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중국 과 한국의 공통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처럼 양국 가에서 주도하는 한. 중 청소년 특별교류 프로그램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더불어 실질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청소년 지도자들의 참여 확대도 필요하며, 직접적인 청소년들의 교류와 다양한 문화적 체험으로 이루어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토 론

박 철 응 (백석대학교 교수)

세계 경제위기의 발생과 과급 및 극복의 과정,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신종 플루의 발생과 전파의 과정 그리고 작금 일본 열도 대지진의 충격파는 모든 세계의 국가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어느때 보다 강하게 실감하게 하고 있다. 전통적이고 물리적인 국경의 의미는 점차로 퇴색 되어가고, 모든 지구촌 시민들이 지역과, 인종,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문제를 공유하고 모든 문제를 함께 협력하여 풀어나가야만 하는 운명공동체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교류활동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그 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다. 본 토론자는 앞의 두 발표의 내용에 대부분 공감하면서 거시적 관점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안코자 한다.

## 1. '선택'의 청소년국제교류활동에서 '필수적 통과역레'의 청소년국제교류활동으로

최근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우리 모두에게 긴박하게 다가온 질문은 생존의 문제 즉 어떻게 국가가 생존하며, 어떻게 가족이 생존하며, 어떻게 내가 생존할 것인가가 하는 문제였다. 글로벌 리더가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박한 글로벌 생활세계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to be or not to be)'의 문제가 당면 과제라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어차피 위기와 위험의 글로벌화가 계속될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글로벌 리더'라는 추상적 정책용어를 실질적이며 구체적이며 긴박성이 내재한 '글로벌 생존역량 강화'라는 정책과 과제라는

용어로 바꾸어 추진하여야 할 때라고 본다. 글로벌 세계 속에서 살아남고, 이웃과 국가를 살아남게 만드는 인물을 만들어 내는 일에 우선 몰두하여야 한다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국제교류가 선택적 활동이거나 소수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활동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의 필수적이며 자신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만인 필수 통과 의례로 규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탁월한 외교력을 국가 제 일의 자원으로 만드는 것만이 정치·군사적 취약성, 부족한 지하자원, 인구감소 등의 위기 요인을 극복하고 미래 국가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길임을 알아서, 청소년국제교류에 박차를 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에 국제교류관련 활동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 활동이 선택적 취미의 수준에서 탈피하여 필수적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차원으로 이해되고 격상되어야 하며, 모든 청소년 활동정책이 생존역량강화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배열되고 혁신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 2. 글로벌 리더십(leadership)에서 글로벌 시티즌십(citizenship)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이 선택에서 필수로, 청소년 일부에서 청소년 모두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은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이 그간의 글로벌 리더십(leadership) 함양에서 글로벌 시티즌십(citizenship) 함양 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글로벌 시티즌십은 글로벌 리더십에 비해 ‘글로벌 생활세계’에 대한 책임감이 우선적으로 강조된다. 두 가지의 책임인데 하나는 ‘글로벌 생활세계의 격조와 규범(ethos)를 학습하고 수궁하며 실천하는 책임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글로벌 위기사회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다. 글로벌 세계는 곧 글로벌 생활세계이다. 생활세계로서의 글로벌 공간은 선행(a priori)적 특성을 가진다. 글로벌 일상세계의 규범, 제도, 언어, 상징, 에티켓 등과 같은 모든 사회적 사실은 개인이 탄생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개인의 특성과 선호여부 이전에 만들어진 선행적 세계이다. 모든 세계의 개인들은 선행적 공간인 글로벌 생활세계 속에서 태어났으며 개인의 생활세계는 글로벌 생활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성과 더불어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무론하고 개인의 모든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에 글로벌 생활세계는 개인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생활공간의 모든 구성원들은 당연한 태도로 이러한 사회적 사실들을 수궁하며 학습해야 할 당위성과 의무가운데 놓여있다.

글로벌화의 진전은 인류의 풍요와 발전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화의 진전 그 자체가 지구온난화, 환경오염과 같은 자연과학적 문제와 실업과 빈곤, 폭력, 기아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생시키거나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불평등과 소외의식을 파생시켜 글로벌 세계의 갈등구조를 증폭과 같은 새로운 위기들의 출현을 의미하기도 한다.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은 글로벌 세계의 공존과 공생, 공영의 가치구현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 글로벌 생활세계의 위험 또는 위기에 책임있는 존재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지와 역량을 배양해주는 것이다.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의 함양은 장기적이며 사회총체적인 국가 과제로써 이해되고 접근되어야 한다.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이라는 핵심적 가치를 중심으로 청소년국제교류의 인프라를 새로운 배열을 시도 할 때이다.

### **3. 청소년국제교류에 존재하는 활동과 복지 패러다임의 혼선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국제교류의 본질적 목적에 대해서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은 복지활동이 아니다. 청소년을 바람직하게 개발하여 육성하여서 미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국익증진이라는 목적도 중요하다. 기초수급 청소년을 배려한 국제교류활동은 해외체험활동 프로그램 중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가다” 조사·연수단』, 『해외테마체험단』,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과 같은 국제교류활동 영역에서 풀어 나가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 해외테마활동, 해외자원봉사활동 현황 및 성과와 개선방안

김 용 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교류협력부장)

## I. 청소년해외테마체험단

### 1. 개요

#### 1 해외테마체험단 프로그램 개발 배경

- 1) 기존의 국내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들은 시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대부분 우리나라와 접근성이 뛰어난 일본, 중국, 몽골, 동남아 등 아시아권을 벗어나기 어려웠으며, 프로그램 내용 또한 몇몇 기관 탐방을 포함한 여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 2) 이런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틀에서 벗어나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어있는 주제(환경, 역사, 문화 등)에 대해 평소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관련 국가에 파견되어 전문가 강의 등의 학습을 하고 체험과 탐방을 곁들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됨
- 3) 이에, 해외테마체험단은 학습 관련된 프로그램이 전체 일정의 80~70%로 구성 되도록 하여, 최대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함
- 4) 이에 일주일 남짓한 파견 기간을 10일에서 최대 13일까지로 연장하고 항공료와 약간의 프로그램비를 청소년이 참가비로 지출 하였으며, 현장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 및 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해당 주제 전공자 및 면접 시 언어 기준을 강화함
- 5) 파견 최소 한 달 전에는 사전교육을 진행하여 프로그램 이해 및 역할분담을

통해 파견국에 대한 이해를 넘어 파견 주제에 대해 국내와 파견국의 차이점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여 학습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함

- 6) 또한 파견 이후 사진으로만 기억되는 국제교류가 아닌, 현지에서 학습하고 체험한 것들을 파견 후 1개월 내 결과보고서로 제출하게 하여 파견당시의 내용을 참가자 외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2 사업목적

- 1) 청소년에게 세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강점분야의 연수·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 배양, 국제적 소통능력 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2) 다양한 해외정보와 문화체험을 통해 향후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삶의 주인으로서 정체성 확립의 기회제공

## 3 사업개요

- 1) 사업명 : 대한민국 청소년 발전 프로젝트, 해외테마체험단
- 2) 사업기간 : 매년 2~12월
- 3) 추진방식 : 직접사업 8~9개, 공모사업 7~10개 진행(공모는 2010부터)
- 4) 주요활동 : 테마 체험·연수, 기관탐방 및 청소년토론
- 5) 참가인원 : 총 531명 (청소년 467명 / 지도자 64명)
- 6) 파견국 : 11개국(유럽 4, 오세아니아 2, 북미 1, 아시아 4)
- 7) 주최 : 여성가족부
- 8) 주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9) 지원조건
  - 정부부담 : 왕복항공료 및 현지체재비 일부
  - 참가자부담 : 체재비 일부 및 교육 경비

1) 2008년 해외테마체험단 사업 시작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진행)

- 2008년도 : 10개국 파견(일본, 독일(2회), 영국, 터키(3회), 프랑스(3회))

파견시기	국가	프로그램명	기간장소	파견인원	
				청소년	지도자
6.23~7.2	일본	일본 속 한국의 얼을 찾아서	9박10일/쓰시마, 오사카, 히로시마, 나라, 교토	17	1
7.21~7.31	독일	기후와 신재생 에너지	8박10일/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쾰른 등	17	2
8.4~8.13	독일	과거사와의 화해	8박10일/베를린, 프랑크푸르트	11	2
7.12~7.21	영국	기후변화에 관한 선진과학, 기술 연수, 청소년 토론	8박10일/런던 등	16	2
7.26~8.6	터키	터키 문화연수 1	10박12일/콘야, 이스탄불	15	4
8.2~8.13	터키	터키 문화연수 2	10박12일/콘야, 이스탄불	15	3
8.9~8.20	터키	터키 문화연수 3	11박13일/콘야, 이스탄불	16	3
6.15~6.25	프랑스	청소년 문화 다양성연수1	9박 11일/파리, 아비뇽	17	3
7.6~7.16	프랑스	지속가능한 발전	9박 11일/파리 등	18	2
7.14~25	프랑스	청소년 문화 다양성연수2	9박 11일/파리, 아비뇽	17	2
5개국 10개 팀 183명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159	24

2) 2009년 해외테마체험단 사업 운영현황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구 진흥센터)운영)

파견시기	국가	프로그램명	기간장소	파견인원	
				청소년	지도자
5.3-5.12	프랑스	지속가능한 발전	8박10일/파리	18	2
5.15-5.24	호주	국제안보	8박10일/시드니	19	1
7.5-7.14	프랑스	축제로 보는 청소년 문화	8박10일/파리, 아비뇽	16	4
7.13-7.22	독일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9박10일/ 베를린	18	2
7.20-7.29	영국	청소년과 환경	9박10일/한국	11	1
7.22-8.3	터키	전통문화체험	11박13일/이스탄불, 콘야	17	2
8.3-8.20	뉴질랜드	에코 스쿨	16박18일/웰링턴 등	15	1
9.11-9.21	스페인	청소년의 참여와 시민의식	9박11일/마드리드, 몰리나	12	2
1.19-1.24	베트남 하노이	또 하나의 모국 방문 프로젝트	4박6일/하노이	11	3
1.19-1.24	필리핀 마닐라		4박6일/마닐라	14	4
<b>9개국 10개 팀 173명</b>				151	22

3) 2010년 해외테마체험단 사업 운영현황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

파견시기	국가	프로그램명	기간장소	파견인원	
				청소년	지도자
5.15~5.23	호주	국제안보/ 평화와 분쟁	8박10일/시드니	18	1
7.5~7.15	독일	기후 변화와 신재생 에너지	9박10일/베를린	18	2
7.18~7.27	미국	양국 간 법적용 차이에 대한 이해	8박 10일/시카고	21	2
8.2~8.11	터키	문명 간의 대화	8박 10일/ 콘야, 이스탄불	17	3
8.21~8.29	뉴질랜드	여성 인권 및 여성의 사회적 위치	10박11일/오클랜드	18	2
8.21~8.30	독일	과거사와의 화해	9박10일/베를린	19	1
10.25~11.03	터키	문명 간의 대화	7박 9일/ 콘야, 이스탄불	22	4
11.07~11.12	일본	한일 문화교육의 역사	5박 6일/ 오사카, 교토, 나라	24	3
<b>6개국, 8개 팀 총 175명</b>				157	18

**5 추진방향**

- 1) 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신소재 테마 프로그램 개발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발전,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등 국내외 이슈에 기초한 테마 프로그램 개발 추진
- 2)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지속 발전
  -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선·발전시키기 위해 국외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관계 강화
- 3) 국제교류 참가자 사전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 파견 전 사전교육을 강화하여 주제에 대한 참가자의 인식 제고
  - 기참가자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기참가자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로 프로그램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기참가자와의 교류 지원을 통해 참가자간 지속적인 네트워킹 및 프로그램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인재로 육성(참가자 면접 및 사전교육, 사후 워크숍 진행시 자원봉사자로 활용)

## 6 참가자 선발 및 참가자격

### 1) 청소년 및 지도자(해외테마체험단 전체 참가자격)

- 모집기간 : 2010. 2~9월
- 신청방법 : <http://iye.g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접수
- 참가자격:

(청소년) 만 15세~24세 / 영어소통 가능자

(지도자) ·만 25세~45세

- 청소년 및 주제 관련 전공 또는 종사자로 지도력이 있는 자
- 영어 및 신청국가언어 가능자 우대

- 선발기준 : 서류심사(자기소개서, 활동계획 평가)

면접심사(주제관련 지식, 외국어능력, 인성평가)

※ 단, 기존 해외테마체험단 참가자는 지원할 수 없음

※ 2008~2009년까지는 만 18~24세 청소년을 모집하였으나, 2010년부터 연령을 만 15~24세로 조정함

※ 2010년부터는 지도자의 연령을 만 28~45세로 조정하였음

## 7 추진일정

### 1) 해외테마체험단 추진 주요 일정

- 모집공고 : 파견 9주~12주 전에 공고

- 서류심사결과 발표 : 파견 8~7주전 공고
- 면접실시 : 파견 7~6주전 실시
- 합격자 발표 : 파견 6~5주전 공고
- 사전교육 : 파견 5~4주전 실시

전일 사전교육 실시 후 팀별 모임 2회 이상 진행

- 결과보고서제출 : 파견 후 4주내
- 사후 워크숍 개최 : 2010. 12. 20(월)~21(화) 1박 2일 개최

## 8 참가자 모집 및 선발

### 1) 참가자 모집 방법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all4youth.net 공고
- 2010 해외테마체험단 기참가자모임 WorlShot 공고 및 기참가자의 학교 게시판 홍보, 스펙업 등 다양한 온라인 동호회, 블로그, 카페 등에 홍보 진행
- 주제별 대학교 전공학과 공문 발송

### 2) 참가자 선발 방법

- 서류심사 :
  -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선발 인원의 3배수 선발
  - 지원동기, 개인능력, 우대항목, 종합평가를 통해 채점
- 면접심사 :
  - 4인 1조로, 한 팀당 20분씩 면접 진행
  -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활동주제 이해도, 통해 예비합격자 5명을 포함한 인원 선발
  - 프로그램 이해도, 활동계획, 언어, 인성 및 태도를 기준으로 함

1) 해외테마체험단의 프로그램 특성에 맞춰 영어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강의 수강

- 사전교육 현황(총 8회 진행)

파견월	파견국	사전 교육일	강사명	소속	주제
5월	호주	4.10	사피우린 아스하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International Security -Brief Introduction
7월	독일	6.5	장필립 보드레	유럽상공회의소	Climate change : new pr past issue?
8월	터키	6.12	사피우린 아스하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Origins of Civilizations, Alliance of Civilizations, World Religions
7월	미국	6.26	Heili Kim	김앤장법률사무소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in applying the law
8월	뉴질랜드	7.3	Tanawiw Talom Glibert	고려대학교 국제발전협력 박사과정	Women's Right and Participation
8월	독일	7.10	Alberto Giacchini	세종대학교 MBA 경제법학 교수	Reconciliation with the Past
10월	일본	10.23	최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일과2년	한일 교류 문화의 역사, 문교·조선통신사도자기
11월	터키	10.16	사피우린 아스하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Origins of Civilizations, Alliance of Civilizations, World Religions

- 사전교육 내용

- 여성가족부 및 해외테마체험단 소개 / • 주제 관련 전문가 강의(2시간)
- 파견전 준비사항 소개 및 역할 분담/ • 기참가자와의 만남
- 기타 질의응답

## 2. 해외테마체험단 성과 (2010년을 기준으로)

### 1 해외테마체험단 추진 성과

#### 1) 사업목표 대비 추진성과

- 6개국, 8개팀 175명 파견
  - 평화, 환경, 법, 문화, 인권, 역사 등과 관련된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습 할 수 있도록 단기프로그램을 운영
  - 연중 사업으로 1학기 중순, 여름방학, 2학기 중순에 파견함
- 총 5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호주 1명, 미국 2명, 터키에 2명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파견 함
- 작년 대비 파견국 및 인원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함

### 2 프로그램 특성화 및 차별화

#### 1) 선진주제에 대한 단기 심화 학습의 장 마련

- 청소년 해외테마체험단의 경우 일반 국외파견 프로그램과 달리 관련 주제별 선진국에 단기 학습을 목표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으며, 주제관련 전문성이 있는 대학교·문화원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 2) 주제 관심 있는 청소년 선발

- 파견 청소년 역시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고 향후 미래비전을 공유하고자 하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선발함

#### 3) 사전교육 강화

- 사전교육의 경우 관련 주제 전문가(관련 학과 교수 및 강사, 관련 업무 종사자 등)로 섭외하여 2시간에 걸친 영어 강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함
- 또한 기파견자들로 구성된 월드샷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파견 경험을 중심으로 파견 준비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 함

- 역할분담을 나누고 파견전·후의 일을 분담해 공동 작업을 가능하게 함

#### 4) 결과보고서 지침 마련

- 2010년 청소년 해외테마체험단의 경우 결과보고서 지침 및 양식을 전달하여 파견 준비과정부터 귀국까지 최대한 자세히 기술 할 수 있도록 함

#### 5) 해외테마체험단 기참가자 모임 WorldShot 운영

- 2009년 청소년 해외테마체험단 기참가자들의 모임인 World Shot의 운영으로 면접부터 사전교육과 더불어 파견전 준비까지 신규 파견자들을 도울 수 있었음
- 또한 WorldShot을 통해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환경 캠페인 등의 다각적 사업을 운영하여 스스로의 학습을 결과를 사회활동에 접목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함

### 3

## 운영여건의 적절성

#### 1) 예산의 적절한 편성

- 환율과 항공권 가격의 갑작스런 상승으로 7월~8월 프로그램 운영시 항공권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원활하게 운영함

#### - 파견 시기의 적절성

- 5월, 7·8월, 10·11월에 파견하여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등의 시기별 파견을 진행함으로써 파견국 상황 및 대상층의 시기 수요를 적절하게 판단함

### 4

## 지도자의 전문성

#### 1) 지도자의 전문성

- 사전교육 강사의 전문성 확보

-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해 강의의 깊이를 더했으며, 일본을 제외한 모든 강의를 영어로 진행하여 참가자의 학습 욕구를 강화함

## 5 청소년 참여의 적절성

### 1) 사전교육 및 파견 전 준비

- 오후 강의 이후에는 파견별 팀장·부팀장·서기·촬영·물품담당 등을 선발해 각자의 역할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함
- 팀에 따라 추천도서별 발표자료 및 현지 발표 초안을 준비해 1~2회 이상의 자체모임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소주제별 토론을 겸하여 주제별 학습의 깊이를 더하였으며, 준비 물품 구매 등을 진행함

### 2) 참가자의 현지 프로그램 다양화 참여

- 뉴질랜드 팀의 경우 현지에서 부채춤을 연습하여 강의 후 발표 시 부채춤을 선보였음
- 터키 팀의 경우 마블링 및 전통 악세사리 만들기 등 학습 이외의 현지 문화를 알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 3) 파견 후 결과보고서 작성 관련

- 조별로 '주제관련 현재 현황-장단점 혹은 배울 점 분석-향후 미래 방향-실행 과제' 등과 관련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배우고 온 것들을 현재 삶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함
- 파견 뒤 소수가 맡아서 진행하는 보고서가 아닌 일정 부분 개인 분량을 요청하여, 모든 참가자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나눠 할 수 있도록 유도함

## 6 지역/기관 연계의 적절성

### 1) 다양한 현지 대학교·문화원 등을 통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 현지 기관을 통해 해당 분야 석학의 강의 수강 혹은 전문가의 분야별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함

파견시기	국가	프로그램명	기간/장소	프로그램 개발기관
5.15~5.23	호주	국제안보/ 평화와 분쟁	8박10일/시드니	시드니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7.5~7.15	독일	기후 변화와 신재생 에너지	9박10일/베를린	주한 독일문화원 괴테인스티튜트
7.18~7.27	미국	양국간 법적용 차이에 대한 이해	8박 10일/시카고	발파라이소대학교 에듀시카고
8.2~8.11	터키	문명간의 대화	8박 10일/ 콘야, 이스탄불	주한 이스탄불문화원 콘야문화원
8.21~8.29	뉴질랜드	여성 인권 및 여성의 사회적 위치	10박11일/오클랜드	오클랜드대학교
8.21~8.30	독일	과거사와의 화해	9박10일/베를린	주한 독일문화원 괴테인스티튜트
10.25~11.03	터키	문명간의 대화	7박 9일/ 콘야, 이스탄불	주한 이스탄불문화원 콘야문화원
11.07~11.12	일본	한일 문화교육의 역사	5박 6일/ 오사카, 교토, 나라	교토다찌바나대학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직접사업 총계(6개국, 8개팀), 총 175명 파견				9개 기관과 연계

## 7 프로그램 평가운영의 체계성

### 1) 사후 설문 실시

· 종합만족도 : 82.3점

→ 해외테마체험단의 종합만족도는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 중 3번째로 높은 82.3점을 나타냄(종합만족도 84.4)

- 2009년도 경우 83.2점으로 평균인 81.5점에 비해 다소 높게 결과가 측정된 바 있음
- 종합만족도 점수의 변동 사유
  - 높은 참가비
  - 또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 외에도 기

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말 해외테마체험단의 만족도도 같이 분석됨(연말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적인 해외테마체험단과는 다르게 지역 및 기관 탐방이었으며, 참가자 또한 선발이 아닌 추천으로 진행됨)

- 유럽권에서 오세아니아 및 아시아권으로 파견 국가변경
- 몇몇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이름에 걸맞은 프로그램차별화 전략 부재
- 연령·교급별 차이 및 선발 청소년들 간의 개인 격차로 인한 파견 팀 내 교류의 어려움(양질의 참가자 선발의 어려움)

### 3. 해외테마체험단 자체평가 및 대안 (2010년을 기준으로)

#### 1 자체평가

##### 1) 부문별 자체 평가의견

- 프로그램 특성화 및 차별화
  - 기존의 유럽국가에서 진행하던 테마체험단의 파견국이 유럽보다는 접근성이 뛰어난 태평양 권역으로 수정됨(미국, 뉴질랜드, 일본)
  - 사전교육의 경우 전문가 강의 및 체계적인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나, 정식 사전교육이 1회로 파견전 참가자들의 보다 심도 있는 주제 탐구에는 아쉬움을 남김
  - 2009년까지 팀별 양식에 맡겼던 결과보고서를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공통된 양식을 제공하여 보다 나은 주제별 결과를 정리할 수 있게 함
  - 2009년도 파견 청소년을 주축으로 시작된 해외테마체험단 기참가자 모임 'WorldShot'을 통해 주기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2010년 해외테마체험단 운영시 면접·사전교육 등에 있어 서포터즈로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 운영 여건의 적절성
  - WorldShot 운영에 있어 해외테마체험단 사업의 서포터즈로 활동함으로 시기적절한 예산 지원 필요
  - 촉박한 사업시행 통보로 인해 참가자 모집, 사전준비 등이 급하게 진행됨

## 2) 사업성과에 대한 총평

- 목적했던 선진화된 이슈들을 단기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되었던 것만큼 청소년들에게 보다 강화된 관련 지식을 쌓고 현지 경험을 통해 자아를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음
- 2010년에 처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파견하였으며, 참가자 평균 수준의 프로그램 참여도를 보임
- 우수사례 : 8월 뉴질랜드, 독일
  - 참가자 구성에 따른 팀별 충성도 및 만족도가 확연히 차이를 나타냄
  - 8월 뉴질랜드 ‘여성 인권과 여성 사회적 위치’ 프로그램의 경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부채춤)을 만들어 선보이는 등의 탄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함. 이 팀의 경우 선발에서 파견까지 1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있었으며, 팀장의 정확한 리더십 아래 조장들의 확실한 역할 수행으로 참가자 전원이 모두 역할을 맡아 열심히 참여했음
  - 8월 독일 ‘과거사와의 화해’ 팀 또한 1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있었으며, 철저한 사전 학습을 통해 현지 학습 결과가 보다 것으로 판단됨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참가자 선발시 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선발해 프로그램의 참여 의지가 확실하고, 열의 있는 청소년으로 구성 필요
  - 2회 이상의 사전교육을 통해 파견전 보다 철저한 사전학습 및 준비 필요

## 1) 향후 발전 방안

- 충분한 사업 준비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준비시간 확보)
- 사전교육 및 참가자 역량 강화
  - 사전교육을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참가자간 정규 준비모임을 3회 이상으로 공지하여 원활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 참가자간 명확한 역할을 배분하여 파견 전·후 준비 및 정리를 가급적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함
- 지도자 선발 및 파견 전 역할 숙지 관련
  - 파견 주제에 부합한 역량 있는 지도자 선발 및 파견전 교육 등의 프로세스 강화
- 홍보 강화
  - 파견자 모집기간을 파견 전 3개월 전에 시작하여 보다 다양한 청소년들의 모집 유도
  - 또한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교류센터, WorldShot 외의 기타 커뮤니티를 통한 다각적 홍보 필요

## 2) 충분한 사업 준비 기간

- 프로그램 파견 3개월 전 공고, 1개월 전 사전교육을 기준하여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시간 필요

## 3) 자질 있는 청소년 선발 및 참가 연령층 논의 필요

- 열정과 성실함으로 파견단 내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선발
- 이는 충분한 사업 모집·홍보기간을 가질 때 가능하며, 사전교육을 통해 강화할 수 있음
- 연령층 논의 필요
  - 해외테마체험단의 경우 파견전과 후의 팀별 협력 활동의 중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저 연령층의 참여 독려방안이나 참여 연령층의 논의가 필

## 요함

### 4) 자질 있는 지도자 선발

- 파견주제 관련 지도자 선발이 관련 분야에 학위 혹은 활동 경험이 있는 자로서 참가자들을 잘 어우를 수 있는 성인으로 선발하여 프로그램 진행시 보다 매끄럽고 내실 있는 지도자의 역할 기대

### 5) 홍보 강화

- 참가자 모집 시 학교 대상의 홍보 필요

### 6) WorldShot 해외테마체험단 기참가자 모임 지원 확대

- WorldShot의 경우 해외테마체험단 사업 운영시(면접, 사전교육, 팀별 준비모임 등) 훌륭한 서포터즈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자체 동아리 운영을 통해 문화 다양성 학습 및 환경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음
- WorldShot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운영예산 편성 필요
- 서포터즈 활동과 더불어 향후 국제활동 사업에서 활동가로서의 역할 기대

### 7) 다각화된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철학에 부합하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선진분야의 주제를 잘 활용하고 있는 선진국 중심의 국가 선정 및 적절한 현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다각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필요

## II.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개요

### 1. 개요

#### 1 사업 배경

- 청소년의 해외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의식과 국제적 역량강화
- 청소년들의 해외봉사활동 및 외국 청소년들과의 교류활동 등을 통해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진취적 기상 배양
- 청소년들의 자발적 해외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이웃을 배려하는 심성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

#### 2 사업목적

- 청소년의 직업과 글로벌역량, 세계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사회참여현장을 해외로 확대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현지 지역사회 변화와 자생력 제고
- 다양한 기관의 참여유도로 청소년의 해외봉사활동 기회 확대
- 전문적 운영능력을 보유한 공공기관의 사업운영을 통해 운영체계 일원화
-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청소년해외봉사활동 종합지원서비스 구축기반 마련

#### 3 사업개요

- 사업명 : 2011년도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해외자원봉사
- 파견시기 : 동계(1~2월) 및 하계(7~8월)로 구분 실시
- 파견지역 :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교류가 가능한 지역
- 추진방법 : 국제자원봉사활동의 경험과 운영능력, 해외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선정 추진
- 파견인원 : 672명

- 지원내용 : 편도항공료 및 현지 봉사활동비, 운영비 등
  - 참가자 부담 : 현지 숙식비, 체재비, 해외여행자보험, 여권 및 비자발급 등
  - 기초생활대상수급청소년 : 활동비 전액 지원
- 활동내용 : 자원봉사, 문화교류, 문화 및 진로(직업)체험 등
- 주 최 : 여성가족부
- 주 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공모를 통해 선정 된 운영기관·단체

#### 4

### 주관단체 선정 방향

- 선정방법 : 공모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한 등록단체
  - 순수 민간단체로써 국고의 보조를 받지 않는 단체 및 기관
  - 위의 자격을 보유하고 해외봉사활동 파견 및 운영 건수 3회 이상인 기관·단체
  - 현지 활동거점 및 협력기관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
  - 기타 민간 봉사단체로 활동 중인 단체

#### 5

### 사업공모 개요 및 절차

#### [공모방법 및 절차]

- 공모사업명 : 2011 꿈과 사람 속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파견
- 공모사업 규모
  - 동계파견 : 1~2월, 10~12개 프로그램, 10개 기관, 300명
  - 하계파견 : 7~8월, 15~20개 프로그램, 12개 기관, 400명
  - ※ 1개 프로그램 인원 : 17명~20명 단위(지도자 1명 포함)
- 활동내용
  - 노력봉사, 환경개선, 교육봉사, 역사탐방, 경제체험, 문화교류 등

○ 예산지원

- 지원규모 : 팀(프로그램)당 12,000천원
- 지원내역 : 편도항공료(지도자 왕복항공료), 현지활동비, 운영비 등

○ 지원조건

- 편도항공료 및 현지 프로그램 진행비(물자 및 활동비) 지원
- ※ 기초생활대상수급자 청소년의 경우 활동비 전액 지원

## 6 사업 추진일정

○ 전체 주관일정

- 사업추진 및 기본계획 수립 : '10년 11월 5일(금)
- 사업승인 및 보조금 교부 : '10년 11월 15일(월)
- 주관단체 공모 및 선정 : 동계('10년 12월) 및 하계('11년 5월)
- 주관단체 설명회 : 동계('11년 1월) 및 하계('11년 6월)
- 최종 보고회 개최 : '11년 9월
- 보고서 발간 및 배포 : '11년 10월

○ 동계 사업

- 주관단체 공모 : '10년 11월 22(월) ~ 30일(화)
- 주관단체 심사 및 선정 : '10년 12월 3일(금)
- 선정 기관별 자원봉사단 모집공고 : '10년 12월 6일(금) ~ 17일(금)
- 현지 봉사활동 : '11년 1 ~ 2월
- 자체 결과보고·평가 : '11년 3월 중

○ 하계 사업

- 주관단체 공모 : '11년 3월 중
- 주관단체 심사 및 선정 : '11년 4월 중
- 선정 기관별 자원봉사단 모집공고 : '11년 4월
- 사전교육 및 준비 : '11년 4~5월
- 현지 봉사활동 : '11년 7월 ~ 8월
- 자체 결과보고·평가 : '11년 9월 중

NO	기 관 명	파견국 및 일정			
		개수	지 역	일 정	참가인원
합 계		12	7개 국가		232명(청소년 214, 인솔자 18)
1	서울흥사단	1	베트남	'11.2.10~2.21	17명(청소년 16, 인솔자 1)
2	(사)아드라코리아	1	캄보디아	'11.1.18~1.28	18명(청소년 16, 인솔자 2)
3	(사)한국청소년재단	1	라오스	'11.2.14~2.24	22명(청소년 18, 인솔자 4)
4	대한적십자사	1	인도네시아	'11.1.11~1.21	40명(청소년 37, 인솔자 3)
5	(사)코피온	2	필리핀	'11.1.18~1.28	17명(청소년 16, 인솔자 1)
			중국	'11.1.17~1.29	16명(청소년 15, 인솔자 1)
6	국제워크캠프기구	3	방글라데시	'11.2.12~2.22	17명(청소년 16, 인솔자 1)
			인도네시아	'11.2.12~2.22	17명(청소년 16, 인솔자 1)
			필리핀	'11.2.12~2.22	17명(청소년 16, 인솔자 1)
7	(사)아시아교류협회	3	캄보디아	'11.1.31~2.10	17명(청소년 16, 인솔자 1)
			라오스	'11.1.31~2.10	17명(청소년 16, 인솔자 1)
			베트남	'11.2.15~2.25	17명(청소년 16, 인솔자 1)

NO	기 관 명	파견국 및 일정			
		개수	지 역	일 정	참가인원
합 계		12	7개 국가		232명(청소년 214, 인솔자 18)
1	서울흥사단	1	베트남	'11.2.10~2.21	17명(청소년 16, 인솔자 1)
2	(사)아드라코리아	1	캄보디아	'11.1.18~1.28	18명(청소년 16, 인솔자 2)
3	(사)한국청소년재단	1	라오스	'11.2.14~2.24	22명(청소년 18, 인솔자 4)
4	대한적십자사	1	인도네시아	'11.1.11~1.21	40명(청소년 37, 인솔자 3)
5	(사)코피온	2	필리핀	'11.1.18~1.28	17명(청소년 16, 인솔자 1)
			중국	'11.1.17~1.29	16명(청소년 15, 인솔자 1)
6	국제워크캠프기구	3	방글라데시	'11.2.12~2.22	17명(청소년 16, 인솔자 1)
			인도네시아	'11.2.12~2.22	17명(청소년 16, 인솔자 1)
			필리핀	'11.2.12~2.22	17명(청소년 16, 인솔자 1)
7	(사)아시아교류협회	3	캄보디아	'11.1.31~2.10	17명(청소년 16, 인솔자 1)
			라오스	'11.1.31~2.10	17명(청소년 16, 인솔자 1)
			베트남	'11.2.15~2.25	17명(청소년 16, 인솔자 1)

## 2.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성과 및 평가 (2011년 동계 파견을 중심으로)

### 1 추진 성과

- 1) 2011년 동계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성과
  - 7개국, 12개팀 232명 파견(청소년 214, 인솔자 18)
  - 하계 440명 파견 예정
  - 20명의 기초생활수급자 활동비 전액 지원

## 2

## 활동 주요 성과

### 1) 참가 청소년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주도적 나눔 활동

- 꿈과 사람속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봉사단의 파견 취지와 목적 이해
- 현지교육활동 및 대학생들과의 교류 등 현지프로그램 기획
- 봉사단원간의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능력, 공동체 의식 함양
- 봉사단원의 바른 자세와 팀워크로 사회성 및 만족도 향상
- 참가자 동아리 조직을 통한 나눔 활동의 지속성 확보
- 기존 참가자가 스텝으로 참여하는 문화 형성

### 2) 국내 최초 장애·비장애 청소년 버디 해외봉사활동 운영

- 아드라코리아 : 전체 활동 청소년 중 지체장애 1급, 2급, 뇌병변 1급, 2급, 청각장애 3급 등 총 5명 참가(장애청소년 비율 34%)

### 3) 현지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네트워크 형성

- 일방향성을 지양한 쌍방의 교류에 초점을 둔 청소년교류활동으로 현지 맞춤형 해외자원봉사프로그램을 기획
- 현지 정부관계자 및 학교 관계자, 한국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 마을 주민들의 환영, 봉사단의 열정이 잘 조화된 활동
- 현지 NGO기관 및 센터 프로그램 활용→지속적인 봉사 활동 촉진
- 현지 대학교 및 지역 감사장 수여 및 신문사, 방송국 인터뷰

## 3

## 평가 제언 (기관 자체 평가 중심)

### 1) 모집기간의 적절성과 홍보 방법의 차별화, 보상체계 마련 필요

- 5월, 7·8월, 10·11월에 파견하여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등의 시기별 파견을 진행함으로써 파견국 상황 및 대상층의 시기 수요를 적절하게 판단이 필요

### 2) 사전교육 개선 필요

- 사전교육 시간 확대 및 내용의 다양화 필요
    - 강의식 교육 이외, 실제적 활동 교육, 친목의 시간이 더욱 필요
  - 전국 각지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준비로 사전준비 참여도가 낮았음
- 3) 현지상황에 대한 세밀한 파악과 현지요구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조정능력 필요
- 프로그램 운영 시 돌발 상황 등에 의해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경우

## 4

### 향후 발전방향

- 1) 모집 및 선발 기간 조정 필요
  - 모집기간의 연장과 최소 3~4주간의 홍보 및 모집 활동이 요구됨
  - 심도 있는 심사와 중도 탈락자를 대체할 추가 모집자를 선정할 시간을 고려하여 2주간의 최종합격자 선정의 시간이 필요함  
(1차: 최종합격자 / 2차 : 중도탈락자 발생 후 추가 합격자)
- 2) 정부차원의 홍보 지원
  -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 해외자원봉사사업은 그 규모와 내용이 크고 알차게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매우 떨어짐
  -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국내의 대표적인 봉사단이 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측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이 필요
- 3) 발대식과 해단식의 공동 진행
  - 국내 교육 시 여성가족부측의 발대식, 해단식과 같은 국내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봉사단원으로서의 소양교육을 진행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차원에서 봉사활동을 격려가 필요함
- 4) 통일된 봉사단 브랜드 및 물품 필요
  - 추 후단체복, 명찰 등을 통일화 하여 소속감과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통일된 봉사단 브랜드 및 물품이 필요함

## 해외조사연수, 국제회의·행사 파견 성과와 개선방안

지 세 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협력사업부장)

### □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가다 추진의 의의

우리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비행기, 고속철도와 같은 교통의 발달, 위성통신, 인터넷과 같은 국제적 정보·통신체계의 급진적 발달로 종래의 시공간의 개념이 무너졌다. 전 세계가 '지구촌'이라는 단일생활권으로 급속도로 압축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촌락'이 일생동안의 생활권이었던 '전근대 사회'에서, '국가'를 생활권으로 하던 '근대사회'를 지나, 이제 '전 세계', '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는 '탈근대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국가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국제적 자본, 즉 지구자본주의 출현으로 국제화는 사회발전 뿐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생존과 결부된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시대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국제적 감각은 자유롭고 왕성한 국제사회와의 교류, 접촉을 통해서 형성·발전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 육성을 위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은 국가를 생활권으로 하던 전근대적 시대와 변화무쌍한 탈근대적 시대의 경계에 머물러 왔다. 그러면서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변화를 통해 현재 머물고 있는 경계를 넘어 탈근대의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국제교류활동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이어져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인식한 예전의 청소년 관련 정부전담 부처인 국가청소년위

원회에서는 2006년에 기존의 국제교류활동의 틀을 깨고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신의 재능과 창의성을 살려 세계 각국의 장점분야에 대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해외파견사업인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가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2008년도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청소년관련 업무를 이관 받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제화시대를 선도해나갈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세계무대에서 외국의 청소년들과 당당히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용기와 개척정신을 심어주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고양하고자 ‘국제회의 및 행사 파견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많은 청소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두 국제 교류 프로그램은 현재의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의 중점추진사업으로 현재까지 활발히 추진되어오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외국의 사회와 문화, 정치경제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진로선택과 미래설계, 글로벌역량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고자하는 청소년들의 요구와 접합되면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 □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사업추진 개요

### I.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가다” 해외 조사·연수단

#### 가. 사업목적

- 1) 외국의 청소년정책, 인문·사회분야, 이공계분야, 청(소)년의 진로·취업 등을 주제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조사·연수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 참여의식 고양 및 국제적 역량 강화로 한국 청소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
- 2)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자발적 해외 연수의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항공료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본인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글로벌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나. 사업개요

- 1) 사업명: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가다” 해외 조사·연수단
- 2) 파견시기: 매년 6 ~ 10월 중(팀별 일정에 따라 파견)

- 3) 파견규모/기간: 총 300여명(팀별 4명 내외, 75여개팀)/10~30일 이내  
 ※ 10대 청소년 참여확대(참가자 중 40%), 일반고 청소년 참여확대(10대 청소년 중 80%), 마이스터고(전문계고) 등의 재학 청소년 참여 확대
- 4) 공모분야
- 청소년분야: 청소년 관련 정책, 교육, 프로그램, 자치활동 등
  - 인문·사회분야: 선진 정책 및 사회적 이슈 등
  - 이공계분야: 선진 기술 및 기업 활동 등
  - 진로·취업분야: 진로·취업 관련 정책, 프로그램, 사회적 기업 조사 등
  - 기 타: 위 분야 외에 청소년이 창안한 획기적인 주제 등
- ※ 위 분야와 중복되지 않는 획기적인 주제 및 활동계획일 경우 선발
- 5) 주최/주관: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다. 파견지역 및 지원조건

- 1) 파견지역: 팀별 1개 대륙 3개국 이내
- 2) 지원조건: 대륙별 왕복 항공료 상한 지원
-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 지역: 1인 100만원까지 상한 지원
  - 미주·아프리카 및 기타지역: 1인 120만원까지 상한 지원
- 3) 항공료 지원방법: 출발 시 지원액의 70%, 결과보고서 제출 후 30% 지원  
 ※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입국 후 1개월 이내 제출) 왕복 항공료 전액 본인부담  
 ※ 파견국가 안에서의 국내선 이용은 지원 제외(국가간 이동 항공료만 지원)
- 4) 참가자부담
- 항공료 중 지원한도액을 초과한 금액
  - 현지 체재비 및 활동비, 해외여행자보험료
  - 여권 및 비자 발급비 등

#### 라. 응모자격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5세~24세의 청소년
- 2)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3) 팀 구성원 중 2명 이상 영어 또는 파견국 언어 가능자 필히 포함

마. 응모·활동실행·결과보고 방법

- 1) 응모방법: 청소년 스스로 팀(4명 내외)을 구성하여 주제선정, 활동계획 등을 작성하여 응모(자유양식)
- 2) 활동실행: 6 ~ 10월 중 팀별 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 실행
- 3) 결과보고: 활동 종료 후 4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소정양식)

바. 참가자 모집방법

- 1) 모집기간: 매년 3월중 20여일간
- 2) 모집광고 방법: 온라인 공고
  - 여성가족부,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청협, 청협 회원단체 홈페이지 등
- 3) 제출서류
  - 팀·개인용 참가신청서(소정양식) 각 1부
  - 활동계획서(A4 용지 20매 내외, 지정 양식) 및 활동계획 요약서 각 1부
    - 활동주제·목적·내용·일정 등
  - ※ 개인 신상명세서, 미성년자 부모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등은 선발확정 후 제출
- 4) 제한사항
  - 최근 3년 내 여성가족부 시행 모든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기참가자 선발 제외
  -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국가간 청소년교류, 한·중특별교류, 한중일 우호의 만남, 청소년 해외체험프로그램 등
  - 무단 도용, 표절 등을 금하며 발견 시 선발, 시상 등 취소
  - 중복지원 불가(1개 팀, 1개 프로그램 및 주제만 응모)
- 5) 응모방법: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응모

사. 참가자 선발과정

- 1) 1차 서류심사
  - 평가내용: 활동계획의 타당성, 창의성, 실용성, 인적구성 등
  - ※ 성별, 지역, 학력, 파견대륙 등을 고려하여 선발

## 2) 2차 면접심사

- 평가내용: 활동계획, 인성평가, 개인능력, 언어능력 등
- ※ **성별, 지역, 학력, 파견대륙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아. 참가자 사전 워크숍

- 1) 기간/장소: 당일교육/서울
  - 2) 인 원: 약 300명(참가자 및 관계자 등)
  - 3) 주요내용
    - 특별강연 및 자문위원과의 간담회 개최
    - 서포터즈(기 참가자) 경험담 발표 및 질의응답
    - 항공권 예약 방법 및 파견자 준비사항, 결과보고서 작성요령 안내 등
- ※ **사전 워크숍 불참 시 참가자격 박탈**

### 자. 전문 자문단 및 서포터즈 운영

- 1) 목 적: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의 사업별 방향 제시와 평가를 통한 청소년활동 지원 강화 및 사업 내실을 기함
- 2) 전문 자문단
  - 역 할
    - 참가자 선발심사(서류심사, 면접심사)
    - 사전 워크숍 시 각 분야별 강연(활동계획 및 연수활동 방향 제시) 및 질의응답
    - 조사·연수 활동 종료까지 참가자들의 활동계획 지도 및 자문
    - 결과보고서 콘텐츠 개발 및 평가
    - 기타 조사·연수 활동에 필요한 자문 등
  - 활동기간: 3 ~ 12월(10개월)
  - 자문내용: 각 분야별 조사·연수 활동에 필요한 사전조사, 활동계획 실행, 결과보고서 작성법 등
  - 자문방법
    - 사전 워크숍 시 각 분야별 참가자에게 직접 자문
    - 개인 연락망을(이메일, 핸드폰) 이용한 문의사항 답변

- 관련분야 전문가 및 학계 교수 등 4명 이내로 구성

### 3) 서포터즈

#### ○ 역할

- 참가자 선발심사(면접심사) 참여
- 사전 워크숍 시 각 분야별 경험담 발표 및 질의응답
- 활동계획 및 참가 실행방법, 예산 편성 및 사용법, 현지기관 컨택 및 인터뷰 방법, 숙·식 등의 현지생활에 필요한 노하우
- 결과보고서 작성법, 토론 및 발표준비, 국제매너 등의 기타 사전준비에 필요한 노하우 자문 등
- 기타 조사·연수 활동에 필요한 자문 등

#### ○ 활동기간: 4 ~ 12월(9개월)

#### ○ 조사·연수 프로그램 기참가자 중 선발

#### ○ 활동방법

- 사전 워크숍 시 각 분야별 참가자에게 직접 자문
- 참가자 공식클럽(싸이월드) ‘서포터즈 Q와A’ 게시판 관리 및 운영
- 개인 연락망을(이메일, 핸드폰) 이용한 문의사항 답변

### 차. 사후 워크숍

#### 1) 기간/장소: 12월 중 / 미정

#### 2) 참가대상: 참가자 전원 300명

#### 3) 주요내용

- 우수팀 시상: 여가부 장관상 및 청협 회장상
- 프로그램 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 모색
- 참가자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사후모임 조직 및 관리방안 논의

## II.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제회의·행사 참가단

### 가. 사업목적

- 1) 청소년들이 국제회의·행사 등 다양한 해외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지원하여 청소년의 국제적인 능력 배양과 국가 경쟁력 제고

#### 나. 사업개요

- 1) 사업명: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제회의·행사 참가단
- 2) 파견시기: 매년 2월 ~ 다음해 1월(국제회의·행사 일정에 따라 파견)
- 3) 대상 국제회의·행사
  - 2011년 중 개최되는 청소년 관련 국제회의, 포럼, 축제, 캠프 등
- 4) 파견규모: 70명
  - 개인 또는 청소년단체 참가 가능
  - ※ 10대 청소년 참여확대(참가자 중 40%), 일반고 청소년 참여 확대(10대 청소년 중 80%), 마이스터고(전문계고) 등의 재학 청소년 참여 확대
- 5) 파견기간: 5~10일 내외(국제회의·행사에 따라 조정 가능)
- 6) 역할 및 주제 관련 사항
  - 주제 발표, 공연 참여 등 일정 역할을 하는 경우, 선발 우대
  - 회의·포럼 등의 주제는 청소년 정책관련 사항 우대
  - 활발한 활동 없이 단순하게 청취, 참관하는 수준의 참가는 제외
- 7) 주최/주관: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다. 파견지역 및 지원조건

- 1) 파견지역: 국제회의, 포럼, 축제, 캠프 등 행사 개최국
- 2) 지원조건: 1인 왕복 항공료의 70% 지원
  - 프로그램 성격상 인솔자가 필요한 경우 참가자와 동일조건으로 지원
- 3) 항공료 지원 방법: 출발 시 지원액의 70%, 결과보고서 제출 후 30% 지원
- 4) 참가자부담
  - 왕복 항공료의 30%
  - 현지 체재비 및 활동비, 해외여행자보험료
  - 여권 및 비자 발급비 등

#### 라. 응모자격

- 1) 청소년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5세~24세의 청소년으로서 초청국의 해당 국제회의, 포럼, 축제, 캠프 등의 행사 참가 자격 소유자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회의·행사 주최측에서 제시한 행사 공용언어 가능자

## 2) 청소년단체

-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및 기관
- ※ 최근 3년내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포함) 시행 모든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기참가자 선발 제외
-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국가간 청소년교류, 한·중특별교류, 한중일 우호의 만남, 청소년 해외체험프로그램 등
- ※ 청소년단체 및 인솔자는 지원가능(단, 단체파견단에 소속된 참가자는 제한)

## 마. 응모·활동실행·결과보고 방법

### 1) 응모방법

- 청소년: 청소년 스스로 참가 가능한 국제회의, 포럼, 축제, 캠프 등의 행사를 선정하여 활동계획서 작성 및 응모
- 청소년단체: 청소년단체 스스로 참가 가능한 국제회의, 포럼, 축제, 캠프 등의 행사를 선정하고 청소년 참가단을 구성하여 활동계획서 작성 및 응모

### 2) 활동실행

- 청소년: 선정 후 자율적으로 활동 실행
- 청소년단체: 선정 후 단체의 책임 하에 프로그램 일체를 실행

### 3) 결과보고: 활동 종료 후 4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소정양식)

## 바. 참가자 모집방법

### 1) 모집기간

- 1차 파견: 3월중
- 2차 파견: 7월 중
- 각국 정부를 통한 참가요청 국제회의·행사의 경우 수시 모집

### 2) 모집광고 방법: 온라인 광고

- 여성가족부,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청협, 청협 회원단체 홈페이지 등

### 3) 제출서류

#### ○ 청소년

- 참가신청서 및 참가동기서(온라인 양식) 1부
- 활동계획서(A4 용지 20매 내외, 자유 양식) 및 활동계획 요약서 각 1부

#### ○ 청소년단체

- 참가신청서 및 참가동기서(온라인 양식), 활동계획서, 활동계획서 요약서, 시행기관 현황 조사서 각 1부

**※ 개인 신상명세서, 미성년자 부모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등은 선발확정 후 제출**

### 4) 제한사항

- 최근 3년내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포함) 시행 모든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기참가자 선발 제외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국가간 청소년교류, 한·중 특별교류, 한중일 우호의 만남, 청소년 해외체험프로그램 등**

- 무단 도용, 표절 등을 금하며 발견 시 선발, 시상 등 취소
- 중복지원 불가(1개 국제회의 혹은 행사만 응모)

### 5) 응모방법: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응모

## 사. 참가자 선발과정-1차 모집

### 1) 1차 서류심사

- 평가내용: 활동계획, 개인역량, 효과성 등

### 2) 2차 면접심사

- 평가내용: 활동계획, 인성평가, 개인능력, 언어능력 등

## 아. 참가자 사전 워크숍

### 1) 기간/장소: 당일/서울

### 2) 주요내용

- 항공권 예약 방법 및 파견자 준비사항, 결과보고서 작성요령 안내 등

### 자. 전문 자문단 및 서포터즈 운영

1) 목 적: 청소년 해외 체험 프로그램의 사업별 방향 제시와 평가를 통한 청소년활동지원 강화 및 사업 내실을 기함

#### 2) 전문 자문단

##### ○ 역 할

- 참가자 선발심사(서류심사, 면접심사)
- 사전 워크숍 시 각 분야별 강연(활동계획 및 연수활동 방향 제시) 및 질의응답
- 조사·연수 활동 종료까지 참가자들의 활동계획 지도 및 자문
- 결과보고서 콘텐츠 개발 및 평가
- 기타 조사·연수 활동에 필요한 자문 등

##### ○ 활동기간: 3 ~ 12(10개월)

##### ○ 자문내용: 국제회의, 포럼, 축제, 캠프 등의 사전준비, 발표자료 등

##### ○ 자문방법

- 사전 워크숍 시 각 분야별 참가자에게 직접 자문
- 개인 연락망을(이메일, 핸드폰) 이용한 문의사항 답변

##### ○ 관련분야 전문가 및 학계 교수 등 2명 이내로 구성

#### 3) 서포터즈

##### ○ 역 할

- 참가자 선발심사(면접심사)
- 사전 워크숍 시 각 분야별 경험담 발표 및 질의응답
- 국제회의·행사 참가 활동계획서 지도, 토론자료 및 발표준비, 국제매너 등의 사전지식, 노하우 등의 자문역할
- 결과보고서 작성법, 토론 및 발표준비, 국제매너 등의 기타 사전준비에 필요한 노하우 자문 등
- 숙박, 식사, 이동방법 등의 현지생활에 필요한 사전지식 및 노하우 자문
- 기타 국제회의·행사 활동에 필요한 자문 등

##### ○ 활동기간: 3 ~ 12(10개월)

##### ○ 자문방법

- 사전 워크숍 시 각 분야별 참가자에게 직접 자문
- 참가자 공식클럽(싸이월드) ‘서포터즈 Q와A’ 게시판 관리 및 운영
  - 개인 연락망을(이메일, 핸드폰) 이용한 문의사항 답변
- 국제회의·행사 기참가자들 중 행사·대륙별 5명 이내 구성

#### 차. 사후 워크숍

- 1) 기간/장소: 12월 중 / 서울 또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2) 참가대상: 70명 전원
- 3) 주요내용
  - 우수팀 시상: 여가부 장관상 및 청협 회장상
  - 프로그램 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 모색
  - 참가자들간의 상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사후모임 조직 및 관리방안 논의

### □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가다’ 개선방향

#### 1.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자

국제화시대의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국제교류에 대한 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외로 청소년들은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이며 정책의 수혜자인 청소년에게 원활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홍보를 위한 예산집행이 행정규정과 예산부족의 문제로 어렵기 때문이다.

오래전 조사 결과이지만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60.1%의 청소년이 외국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청소년단체나 국가가 실시하는 국제교류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언제 어디에서 실시하는지 몰라서’가 64.0% 압도적으로 높다. 이외의 응답으로는 ‘시간이 없어서’(11.4%)나 ‘내용이 재미없어서’(7.9%), ‘참가절차가 까다로 와서’(6.6%)라는 답이 나왔다.

이제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예전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신문이나 방송보도 등의 소극적인 홍보를 가지고는 안 된다. 적어도 4대 일간지에 광고계제와 인터넷 포탈 메인화면 광고 등과 같은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광고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은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으며 우수하고 적격한 청소년 참가자들의 신청이 늘어날 것이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 확대된 청소년들의 호응과 참여도 증가는 그동안 정부조직개편 시 마다 존폐를 거듭했던 청소년국제교류 전담부서의 지속성과 업무영역의 확대를 담보하여 줌으로서 결국에는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의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 2. 사업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자.

현재 정부의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은 일반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류활동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청소년들의 참여와 호응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그 이유를 면밀히 조사해본 결과 LG글로벌 챌린저는 지원금액이 높고, 우수 연수자에 대해서는 LG그룹에 입사의 기회가 주어지며, 신문광고 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잘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많은 예산지원 많은 LG글로벌 챌린저의 강점을 제한된 예산과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부사업이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파악, 이를 활용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추진사업의 강점은 대내외적인 공신력과 포상이다. 현재의 입학사정관 제도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질과 역량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고 있는 동 사업은 청소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호기를 활용하여 동 행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 사업을 단순참여가 아닌 철저한 참가자 경쟁방식에 의한 경쟁대회 형식의 해외파견 활동으로 내용을 조정하여 우수 참가자에게는 순위별 시상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 3. 국제회의나 행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제기구에 대한 디렉토리를 제작 보급 하자.

오늘날을 지식정보의 시대라고 하며 이는 정보와 지식이 곧 힘이고 돈이며 권력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전의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는 노동력과 자본이 모든 힘과 돈의 원천이었지만 이제 지식과 정보가 이들을 대신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들이 아무리 정보의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인터넷 이용과 각종 자료 수집을 통한 정보화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외국에서 열리는 청소년관련 국제회의나 행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외국에 주재하고 있는 재외공관과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한다.

이를 위해 우선은 각 우리나라의 청소년단체 및 관련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각국의 청소년단체들과 각종 국제기구(IGO-Interan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와 비정부 국제기구 INGO(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에 대한 정보를 수합, 종합 정리하여 디렉토리화하고 이를 청소년단체와 청소년들에게 보급하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디렉토리의 개발 보급이야 말로 오늘날 운전자의 필수장비가 된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여 많은 청소년들과 청소년단체들이 손쉽게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청소년 관련 국제회의나 행사에 참여하는 길을 제시해 줄 것이다. 그밖에도 외국의 선진사회문화를 연수하고자 하는 해외조사연수단의 방문기관에 대한 길잡이 역할도 해줌으로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과감히 해외조사연수단 사업에 지원하여 프로그램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 4. 사후관리와 평가를 통한 발전방안 마련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해본 담당자라면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적인 사후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효과적인 사후관리와 평가 프로그램의 부재는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투자해서 실시한 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새로운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방

향을 정립해가는 현재 시점에서 전 참가자들의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마련도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이러한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성향을 정확히 분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의 성향은 자신들의 재능과 개성을 살려 무엇인가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또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단순히 프로그램의 일부로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소극적이며 동기부여가 되질 않는다.

그동안 매년 연말에 여성가족부 주최 모든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후 워크숍 참가나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청소년을 위한 민박활동, 국제교류 참가자 사전교육 시 전 참가자로서의 경험나누기 활동 등은 이러한 이유에서 일회성으로 그치기 일쑤이며 효과적인 사후관리의 대안이 되질 못한다. 이제 무엇인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참가자들은 행사 참가 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가다를 포함한 모든 국제교류활동은 기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정기한(현3년)내 연속참가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후관리 사업개발이 필요하며 대한민국 청소년세계를 가다와 국제회의·행사 파견에 참가한 학술적인 연구활동에 관심이 있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로는 국제적인 이슈나 주제를 가지고 외국의 청소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세미나 개최나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국제청소년광장 등)에 참석을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렇게 하여 참가자들에게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한다면 많은 국가예산 지원을 통해 육성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이들 청소년들은 장차 국제화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것이다. 이제 참가자들의 사후관리 예산을 과감히 편성하고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 끝마치며

우리나라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이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는 88 서울올림픽 이후로 불과 20여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88 서울올림픽을 통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던 당시의 국제화의 거센 파고를 실감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고와 시각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범국가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각 청소년단체와 관련기관들은 부족하지만 외국의 사례와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우리현실에 맞게 접목하여 나름대로 다양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였고 정부 또한 의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자체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이러한 민간과 정부의 청소년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열정과 노력의 결과로 많은 청소년들이 외국을 경험하며 그들의 꿈과 글로벌 역량을 키워 동북아의 작은 나라인 우리나라가 오늘날 무한경쟁의 국제화 속에서도 당당히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점차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듯하다. 이제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내의 환경변화와 청소년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지난해부터 삼성의 이진희 회장은 반도체와 휴대폰을 대신하여 앞으로 4~5년 후의 삼성이 세계적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모든 임직원을 강하게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화란 단어가 이미 구식이 되어버린 오늘날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된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가다 : 해외조사연수단 파견사업과 국제회의·행사 참가단 파견사업도 이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정확한 자료와 조사를 통해 현재의 변화와 미래의 트렌드를 정확히 읽어내고 도전적으로 두 사업의 개선해 나가야 한다.

## 토 론

박 재 우 (코피온 국제협력2팀 팀장)

### □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청소년 해외테마체험단을 중심으로)

김용대 부장

- ▶ 2008년 이후 3년 이상의 사업수행 경험을 통해 유연한 사업 진행과 맞춤형 교육과 같은 체계적인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음.
- ▶ 다양한 신소재 테마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이슈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
- ▶ 사후활동 대안으로서 worldshot 활동은 고무적.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기참가자와 참가자간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일회성에 끝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
- ▶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의 참가자 모집의 경우 다양한 기준에서 참가자를 선발, 지역안배를 하여 선발하고 있지만, 지역간 접근성 문제로 인해 사전교육 및 팀 모임이 다소 미진한 경우도 발생. 이에 대해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
- ▶ 1년에 8개팀 175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참여. 대다수의 기관에서 가지는 문제점 인력. 담당자의 업무 수행의 적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가 이루어져야 해외테마 체험단의 프로그램 관리 및 질 향상이 가능.

## □ 현행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문제점과 발전방향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가다)

지세선 부장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제고되고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그에 맞는 글로벌 시민의식과 리더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 판단.

▶전문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 워크숍 이후에도 필요할 때마다 유용한 정보와 전문가로부터 모니터링을 제공받을 수 있어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 하지만 파견규모에 비해 전문 자문단 수가 작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생김.

▶해외라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정보 수집 및 접근성에서 한계가 있음. 그렇기 때문에 국제회의나 행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제기구에 대한 디렉토리 제작 보급은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

▶1년에 75개팀 3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인솔자 없이(인솔자 언급이 없음) 현지에서 단원들의 안전 상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음. 또한 담당자가 관리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 발전방향

▶무엇보다 해외교류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참가자와 인솔자, 특히 사업 담당자가 아닌 자원 인솔자를 선발할 경우 인솔자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리게 됨. 양질의 인솔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교육프로그램 보급. 나아가 정책적으로 교류분야에 있어 전문가 양성이 필요.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합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커뮤니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유지가 필요하며 활동 종료 후에도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 행사 등 국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숙제.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 모두들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음. 기존의 홍보 방식과 더불어

어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해외교류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홍보 책자를 만들어 중/고/대학교에 보내어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

▶ 프로그램의 성과 보다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관학민이 연계한 전문위원회 구성하여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들을 논의한다면 보다 대한민국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매김.

# 국내 개최 국제행사(아시아청소년캠프, 국제청소년광장)의 성과와 개선방안

안 원 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협력사업부 사업활동팀장)

## 들어가며

국제협회연합(UIA: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09년 사이 한국의 국내 국제회의 개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거의 4배 가량 성장을 하였다. 순위로 따져 본다면 1999년 당시 97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에서는 25위, 아시아에서는 5위를 기록하였고 2009년에는 347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순위는 11위로 상승하였으며 아시아에서는 3위를 기록하였다. 국제협회연합의 산정기준이 국제기구의 주최 혹은 후원하는 회의로 한정하고 있고 국내 단체나 국제기구의 국내지부가 주최할 경우 전체 참가자수가 300명 이상, 참가자 중 외국인이 40%이상, 참가국수 5개국 이상, 회의기간이 3일 이상이라는 조건하에 통계화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더 많은 수의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개최된 국제회의 개최건수는 11,503건에 달해 한국의 개최건수는 약 3%밖에 못미치지만 한국의 국제회의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특히 최근 2006년부터 3년간의 개최실적은 연평균 세계 국제회의 증감률이 약 6%임에 반해 한국은 15%의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의 수행과 더불어 국내에 활동이 한정되어 있는 내국인들에게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내 개최 청소년 국제행사는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여행비용과 안전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국제이슈에 대한 의제 설정자 역할, 글로벌 리더십 함양, 글로벌

별 스탠더드 이해, 국력의 제고, 한류의 확산, 주최국 주도의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 등의 기회와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 1. 국내개최 국제행사 (국제청소년광장, 아시아청소년캠프)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 ■ 국제청소년광장

국제청소년광장(International Youth Forum)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국제적으로 격상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다하고 세계평화의 주역인 청소년들 간에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평화캠프’란 명칭으로 1990년에 제1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후 매년 국제기구와 공동 협력하여 세계평화와 발전을 위한 국제적 사안을 주제로 세계 각국의 청소년을 초청하여 2010년까지 21회째 행사를 개최하였다.

국제청소년광장은 전 세계 청소년들 간의 협력과 상호이해 강화 및 증진을 도모하고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에게 전 세계적 문제들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외국 청년들에게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고 세계속에 한국의 국력과 위상을 제고하며 우리나라를 국제 청년활동의 중심지로 정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 ■ 아시아청소년캠프

아시아청소년캠프(Youth Camp for Asia's Future)는 아시아의 미래를 준비하고 각국의 공동협력 방안 모색, 아시아 청소년간 화합 인식 확산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상호이해 증진 등을 위해 2006년에 18개국 248명의 청소년을 초청하여 ‘아시아 평화와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주제로 제1회 행사를 개최한 후 매년 실시하여 2010년까지 5회째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의 주요 목적은 첫째 아시아 청소년들의 교류를 통해 미래의 아시아를 이끌

어갈 주역들의 공동협력과 상호이해를 강화시키고, 둘째 아시아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공을 통해 아시아 속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아시아 청소년 활동의 중심지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셋째로 아시아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과 아시아의 중요성 제고 및 한국의 위상과 자부심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넷째로 아시아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선도할 차세대 리더 청소년들 간의 문화교류를 통한 한국과 아시아의 미래 지향적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 2. 프로그램 경과 및 현황

### ■ 국제청소년광장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세계의 관심이 식지 않았던 1990년 당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서울YMCA가 공동으로 ‘국제 평화캠프’ 제1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듬해 1991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국제경상학생협회와 공동으로 “세계를 향한 청소년의 새로운 도약”이란 주제 아래 ‘국제청소년광장’으로 행사명을 변경하여 제2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후 1992년 “청소년과 변화”, 1993년 “미래를 만드는 청소년”을 주제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제3회 및 제4회 행사를 개최하고, 1994년 “청소년과 가정”, 1995년 “21세기를 향한 청소년과 청소년단체의 세계화”, 1996년 “청소년과 인구”를 주제로 1994년부터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단독으로 행사를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1997년 “청소년과 참여”, 1998년 “문화발전과 청소년의 역할”, 1999년 “새천년, 경제발전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 2000년 “지식정보사회와 청소년”을 주제로 제8회, 제9회, 제10회, 제11회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1년에는 UN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의 해”를 기념하여 다각화된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주체로서의 청소년 NGO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의미에서 “자원봉사와 청소년”을 주제로 제12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한·일공동월드컵을 개최해 온 지구촌이 떠들썩했던 2002년도에는 “넓고 깊은 휴머니티를 지닌 세계 청소년상”을 주제로 한국스카우트연맹과 공동으로 제13회 행사를 개최하고, 2003년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진로”, 2004년 “지속가능한 지구환경개발과 청소년의 실천방안”을 주제로 제14회, 제15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는 부산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하여 태평양시대의 우리나라 위상강화를 위해 “사이버 세상속의 청소년”이라는 주제 아래 행사의 규모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APEC 공식 청소년 국제행사로 ‘APEC Youth Plaza’를 제16회 행사로 개최하는 등 매년 국제행사의 개최와도 발맞추어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2006년 “국경 없는 사회”를 주제로 국가청소년위원회, 아시아유럽재단(ASEF: Asia Europe Foundation)과 공동으로 제17회 행사를 개최하고, 2007년에는 “다문화 사회와 청소년”을 주제로 국가청소년위원회, 유럽청소년회의(EYF: European Youth Forum)와 공동으로 제18회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008년엔 “유럽과 아시아 이문화간 대화를 통한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과 청소년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유럽청소년회의(EYF), 아시아유럽재단(ASEF)과 함께 제19회 행사를 개최하는 등 국제기구의 활발한 협력과 후원을 이끌어 냈다.

2009년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을 주제로 보건복지가족부 주최, 유럽청소년회의(EYF), 아시아유럽재단(ASEF)의 후원으로 제20회 행사를 개최하고, 2010년에는 “카이로 아젠다 성취를 위한 청소년의 역할”을 주제로 청소년 업무를 이관받은 여성가족부 주최, 아태지역인구개발협의체(APA: Asia-Pacific Alliance)의 후원으로 제21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국제청소년광장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이에 맞추어 사업을 기획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주제 설정에 있어서 주최국으로서 능동적인 아젠더 설정의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참가국들의 국내외 현황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소주제를 설정하고 세분화하여 각국의 사례와 함께 적극적인 토론을 이끌 수 있도록 기획한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친밀감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류 프로그램도 함께 구성한다.

국제청소년광장의 한국인 참가자는 만 18~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영어구사가 자유롭고 행사주제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가진자를 우대하여 40명 가량(2010년 기준)을 선발한다. 외국인 참가자의 경우, 국제기구와 해외 파트너, 국내 청소년단체의 해외지부 등에 의뢰하여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40여 개국에서 총 80명 가량을 선발한다. 자원봉사로 참가하는 청소년들을 합하면 총 130여 명이 참가하는 다국적 국제포럼이 구성되며, 외국 참가자의 경우 동북아 3개국과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아시아 지역의 참가자는 미화 350불, 그 외 지역은 550불의 항공료를 지원(ASEF 등 국제기구 기준)하며 모든 참가자의 체제비는 일체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아시아의 국제행사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유럽의 참가자 확보는 유럽청소년회의(EYF)등 유럽의 청소년 국제기구로부터 협조를 받고, 거리와 비용, 비자 문제 등으로 참가를 꺼리는 아프리카 지역의 참가자들은 국내의 청소년단체 해외지부의 협력을 받아 모집한다(아프리카, 유럽 참가자 28%, 2010년 기준). 또한 이들 국가의 사례 발표 기회와 토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제와 관련하여 각국의 상황을 알리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하며 지역 간의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 2010년 기준 주요 프로그램 소개

##### ○ 기조강연 및 Q와A

-강연자: Sumie Ishi, Chairperson of APA, JOICFP

##### ○ 분과별 세미나

-가족의 존엄성 보호, 세계 공중보건 증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인구의 주제로 분과별 세미나를 개최하여 주제별 전 세계 현황 파악 및 협력방안 논의

-관련 주제 분야의 APA 위원회 실무진 강연

##### ○ 국제기구 연구·조사 활동 보고 및 Q와A

-협력기관인 유럽청소년회의(European Youth Forum)와 아시아유럽재단(Asia-Europe Foundation)의 주제관련 연구·조사 활동 보고 및 Q와A

##### ○ 국가별 사례발표

-주제관련 각국의 현황 및 연구·조사 사례를 발표(PPT)하고 소년들 입장에서의

## 대안모색

### ○ 그룹토론

-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국의 관련정책 등에 관하여 토의 진행
- 토의결과를 정리·종합하여 발표(참가자간 그룹별 토의내용 공유)
- 청소년선언문 작성을 위한 기본자료 활용

### ○ 전체 총회

- 현장 조사활동 및 그룹토론의 결과를 모든 참가자들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

### ○ 청소년선언문 채택

- 그룹토론 및 전체총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서울선언문 작성을 위한 기초위원회를 구성
- UN, APA,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 등의 국제사회에 전달

### ○ 모의법정

- 카이로 아젠다 성취에 반하는 가상의 피고를 설정하여 모의재판 과정을 통해 포럼 주제에 대한 생각을 정립

### ○ 오리엔테이션 및 참가자 친교의 시간

- 행사 일정 및 참가자들의 역할 소개

### ○ 우정의 밤

-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친교를 도모할 수 있는 시간 마련

### ○ 한국사회문화연수

- 한국의 전통문화를(다도, 한복예절 등) 직접 체험하여 외국 참가자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증진(괴산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활용)
- 경복궁, 한강, N서울타워 등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을 방문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 아시아청소년캠프

아시아청소년캠프는 사업의 효과적인 비전 성취를 위해 행사의 목표와 참가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참가자들의 능동적 참여와 균형 있는 상호 교류를 유도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 및 호감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 또한 기획단계에서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적 수준 제고와 흥미 유발을 위해 참가국들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체험 및 교류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언

론사, 재외 및 주한공관, 산업체 등의 협조와 협찬 등을 적극 유치한다.

아시아청소년캠프의 한국인 참가자는 전국의 만18~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100명 가량이 공모로 선정되며 약 200명의 아시아 참가자들은 외교통상부의 협조를 얻어 재외 한국대사관에서 한국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한국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으로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또한 약 15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하여 행사기간 동안 참가자 관리, 프로그램 진행 등을 도와서 행사를 함께 진행한다. 외국 참가자의 경우,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중국, 일본, 싱가포르 참가자는 항공료 자비부담) 항공료, 체류비 등을 주최측에서 전액 부담하여 참가자들의 경비 부담은 전혀 없다.

아시아청소년캠프는 국력의 신장, 한류의 확산 등과 함께 아시아에서 한국 및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사업기획과 실행을 통해 변화하는 국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2010년부터는 일정의 전반부에 “한류대사 만들기 프로젝트”로서 “한국어 연수, 한국음식 연수, 한국뷰티문화 연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배우는 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과정을 마친 참가자에게는 연수별 수료식을 갖고 한류 홍보대사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특히, 한국어 연수에는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한 인도네시아의 짜아짜아족 청소년 9명이 참가하여 양국의 언어교류와 한글의 확산에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전례없는 언론의 큰 관심을 끌어내고 앞다투어 방송과 지면에서 보도를 쏟아내게 한 것은 사업 추진의 시의적 절성을 방증한다.

한편, 한국문화의 일방적인 소개가 아닌 참가국과의 상호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하여 참가자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아시아는 하나’라는 공동체적인 접근을 통하여 행사에 대한 참가의지를 높였다. 그러한 결과로 2006년도에 18개국 248명으로 시작하여, 2007년 ‘청소년의 도전과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23개국 250명, 2008년 ‘창조적 아시아와 함께 하는 아시아 청소년’을 주제로 22개국 249명, 2009년 ‘아시아의 미래와 우리들의 열정’을 주제로 24개국 320명, 2010년 ‘청소년! 신아시아를 꿈꾸다’를 주제로 23개국 300명이 참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 2010년 기준 주요 프로그램 소개

○ 한류대사 만들기 프로젝트 (7.29~8.2(5일간), 한국참가자 제외)

1. 한국어교육 연수(국가별 3명 초청)

- 한국(어)학 등 한국 관련학과 재학생 및 한국 관련업무 종사 직업 청(소)년 초청
- 국내 외국어학당(이화여대)과 제휴하여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뉘 전문가에 의한 수준별 학습

2. 한국음식 연수(국가별 3명 초청)

- 음식업 종사 청(소)년 또는 관심이 있는 청(소)년 초청(한식관련자 우대)
- 전문 요리교실(숙명여자대학교 한국음식연구원 등)과 제휴 운영

3. 한국뷰티문화 연수(국가별 3명 초청)

- 뷰티문화에 관심 있는 청(소)년 초청

※ 단, 헤어(hair)미용의 경우 1년 이상 실무 경험자

- 뷰티산업연수 전문기관 ‘나레스트(Narest)’와 제휴하여 네일아트, 스킨케어, 헤어미용 중 수요에 따라 연수반을 개설하여 운영

○ 롤 플레이

- 신아시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참가 청소년들의 이해를 증진
- 자국의 입장과 이익만이 아닌 아시아인으로서의 공동 협력체제 구축방안을 학습

○ 팀워크 트레이닝 I (도미노 게임)

- 상호신뢰와 협동정신을 함양하고 아시아인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

○ 팀워크 트레이닝 II(스포츠 활동)

- 참가자들의 종교, 문화의 장벽을 허물고 스포츠를 통한 아시아 청소년으로서의 우정과 우애를 다짐

○ 도전! 아시아 청소년 골든 벨

- 아시아 각국의 문화, 정치, 경제 등의 정보를 퀴즈 형식으로 풀어가며 아시아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마련

○ 아시아의 밤

- 참가자의 열정을 발산하고 친교를 도모할 수 있는 시간

○ 아시아 전통문화 페스티벌

- 참가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 아시아 음식축제
  - 참가국의 음식을 함께 조리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하여 참가자들간의 우호증진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증진
- 한국문화체험 선택활동(참가자 선택활동)
  - 다양한 한국의 문화체험을 통해 아시아내의 한류확산에 기여
  - 선불교(템플스테이), 태권도, 사물놀이, 한국음식 만들기 등
- 한국디지털문화학습(디지털파빌리온, 삼성전자 홍보관(딜라이트) 등)
  - IT, 정보화의 미래사회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한국의 IT관련 선진 기술력과 창의력을 아시아 각국에 홍보
- 한국사회문화연수
  - 정동극장 공연관람, 광화문광장, 청계천, N서울 타워, 한강유람선 승선, 에버랜드 체험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 3. 기타 추진성과

#### ■ 국제청소년광장

국제청소년광장은 해마다 청소년 차원의 전세계적 문제해결과 의제설정을 선도하였고 APEC정상회의, UN 세계 자원봉사의 해, UN MDGs 등 세계의 주요 이슈와 궐직한 국제행사와 발맞추어 사업을 추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즉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제행사들의 틈새에 청소년 포럼을 접목·삽입하여 미래의 주역인 한국 청소년들이 자국에 머물면서 글로벌 역량과 국제 감각이 함양되도록 했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사후 설문조사 결과(2010년 기준), 행사주제와 관련된 전문용어 및 세계 이슈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평균 2배 이상 상승하고, 행사 후 SNS를 통한 전세계 참가자간의 활발한 네트워킹이 지속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국제청소년광장은 21회째 행사를 개최하는 동안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후원 등의 형태로 활발한 국제협력을 이끌어 내어 국내 개최 국제행사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Asian Youth Council), 유럽청소년회의(European

Youth Forum),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World Assembly of Youth) 등은 외국 참가자 모집을 위해 협력하였고, 아시아유럽재단(Asia-Europe Foundation), 아태지역 인구개발협의체(Asia Pacific Alliance), 아세안대학교협의회(ASEAN University Network) 등은 후원금 지원, 기조강연 및 행사진행 자문 등을 통해 협력하였다.

## ■ 아시아청소년캠프

아시아청소년캠프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류의 확산과 국가 위상의 제고 등 한국 청소년의 국제 리더십과 자부심을 함양하고 고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아의 각국에서 온 외국참가자들은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 및 IT 첨단산업시설 견학, 팀워크 활동 등의 프로그램에서 한국 참가자들의 설명과 안내를 통해 한국에 대하여 이해하고 배운다. 한국 참가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자국에 대한 자부심, 외국어 능력, 국제감각 등 글로벌 역량이 함양되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과 상대적으로 접근성 및 사회·문화적 동질감이 높은 아시아 청소년들과의 집중적 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아시아청소년캠프는 참가자들의 높은 참여 의식과 만족뿐 아니라 폭발적인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2010년 사업의 경우, 짜아찌아족의 참가로 거의 모든 국내 언론사의 지면과 방송에 본 프로그램이 소개되었고 기획보도화 되는 성과도 있었다. 이를 통해 아시아청소년캠프는 청소년 사업과 정책이 사회적 관심의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 4. 당면문제와 개선사항

### ■ 청소년 업무 소관부서 및 담당공무원 변경으로 일관성과 효율성 저하

국내의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는 청소년 국제교류 업무가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실, 교육인적자원부, 체육청소년부, 문화관광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로 청소년업무 소관부서가 변경되는 동안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물론 시행을 담당하는 주관단체가 행사 주최의 경험과 자료를 축적하고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며 실무적 미비점은 개선해 왔지만 새로운 주최기관의 성격과 입장차 등에 따른 정책적 기조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 유사 국제행사의 중복으로 고유성과 효과성 감소

‘글로벌역량 강화’가 국가와 사회 전역에 화두가 되면서 기업, 각종 사회단체 및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국제교류 및 국제행사가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물론 국가와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굵직한 국제행사를 유치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비슷한 성격을 띄는 각종 국제행사가 넘친다면 경제적인 효과나 창의성 없이 중복된 사업에 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청소년광장과 아시아청소년캠프는 역사와 창의성 면에서 정통성이 있는 사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주변의 넘쳐나는 유사한 국제행사들로 인해 고유성이 약화되고 사업 효과의 설득력이 감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 ■ 행사 브랜드 가치

국제청소년광장은 21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아시아청소년캠프도 6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행사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는 높지 못하다. 한국 참가자 모집의 경우 정부 사업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갖지만, 외국 참가자의 공개 모집은 녹록치 못하다. 해외의 경우 국제청소년광장은 협력기관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참가자의 공모와 추천을 받고 있지만 홈페이지와 DM을 통한 홍보로 그치고 있으며, 아시아청소년캠프의 경우 아시아 현지 한국대사관이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나 협력기관의 비공개적 추천을 통한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어 행사가 널리 홍보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내외 홍보의 부족과, 기존의 참가자 모집방식 및 전산화되지 않은 지원자 분류·선발·심사 과정은 결과적으로 자질있는 참가자를 확보하는 데도 한계를 보여준다. 지원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인 지원자의 자질을 선별할 수 있는 역량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진다. 아시아청소년캠프의 경우 외국참가자 모집 의뢰를 받은 일부 현지 한국대사관에서는 전문시스템의 부재와 시간부족 등을 이유로 자격을 갖춘 참가자 선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행사의 수준이 아직 국제적 표준을 상회하지 못하는 것도 낮은 브랜드 가치에 기여하고 있다. 타종교에 대한 배려나 타문화권 생활습관에 대한 이해, 국제 매

너 등의 부족과 대다수 한국인의 낮은 영어 구사능력이 주요 원인이다. 외국인 참가자들은 입국 전까지도 영어권이 아닌 한국에서의 국제행사에 대해 반신반의하며 참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국은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나라로서 과거에는 영어회화가 겨우 가능한 수준의 자원봉사자와 참가자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한국인들의 영어실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긴 했지만 오히려 국제적 지명도가 높거나 기업이 주관하는 국제행사나 해외인턴십 등에 고급인력이 대거 몰려가는 현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국제행사를 국제적 수준에서 영어로 운영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인력과 참가자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 ■ 성과 측정방법과 사후관리 부족

현재 정부(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국제행사의 주요 목적은 한국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함양과 국제 시민 양성이다. 국제청소년광장과 아시아청소년캠프를 참가한 청소년들이 국제사회 시민으로서의 역량과 글로벌 리더십의 함양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행사 전후의 관련 설문조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신력 있는 성과측정 방법을 통한 정량평가는 부재하여 행사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자료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누적·증가해 가는 기참가자들의 네트워킹 및 사후관리도 부족하다. 최근 들어 ‘Social Network Service’의 발달과 활용의 보편화로 최근 행사 참가자의 네트워킹과 사후관리가 과거보다는 용이해 졌지만 많은 수의 참가자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소요되는 업무이다. 주관(시행)기관 내의 인사이동이나 사업시행 우선순위 등이 얽히다 보면 소홀해질 수 있는 업무여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체계화되지 않으면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 5. 마치며

국제행사를 통한 인적교류 사업은 단기가 아닌 장기적 성과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단기적으로 수치화해서 보여줄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류 사업의 성과추적과 결과물의 도출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과 사업추진으로 성과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없는 사업이지만 장기적인 안목과 정책을 가지고 투자를 늘려나가야 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정부와 시행기관, 관련단체 등이 함께 뜻을 모으고 비전을 공유할 때 가장 큰 실효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각 주체들마다 청소년사업 전문가로서 목적과 역할에 충실한 전문성의 제고와 사명의식, 역량 증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 1> 2010년 기준 참가자 선발 방법

### ■ 아시아청소년캠프

#### ● 한국 참가자: 73명

- 만 18~26세(1991년~1983년 출생)의 대학(원)생 및 직업청소년
- 영어구사가 가능한 자로 국제관계에 관심이 많은 자

#### ● 외국 참가자: 207명(23개국 각 9명씩)

- 각 국가별 9명 현지대사관 및 청협 해외협력기관 추천
  - 한류음식: (한국)음식업 종사자 또는 관심이 있는 청(소)년 3명
  - 뷰티문화: 한국의 뷰티문화에 관심 있는 청(소)년 3명
    - ※ 네일아트, 스킨케어, 헤어미용 분야별로 각 1명씩 선발
    - ※ 단, 헤어(hair)미용의 경우 1년 이상 실무 경험자
  - 한국어교육: 한국(어)학 등 한국 관련학과 재학생 및 한국 관련업무 종사 직업 청(소)년 3명

※ 인도네시아 짜아찌아족 9명은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에 전원 참석

- 만 18~27세의 참가 대상국 대학(원)생 이상 및 직업청(소)년 또는 참가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추천하는 자
- 가급적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영어 구사가 가능한 자로 국제관계 또는 한국에 관심이 있는 자

#### ● 모집과정

- 기 간
  - 한국 참가자: 2010. 5. 26 ~ 6. 11
  - 외국 참가자: 2010. 5월 말 ~ 6월 말
- ※ 한국대사관 또는 추천기관에서 일괄 접수
- 제출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소정양식), 참가동기서(지정양식)

#### ● 한국 참가자 선발과정

- 1차 서류심사(110명(1.5배수) 선발)
- 2차 면접심사(73명 선발, 6. 26(토), 국제청소년센터)

● 외국 참가자 선발과정

- 선발방법: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선발기준에 의거한 선발(19개국)
- 항공료 미지원국은 청협 해외협력기관을 통한 모집·선발(3개국)
- 인도네시아 짜아찌아족은 훈민정음학회를 통한 모집·선발(1개국)

■ 국제청소년광장

● 한국참가자

- 만 18~26세(1991년~1983년 출생)의 대학(원)생 및 직업청소년
- 영어구사가 가능한 자로 국제관계에 관심이 많은 자
- 주제관련 전공자 및 관련업무 유경험자 우대

● 외국참가자

- 만 18~30세의 국내·외 거주중인 대학생 이상 및 직업청(소)년
  - ※ 세계 경제악화로 외국인 참가자 모집이 어려운 관계로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일부 유치할 예정임
- 영어구사가 가능한 자로 국제관계에 관심이 많은 자
- 주제관련 전공자 및 관련업무 유경험자 우대

● 모집과정

- 기 간
  - 한국참가자: 2010. 4 ~ 6월
  - 외국참가자: 2010. 4 ~ 7월
- 제출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소정양식), 주제 관련 영문에세이(소정양식)

● 한국참가자 선발과정

- 1차 서류심사(한국참가자 60명 선발)
- 2차 면접심사(한국참가자 40명 선발)

● 외국참가자 선발과정

- 선발방법: 서류심사 후 개별 이메일 및 추천단체에 통보
  - ※ 후원기관 자체 심사 후 추천 참가자는 추가 심사 생략

## <참고 2> 2010년 기준 프로그램 평가 및 사후관리

### ■ 아시아청소년캠프

#### ● 프로그램 평가

- 참가자, 운영요원, 청협과 여성가족부 간의 평가회의 개최
  -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평가를 통한 심층적인 프로그램 평가
- 캠프 참가 전·후의 설문평가 분석을 통해 참가자들의 의식개선 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방향에 적극반영

#### ● 사후관리

- 연말 국제교류 사후 워크샵을 통한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하여 두드림 1기와 연계하여 두드림 2기로 지속적인 활동 유지
- 지속적인 국제교류 서포터즈 역할을 수행하며 타 국제교류 참가들과의 유기적인 조직망을 구축하여 역할범위 확대
- 차기년도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필요한 사전지식 및 노하우를 전수하는 자문단 역할을 수행하고, 프로그램 일부에 참가하게 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

### ■ 국제청소년광장

#### ● 프로그램 평가

- 행사종료 후 참가자, 운영요원, 청협과 여성가족부 간의 평가회의 개최
-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대안 마련(차기행사 반영)

#### ● 사후 관리

- 국제교류 사후 워크샵을 통한 오프라인 모임 형성하고 국내외 네트워킹 및 연계활동 추진
  - 정부주최 국제청소년행사 국내개최 참가자들의 자치 모임인 ‘두드림’(Do Dream)을 체계화하여 관리
- 청소년관련 국제행사의 자원봉사자로 적극활용하고 교류활동 공유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유도
- 정부주최 청소년국제교류 행사의 각급학교 및 홍보를 위한 서포터즈 활동 유도

# 토 론

송진호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Korea) 공동운영위원장)

## 1. 국가단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으로서 목적과 철학의 애매모호성

### 1) 사례 1: 청소년해외봉사단, 국내개최 국제청소년행사

- 청소년의 직업과 글로벌역량, 세계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사회참여현장을 해외로 확대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현지 지역사회 변화와 자생력 제고
- 다양한 기관의 참여유도로 청소년의 해외봉사활동 기회 확대
- 전문적 운영능력을 보유한 공공기관의 사업운영을 통해 운영체계 일원화
-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청소년해외봉사활동 종합지원서비스 구축기반 마련
  
- 여행비용과 안전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국제이슈에 대한 의제 설정자 역할, 글로벌 리더십 함양, 글로벌 스탠더드 이해, 국격의 제고, 한류의 확산, 주최국 주도의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 등의 기회와 계기를 마련
  
- 국제청소년광장은 전 세계 청소년들 간의 협력과 상호이해 강화 및 증진을 도모하고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에게 전 세계적 문제들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외국 청년들에게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고 세계속에 한국의 국격과 위상을 제고하며 우리나라를 국제 청년활동의 중심지로 정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 아시아 청소년 캠프 주요 목적은 첫째 아시아 청소년들의 교류를 통해 미래의 아시아를 이끌어갈 주역들의 공동협력과 상호이해를 강화시키고, 둘째 아시아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공을 통해 아시아 속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아시아 청소년 활동의 중심지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셋째로 아시아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과 아시아의 중요성 제고 및 한국의 위상과 자부심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넷째로 아시아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선도할 차세대 리더 청소년들간의 문화교류를 통한 한국과 아시아의 미래지향적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 2) 평가

- ‘글로벌 리더쉽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그릇된 이데올로기 극복 과제:

책임있는 지구시민(Global Citizen)으로서의 자랑스런 Global Korean 육성

- 단순표피적인 우의/친선 증진의 한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문제, 동북공정 이슈와 만나면 차갑게 식어버리는 낮은 수준의 한-중-일 우의 친선 증진사업 관행에 대한 반성이 필요 (폐쇄적 민족주의, 자국중심주의, 배타주의, 문화 절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동북아 평화 레짐과 문화공동체에 대한 자기성찰 필요)

- 국가 중심적 사고 극복과제: 청소년 국제교류의 중심은 지역사회(local community)가 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세계가 보이고, 지역이 세계를 구하며, 마을이 학교다! 라는 지구지방화(GLocalization) 철학의 구체화 과제

- 프로그램 공간의 재구성: ‘지구촌이 모두 교육 공간이다.’ ‘골목에서 배운다.’ ‘마을이 교실이다.’ ‘마을에서 세계를 만난다.’ ‘마을이 세계를 살린다.’는 모토처럼 지역사회 구석구석이 프로그램/교육 현장이 되며, 유명한 유적지나 관광지를 구경하는 관광객이 아니라 마을의 일상 속으로 투입되어 생활인으로서의 지

구촌을 몸으로 배우게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단순 행정적 의미의 '지역(local)'이 아닌 유기적 관계로서의 '지역사회 공동체(community)'를 재발견하는 프로그램

### 3)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교육 가치와 철학으로서 '글로벌 코리언 청소년 상' 제언

- 자랑스런 세계시민(Global Citizen)으로서의 글로벌 코리언 청소년의 자존적 정체성 재해석 및 글로벌 다문화사회의 책임있는 세계시민으로 가능성과 미래비전 제시
- 다문화사회, 문화 간 이해와 소통, 문화다양성 이해, 소수자에 대한 배려, 다언어 소통, 글로벌 이슈와 친해지기 등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 지혜, 정보를 통한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와 덕목을 발견하도록 도우며 이런 가치들을 소통하고 네트워크 구축하기
- '다르지만 같아요.' '차이'가 '차별'이 아니고, '다름'이 '틀림'이 아닌 세상 꿈꾸기: 다양성(Diversity)에 대한 이해와 수용, 친밀성 증진 교육-
- 베이징에 나비가 날면, 맨하탄에 비가 온다.: 상호의존적인 지구공동체 (Global Inter- dependency) 이해
- 지금이 작은 자의 이웃되기: 참여, 자원봉사에의 실천적 참여,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참여 강화
- 소중한 나, 소중한 너: 소통과 네트워크 훈련
- 살아있는 문화, 움직이는 문화: 글로벌 문화다양성 이해 상호학습
- 평화, 멀지만 가야할 길: 동북아 평화이해 및 평화감수성훈련
- 작은 것이 아름답다. 단순한 삶, 모심과 살림: 생태 감수성훈련과 지속가능성교육
- 우리 안에 공존하는 지구촌 만나기: 다문화사회 이해 및 글로벌 다문화 사회 시민육성

## 2. 성과측정 및 평가지표개발의 필요성

1) 기존의 사업만족도 조사(한-중 특별교류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숙박. 음식. 교통. 자원봉사자태도. 통역. 진행방식. 문화체험. 좌담토론. 한국역사문화이해도. 한국전체이해도 등에 대한 참가자 만족도 설문 수준이다. 단순한 정량적 사업진행평가

(process)를 넘어서는 모든 참여주체(청소년-사업수행기관/단체-정부-현지파트너 등)들이 참여하는 정성적 평가 및 평가지표개발이 필요하다.

2) 사업 평가의 목적은 평가 결과를 후속사업에 반영하고(lessons learned) 나아가 각 사업 주체들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증진하는 데 반영하며,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의 계량적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개발, 이를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과 공유하며 전략적 조언과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기여하여야 한다.

### 3) 사업평가기준 개발

- 효과성평가(effectiveness):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이 전체 목표에 부합하게 진행되어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여부 (지구시민의식 증대. 청소년 리더쉽 증대. 지속가능한 국별 파트너쉽 모델 개발 및 네트워크 형성. 자국 및 파트너국가 사업수행기관/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참여도 등)
- 영향력평가(impact):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으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및 의도한 혹은 의도하지 않은 영향의 전체적 결과 (참가 청소년의 삶과 가치관의 변화. 진로와 후속활동. 각국별 긍정적 영향. 지구촌에 대한 인식 변화 등)
- 효율성평가(efficiency):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이 다른 사업들에 비해 얼마나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가 여부. 사업 투입(inputs) 대비 결과(output)와 성과(outcome)의 도출 여부 (사업수행체계. 의사소통. 활동 프로그램. 예산관리 등)
- 사업과정평가(process): 사업과정을 프로그램별로 변화, 발전에 주목하여 분석
- 기타 평가기준: 목표달성도. 타당성. 지속가능성 등

## 3. 체계적인 사전교육 및 공통 커리큘럼으로서 지구시민교육 강화과제

- 일회성 이벤트용 사전교육을 넘어서는 일상적인 교육인프라로서 ‘지구시민교육’

강화

- ‘지구시민교육’ 과정 수료자에게 프로그램 참여 우선권 부여 인센티브제도 고려
- ‘지구시민교육’ 공통 커리큘럼, 가이드북, 교육 매뉴얼 및 툴킷 개발의 필요성
- 공통 교육 외에 프로그램별 특별 커리큘럼은 파견 전 별도 실시 방안
- 기참가자(귀국 청소년)을 멘토로서 참여하는 방안은 매우 고무적인 방안으로 판단

#### 4. 교류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한 코멘트

##### 1) 문화다양성 관점에서의 프로그램 재검토 및 문화다양성교육 강화

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교육

② 정체성/다양성/다원주의의 관계에 대한 교육

생물다양성이 자연 생태계에 필요한 것처럼 문화다양성이 교류, 혁신, 창조성의 근원

문화다양성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과제가 문화 다원주의이다

단지 경제성장의 관점이 아닌 지적, 감성적, 윤리적, 정신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수단(개인의 사회권과 문화권 차원에서), 즉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문화 다양성이 필요

③ 보편적 윤리로서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인권교육

문화다양성 보호는 인간존엄성 존중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는 윤리적 책임이라는 인권적 관점에서부터 자신이 선택한 언어와 문화적 생활과 실천에 관한 문화권과 사회권에 대한 이해교육과 함께 언어와 표상에 의한 사상의 자유로운 교류와 표현의 자유, 매체다원주의, 다언어주의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④ 창의성 개발을 위한 촉진자로서 문화다양성 교육

민족 정체성이나 한류와 자긍심의 표현이라는 관점을 넘어서서 창의성의 표현, 과거 역사의 현재적 시점에서 재조명 근거로서의 문화유산, 다른 문화와의 접촉 및 미래세대와 소통 기재로서 그 기능을 확산하는 창의성의 원천으로서의 문화유산교육

⑤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 국제연대의 과제

⑥ 문화다양성교육의 두 가지 다른 접근방식에 대한 선이해의 필요성

- 우리 "안에서"의 문화다양성교육 -한 사회, 한 문화 안에서-: 개인이 모여 공동체 정체성을 형성시켜 나가는 접근 방식으로 인권과 소수자의 평등한 참여 등이 강조되는 교육(캐나다의 '다문화주의 법안(the multi-cultural act, 1988)' 사례)
- 다수의 국가, 사회, 문화 "사이에서" 문화다양성교육: 문화상품, 문화서비스의 균형있는 교류의 상징

2) 책임 있는 지구시민으로서의 윤리적 책무성과 행동을 교육하는 지구시민교육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강화과제

- 첫째; 더 넓은 세상에 대해 이미 깨어있는 사람
- 둘째; 다양성을 존중하고 가치있게 볼 줄 아는 사람
- 셋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
- 넷째; 정의롭지 못함/사회적 불공정을 참지 못하는 사람
- 다섯째; 다양한 수준의 지역사회활동(Community Work or Civic Engagement)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여섯째; 세상을 보다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 일곱째;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사람

3) 역사화해와 미래지향적인 평화건설을 지향하는 역사교육, 평화교육, 지구시민교육의 접목

특히 한-중, 한-일 양자간 교류 및 한-중-일 동북아 다자간 청소년 교류사업에 있어서 폐쇄적인 민족주의, 제국주의, 팽창주의 극복과제, 인간중심의 전쟁/폭력의 기억과 공통의 역사인식 문제 등 '휴화산'처럼 관리되고 있는 역사현안 문제에 대한 역사교육과 평화교육 접목 및 강화과제가 청소년 교류사업에서도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한다.

4)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법 교육 및 네트워크 교육

- Face-to-Face Communication이 가장 효과적
- 언어 습득을 넘어서는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
- Key word중심의 커뮤니케이션

- 잘 듣는 훈련; 듣기를 통한 나눔과 공감 훈련
- 다양한 대안적 커뮤니케이션 기법 (감수성 / on-line / 소셜 미디어 등)
- 향후 과제: 단순 일주일간의 이벤트를 위한 소통보다는 지구촌을 연결하는 새로운 네트워크운동으로서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소통과 네트워크 과제
- 교류 현장프로그램 및 향후 follow-up 과제 모색-

## 5. 교류 프로그램 운영/진행방식에 대한 코멘트

### 1) Pedagogy in Process; 감수성에 기반한 문화적 접근

개인과 집단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좋은 교육 방법으로 우리는 문화적인 접근,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방법을 중요시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문화적 접근은 개인과 공동체의 자발성과 적극적 참여를 견인해내는 문화적인 Pedagogy in Process이다.

### 2) 파트너십 접근법

- Integration -문화적인 접근-
- PAR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 Pedagogy in Process

### 3) 평화적 사유방식과 평화교육적 방법

- 관계 중심의 사고, 서로를 살리는 삶의 방식, 변화를 추구하는 역동성, 전체에 대한 고려
- 네 가지 차원의 관계맺기 교육
  1. 자기 자신과의 관계: 정체성, 자기수용, 자긍심 교육
  2. 타인과의 관계: 관용과 공존, 인권과 다양성교육
  3. 공동체와의 관계: 참여와 자치,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4. 전지구적 관계: 평화, 지속가능성, 지구시민교육

#### 4) 자기주도학습, 참여교육방법, 문제중심학습

서로간의 참가동기 및 문화적 언어적 차이가 큰 참가자들을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방법으로는 소기의 교육효과를 거둘 수 없는 한계 속에서, 가급적 참가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및 참여교육방법이 유효함. 교수 방법론에서도 프로그램의 도구적 기능(instrumental function)보다는 표현적 기능(expressional function)을 강조한 방법을 채택

#### 5) 협동학습

경쟁만이 유일한 생존의 길이 아니라, 협력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험 틀을 제공하는 교수방법

#### 6) 생활공동체로서의 교육경험

교육경험 자체가 배려와 관용, 공존을 경험되는 과정이어야 함. 또한 '무엇을 배웠느냐?' 보다는 '무엇을 경험/체득 하였느냐?'에 초점을 맞춘 교육방식으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는 생활공동체의 일상의 모든 과정이 교육적 세팅이 되어야 함

#### 7) 가르치는 사람-배우는 사람이라는 일방주의적(unilateral) 관계를 극복하는 상호 학습하는 '학습공동체'의 쌍방향 또는 다방향(bi-lateral/multi-directional)의 교수 학습모델 개발의 필요성

<참고> 2010 글로벌 코리안 유스 네트워크 프로그램 구성 원칙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 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주관)

- 단순 관객이 아닌 직접 참여형 진행형 프로그램 강화 (Participatory Program)
- 산발적, 나열적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주제와 교육 목적에 따른 구조화된 공동 학습지향 (Structured Common Learning Process)
- 일방적 강의식이 아닌 쌍방향의 문화적이고 직접체험을 통한 학습기회 강화 (놀이, 강연, 체험, 토론, 테마여행, 자원봉사, 발표회 등)
- 전체 참여형 집중식 프로그램과 소그룹별 선택형/분산식 프로그램의 적절한 안배
- 전체 프로그램을 관통하는 주제의식(Cross-cutting Theme)인 ‘세계시민의식’ ‘글로벌 코리안’ ‘평화, 다양성과 공존’ ‘소통과 네트워크’ 가치에 충실한 프로그램 구성
- 과정 중심(Process-oriented)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궁극적 목표인 ‘글로벌 코리안 유스 네트워크’ 구축의 구체적(온/오프라인) 실현

## 6. 기타 기존 청소년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의견

- 1)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는 오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일방적인 한국의 문화 소개, 한국의 산업경제 시찰, 한국 교육현장 방문 등
- 2) 초기 견학위주에서 체험교류 위주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중요한 것은 무얼 체험하고 어떤 교류를 하느냐는 교류/체험의 콘텐츠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 한류대사만들기 같은 한국 문화의 일방적 showcase적 체험이 아니라 상호문화교류, 공통의 주제에 관한 mutual exchange, 예컨대 한중 역사교류, 청소년 Peace Talks, Global Citizenship, 다문화사회 등등
- 3) 청소년 해외테마체험단 및 국제청소년광장 사업은 글로벌 이슈와 만나는 주제가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특성화 차별화 전략에 깊은 공감한다. 다만, 청소년

해외테마체험단이 선진국 중심으로 차여진 것에 비하여 빈곤과 개발, 사막화, MDGs, 인권, 젠더 등 제3세계 빈곤과 지속가능개발 이슈와도 만날 필요성 있음

- 4)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선택과 집중' vs. '확산과 다변화' 논리:  
유사청소년 국제프로그램 중복으로 고유성과 효과성 감소되었다?  
경제적 효과나 창의성 없이 중복된 예산 낭비인가?  
국제청소년광장과 아시아청소년캠프가 역사성 창의성 정통성 지녔다?

## 7. 사후 관리에 대한 코멘트

- 1) 일회성 교류를 follow-up하는 '글로벌 청소년 네트워크 활동' 강화과제
- 2) 기 참가 청소년들에 대한 '사후관리'적 접근이 아닌 '사후 활동 활성화'의 과제로서 사후활동의 방향과 목표 설정 및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교류활동을 통하여 지구적 감수성이 높아진 청소년들이 이런 경험을 귀국 후 지역사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례; '우리 안의 아시아 만나기 프로젝트', '다문화사회 동행 클럽활동', '청소년 공정무역 연구모임; 따뜻한 무역(따무)', '안산 다문화도서관 자원봉사자클럽' 등

## 8. 대안적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제언

- 1) 기존 선진국, 제1세계 일변도의 상호주의적 교류사업 강화과제와 함께 개발도상국, 최빈국 청소년과의 '빈곤과 개발 파트너'로서 교류사업 활성화 과제 필요
- 2) 착한 여행과 자원봉사 접목형 프로그램 개발: VOLUNTOURING 또는 TRAVOLUNTEERING

(참고사례: 미국 국무성의 'Go! Global 프로그램 모델 및 제반 Workcamp 모델)

- 3) 청소년 국제자원활동(IVS; International Volunteer Service) 및 청소년 국제봉사학습(ISL; International Service Learning) 프로그램 모델 다양화

(참고사례; 유럽연합 청소년위원회(EU Youth Commission)의 IVS 매뉴얼)

- 4) 지구촌 빈곤과 불평등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는 순례형(pilgrimage) 프로그램  
(참고사례; 팔레스타인 올리브투어, 동티모르 평화순례, 유럽 인권투어, 독일 기억책임미 재재단의 독-폴/독-불 청소년 역사화해투어 등)

- 5) 한-중-일 청소년 공동 역사교실

한-중-일 청소년 및 역사교사, 평화교육 지도자 및 지구시민교육 강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 역사+평화교육 수업 모델개발 사업

- 6) 국내 주요 국제행사에 청소년 참여 강화

(사례: 2010년 캐나다 G20정상회의에 맞춰 개최된 'My G20 Summit', 그 외에도 UNCCD COP10 (UN사막화방지협약 10차 당사국총회/2011-10, 경남 창원)

HLF4(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위급회담/2011-11, 부산)

IAVE아태총회(국제자원봉사협회 아태총회/2011-10, 경남 창원)

그리고 2012년의 핵안보정상회의, UNFCCC COP18 (UN기후변화협약 18차 당사국총회) 등과 연계한 글로벌 청소년들의 정책참여활동을 조직할 수 있다.

## 2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발전방안

- **외국의 청소년 국제활동 동향**  
발표: 박선영(동서대학교 교수)  
토론: 조아미(명지대학교 교수)
- **국제교류사업 발전방안 및 새로운 국제활동방안**  
발표: 김병주(한국외대학교 교수)  
토론: 조우진(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팀장)
- **한국의 ODA사업(청소년분야) 추진방향**  
발표: 김병관(한국국제협력단 실장)  
토론: 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해외 청소년국제교류활동 동향과 과제 :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박 선 영 (동서대학교)

## I. 유럽 연합 내 청소년교류정책의 배경<sup>1)</sup>

### 1. 유럽연합의 당면과제

#### 1) 인구학적 변화

유럽사회 역시 심각한 고령화 사회에 직면해 있다. 저 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2020년이 되면 65세에서 90세 인구의 인구가 2000년도에 비해 16%에서 21%로 증가할 것이며 청소년에 해당하는 15세에서 24세의 인구 비율은 2020년에는 11%로 줄어들게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학적 불균형은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유럽이 오랫동안 자랑해오던 사회복지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유럽 연합은 세대 간 이해와 통합을 목표로 하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통합이 준비되어야 하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사회통합이라고 하면 다문화시대의 사회통합을 떠올렸지만, 최근 유럽에서의 화두는 다문화시대의 사회통합보다 세대 간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런 인구학적 변화는 유럽연합 회원국내의 노동력만으로는 유럽의 경제를 지탱하기에는 역부족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유럽 연합은 인구학적 변화가 주는 과제를 순조롭게 극복하고 회원국 청소년들이 유럽의 경제와 미래사회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들의 고용가능성을 극대화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속의 세계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

1) European Commission(2011) : [http://ec.europa.eu/atoz\\_en.htm](http://ec.europa.eu/atoz_en.htm)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참고함

## 2)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첫째, 유럽 청소년들의 첫 번째 변화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청소년기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년 실업율의 증가는 청소년들에게 고용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직업 준비기간을 늘리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공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기간이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청소년기의 확대는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렇게 청소년기 연령이 확대된 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지원이 증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청소년기에 대한 새로운 개념 확립 및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은 자신의 부모세대와는 다른 역할들을 경험하고 있어 역할 혼미에 빠지기도 한다. 다시 말해 학생이면서 동시에 직업이 있고, 직업을 찾아야 하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하며, 많은 청소년들은 한부모와의 동거를 경험하기도 하며, 어떤 청소년은 심지어 부모의 역할을 하거나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기도 한다.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은 그들의 부모인 기성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다. 그들의 부모세대는 단순히 학생으로서 한부모가 아닌 양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아주 간단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자라났던 것과 대조가 된다. 이에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한 경험과 학습이 필요하다.

셋째, 유럽청소년들에게 있어 표준화 혹은 일반화라는 것은 이제 어려운 것이 되었다. 즉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다양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collective model**(집단모형)이라는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삶의 경로와 경험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면서 개인의 가족, 결혼, 진로 발달 단계는 개인차가 심하게 되어 이전과 달리 연령별, 생애주기별 발달단계가 훨씬 복잡해졌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역시 개인의 경험과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청소년의 발달단계는 특히 공공 정책의 수립과 실시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넷째, 유럽의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는 생애주기의 변화이다. 학업 이후의 직업, 그리고 결혼이라는 생애주기가 변화하여 학업과 직업이 병행된다거나, 직업과 학업의 순서가 바뀌거나, 혹은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학업과 직업 결혼이라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 높은 청년실업율은 청소년들의 생애주기에서 학교 졸업후 취업이라는 것으로 연결시켜주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다양한 생애주기를 인정하고 이에 부응하는 청소년 정책이어야 할 것을 인지한 유럽 연합은 다양한 청소년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 3) 공공영역에서 청소년의 참여 부족

동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으로 인해 청소년들과 젊은 층 사이에서는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실천, 즉 참여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높아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정치참여를 비롯한 사회참여의 수준이 만족할 만한 것은 못된다. 유럽의 청소년들에게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성숙한 실천적 시민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좁게는 지역사회에서 넓게는 유럽 사회 안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진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 영역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제도화시켜야 한다.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은 각국에서의 시민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이 속한 크고 작은 집단에서의 책임감 있는 시민성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의 유럽인으로서의 시민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고심하고 있다. 사실 유럽연합의 청소년교류 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청소년의 유럽인으로서의 시민성 함양과 참여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 4)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의 문제

유럽인이라는 정체성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된다. 유럽의 청소년들에게 유럽은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존중이자 자신들이 살고 공부하고 일하고 여행하는 곳이다. 그러나 동시에 유럽이라는 곳은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돌보아야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각국은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 그리고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다양한 특성을 가진 또 다른 하나의 공동체 사회인 유럽에 대해 청소년들은 복잡한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유럽 연합의 회원국이 증가하면서 유럽 연합의 정체성은 더 다양해져서 청소년들에게는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의 청소년들은 개인의 발달과업 외에도 아시아나 북남미 국가의 청소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유럽 연합의 독특한 특성을 받아들여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해야 할 과업까지도 지니고 있다.

## 5) 세계화

유럽의 청소년들에게 세계화는 이분법적 의미가 있다. 유럽연합 자체가 청소년들에게는 세계화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유럽인으로서 전 지구적인 세계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청소년들에게 세계화는 한국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유럽인으로서의 통합과 정체성을 요구받지만, 전 지구적 세계화에 앞서 유럽 사회 안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세계화가 요구하고 있는 사회정의와 개방성, 그리고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하는데 이러한 세계화의 현상 역시 유럽 청소년들에게 도전과 과제가 되기도 한다.

## 2.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sup>2)</sup>

이상에서 서술한 유럽연합 내 청소년을 둘러싼 지형의 변화는 유럽 연합이 적극적으로 청소년교류활동을 주도하는 계기를 마련해오고 있다. 이에 따른 유럽 내 청소년 교류정책의 방향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정책방향은 어떻게 교류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함양하게 하는가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부모세대와는 다른 유럽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수준에서의 의견개진과 참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유럽연합의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청소년 참여는 바로 높은 수준에서의 시민성에서 비롯된다. 이를 위해 영국을 위시한 여러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을 공교육과 학교밖 교육에서 실시해오고 있으며 시민성 함양이 2000년대 청소년 교류정책의 기본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둘째, 청소년의 교육과 발달에 있어서 공교육의 강화와 동시에 청소년의 비형식 교육, 즉 학교밖 교육, 청소년활동, 청소년 단체의 역할 등이 교류활동에 있어서 부각되고 있다. 또 자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간 교류를 통하여 학교와 청소년단체의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청소년단체와 학교간의 교류도 적극 권장하

2) European Commission(2011) EUROPA - Education and Training - The Lifelong learning programme 에서 참고함

고 있는 것이 유럽 연합의 청소년정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교류활동은 학교 간 교류가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학습을 제공할 수 있고 청소년들은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활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습득함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정책방향은 교류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유럽연합 회원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들은 무엇보다 자치권과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취업이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통해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원한다고 밝힌바 있어, 2000년대에 와서 청소년교류정책에 주요하게 포함되고 있는 것이 취업관련 고용가능성 증대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제교육과 진로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은 여러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여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교류활동의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언어습득과 개방성, 창의성과 도전성을 증대시켜 고용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번째, 청소년교류정책의 방향은 청소년교류정책을 다른 정책과 연결하는 것이다. 유럽연합 회원국내 청소년교류정책은 청소년의 고용, 교육, 사회통합, 소비, 이민, 보건, 환경, 양성평등, 경제정책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 간의 협력은 물론이고 자국 내 모든 정책과 조화롭게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각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럽연합은 청소년교류정책이 회원국내의 중요한 정책으로 매김 할 수 있도록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청소년교류를 통해 청소년 개인의 역량강화를 도모함은 물론 사회통합과 사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로 분석된다.

---

## II. 유럽 연합 내 청소년 국제교류프로그램<sup>3)</sup>

---

현재 유럽 연합의 대표적인 청소년교류활동인 Youth in Action은 이미 한국에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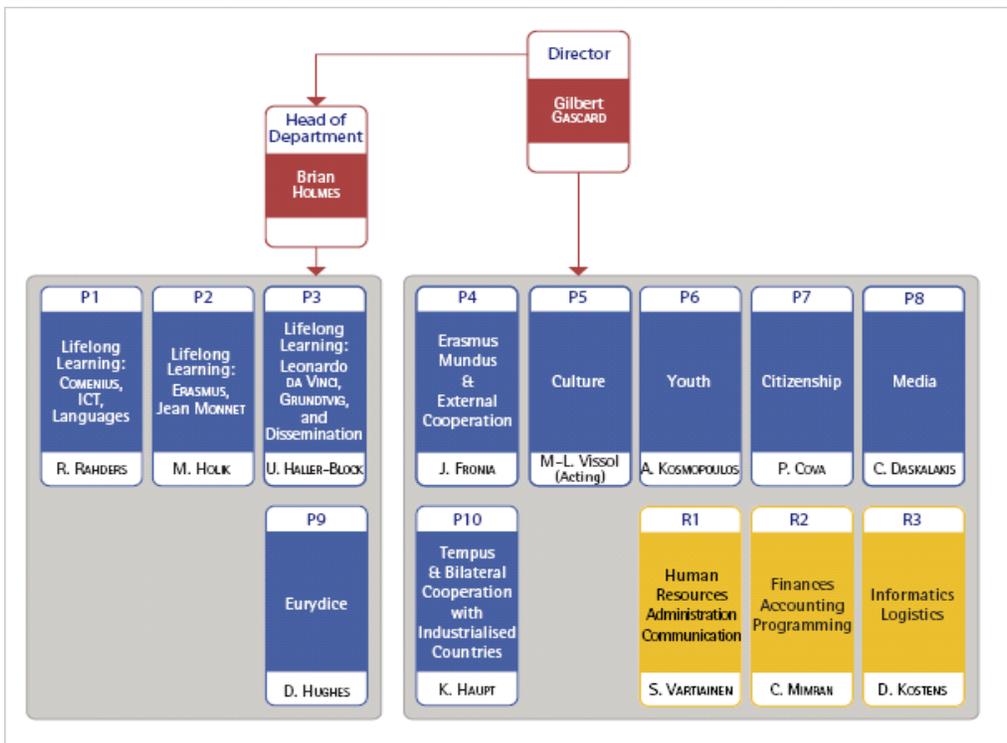
3) European Commission (2011) Youth in Action Programmes Guide [www.ec.europa.eu/youth](http://www.ec.europa.eu/youth) 를 참고함

모범사례로 1990년대 말부터 소개되어왔다. 여기서는 Youth in Action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으며 최근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청소년을 교류하고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1. 유럽 연합 내 청소년 정책 담당 조직

우선 Youth In Action을 포함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국가들의 교육 및 문화, 청소년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곳은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산하의 23개의 전문국중의 하나인 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EACEA) ;교육, 시청각, 문화 실행국이다. 유럽 연합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을 담당하는데 그 조직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1> EACEA 조직도<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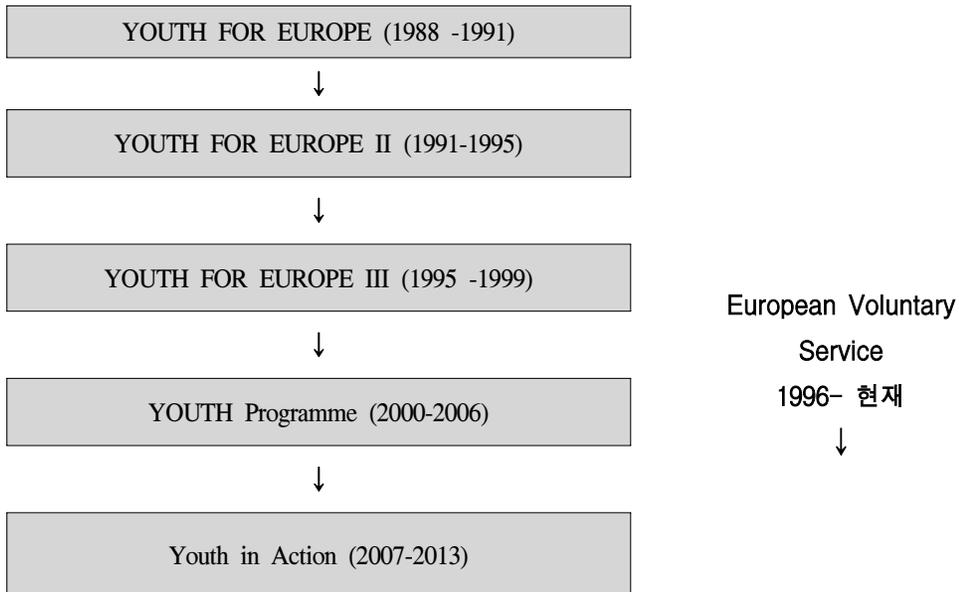
4) 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EACEA)(2011) [http://eacea.ec.europa.eu/index\\_en.php](http://eacea.ec.europa.eu/index_en.php)

EACEA는 크게 교육, 문화, 청소년, 시민성 프로그램의 4가지 영역에서 7개의 주요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운영하되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치적인 영향력은 행사하지 않게 되어있다 ; 1) 평생학습프로그램, 2)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3) Tempus, 4) 문화, 5) Youth In Action, 6) Europe for Citizens and Media, 7) 국제협동조약.

EACEA의 임무는 첫째, 이상의 7개 교류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재정확충을 위한 조건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지원자 및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위한 동의와 협약 등을 평가하고, 전체의 예산을 운용하며, 프로젝트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교류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곳에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 둘째, 지원자와 교류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위한 정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유럽인의 지식과 역량 강화에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 2. Youth In Action 프로그램 이전 청소년 교류 활동 프로그램<sup>5)</sup>

<그림 2> 유럽 연합 청소년 교류 활동 프로그램의 변화 과정



5) European Commission (2011) Youth in Action Programmes Guide [www.ec.europa.eu/youth](http://www.ec.europa.eu/youth)에서 참고함

위의 그림은 1980년대 말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럽 연합 내의 청소년교류활동의 변천과정을 보여준다. 프로그램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YOUTH FOR EUROPE, II, III

이 프로그램은 유럽 연합에 의해 1988년 처음 소개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국가 간 청소년의 교류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프로그램이 소개된 지 얼마 안 된 1991년까지 15세에서 25세의 청소년 8만여 명이 참여하고 제 3차까지 기획될 정도로 유럽의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기초를 놓은 프로그램이다. 청소년 교류의 확대를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1999년까지 3차 프로그램으로까지 확대되어 초기 청소년 교류의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에 이 프로그램을 관할 할 수 있는 사무국을 설치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과 청소년단체들이 교류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였다. 또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국가, 유럽수준에서 취약계층의 청소년이나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 예를 들어, 문화, 종교, 경제, 언어, 신체적 건강상태 등의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의 개발과 지원 역시 중요하게 다루었다.

### 2) European Voluntary Service

1996년 소개되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단순히 교류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유럽연합 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현재 영국의 경우 VSO라는 민간 자원봉사단체가 자국 내 자원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내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개하여 다양한 기간을 선택하여 청소년과 대학생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YOUTH FOR EUROPE 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특별지원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할 만큼 다양한 차이로 인해 자신의 개발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개발 및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3) YOUTH Programme

이 프로그램은 유럽의회에 의해 2000년 3월 채택된 프로그램으로 Youth in Action 의 전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한국에도 이 프로그램이 소개된 바 있는데, 그 특징과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YOUTH Programme은 기존의

YOUTH FOR EUROPE과 European Voluntary Service 프로그램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국가별 청소년정책에 적극적으로 YOUTH Programme이 반영되어 더 많은 청소년들이 교류활동에 참여하게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는 non-formal education이라고 분류되는 청소년단체활동의 역할이 기존 프로그램보다 훨씬 강조되었다. YOUTH Programme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서 현재까지 지속되는 소크라테스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SOCRATES programme 소크라테스 프로그램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유럽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사업으로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이름을 따라서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31개의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제1차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그리고 제2차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그리고 제 3차는 이름을 Lifelong Learning Programme으로 확대 변경되어 2007년부터 2013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 모든 수준에서의 교육을 강화하고,
- 유럽 언어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
- 교육을 통해 협력과 이동성을 증대하며,
- 교육의 개혁을 촉진하고,
- 교육전반에 걸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이 프로그램 안에는 연령과 특별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프로그램 명	대상	내용
<p>코메니우스 프로그램(Comenius programme)</p>	<p>초·중등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개발과 리더십양성이 목적</li> <li>-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가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수를 지원하는 것</li> <li>- 다양한 교육과정간의 연계를 목적으로 하며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지원해야 함</li> <li>- 학교는 최대 2만2천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장 2년까지 프로그램을 진행</li> <li>- 학교와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경험하게 되며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지식을 쌓고 경험</li> <li>- 팀워크 향상으로 청소년들은 자신이 속한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 함양</li> <li>- 교사나 지도자의 경우 새로운 교수법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 마련, 교육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확보</li> <li>- 가장 큰 장점은 청소년들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과 교류하며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li> <li>- 현재는 이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원래 중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로 확대되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의 증가로 학교와 청소년은 더 많은 국가와 교류할 수 있게 됨</li> <li>- 최소한 3개 이상의 학교가 파트너십을 이루는 프로그램이어야 함, 즉, 학교는 단독으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2학교와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li> <li>-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공통언어는 되도록 많이 사용되지 않는 언어를 권장하여 유럽의 다양한 언어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li> <li>- 청소년들에게는 모국어가 아닌 새로운 언어에 도전하게 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도전정신과 창의성 함양의 기회 제공</li> </ul>
<p>에라스무스 프로그램(Erasmus programme)</p>	<p>- 대학생과 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연합 국가 대학생간의 학문적 교류를 증진이 목적</li> <li>- 1987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1994년부터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에 포함</li> </ul>
<p>그룬티비 프로그램(Grundtvig programme)</p>	<p>- 25세 이상의 성인 - 16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및 문화교류프로그램</li> <li>- 프로그램에서의 교육과 학습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형식, 비형식 교육을 모두 포함</li> <li>- 지역사회 학습과, 실천학습, 경험학습을 목표</li> <li>- 다양한 시민단체와 기관들이 실시하고 있으며 주제</li> </ul>

	비재학 청소년	역시 매우 다양 -단순한 문화교류에서 부모교육, 언어교육, 문화예술 교육과 교류에 이르기까지 참가자는 다양한 영역에 의 참가가능
링구아 프로그램 (Lingua programme)	청소년 및 성인	유럽 언어 교육관련 프로그램
미네르바 프로그램 (Minerva programme)	청소년 및 성인	ICT 교육프로그램

(2) LEONARDO DA VINCI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 6)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은 직업훈련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가능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변화하는 유럽경제와 시장, 세계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취업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회원국가간 연합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야 하며 국가 간 청소년교류를 통해 청소년이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훈련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

### III. Youth In Action (2007-2013) 7)

---

#### 1. 프로그램 목적 및 개요

청소년 교류활동의 초기 단계에서는 유럽연합의 안정과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고 상호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유럽연합의 결속과 공동체 의식을 더 강조하며 유럽에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에게 까지 교류의 범위를 확장하여 그야 말로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2000년대 초까지의 청소년 교류활동 정책과 프로그램이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 Youth in Action 은 Global citizen, 즉 세계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Youth in Action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유럽연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

6) European Union(2006)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No L327 of 24 November 2006

7) European Commission (2011) Youth in Action Programmes Guide [www.ec.europa.eu/youth](http://www.ec.europa.eu/youth)

교류활동으로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의 긍정적 시민성을 함양
- 사회통합과 결속 지향
- 이를 위한 지원 시스템의 질적 향상과 청소년 개발

Youth in Action은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 유럽인으로서의 시민성
- 청소년의 참여
- 문화 간 소통
- 취약계층 청소년의 참여 보장 등이다.

이상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Youth in Action의 하위 프로그램들이 선정되고 조직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청소년이나 청소년단체들은 이런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 2. 2011년 Youth In Action의 특징

2011년의 주요 목표와 방향은 아래와 같다.

- 유럽 자원봉사의 해
- 청소년 실업률 감소
- 사회적 배제의 최소화
- 지구적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의식 함양
- 창의성과 기업가정신 함양
- EU -중국 청소년의 해

2011년 주요 목표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중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중국과의 교류를 강조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는 신흥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유럽 내에서 갖게 되는 영향력과 관련이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유럽연합의 청소년교류활동은 초기에는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청소년교류에 머물러 있었다면 최근 들어 청소년교류활동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유럽연합 국가가 아닌 국가들 간의 교류가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점은 2011년부터 사업 선정 시 청소년교류활동이 얼마나 자국 내 공공정책과 연관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교류활동은 유럽 청소년들 간의 교류만을 다루어서는 안 되고 청소년교류활동 그 자체가 자국 내 청소년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역사회의 구성원 없이는 유럽사회의 구성원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VSO같은 영국의 자원봉사단체는 해외 자원봉사 참여시 필요한 조건으로 국내 자원봉사에의 참여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한국의 국제청소년교류가 실질적인 자원봉사 유형험자나 현재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기보다, 어학실력이나 학점 등을 더 주요한 선발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 3. 참여 대상과 운영

Youth In Action의 주요 참여 대상은 13세에서 30세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이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는 아래의 기준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비영리기구나 비정부기구, 지역의 공공기구
- 자발적으로 조직된 청소년 그룹(청소년이 운영하는 청소년 단체)
- 유럽 내 8개 이상의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청소년기구
- 국제적인 규모의 비영리 단체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스포츠 단체나 문화 단체

이상의 하나에 해당되는 단체나 기구는 Youth In Action 프로그램 운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프로그램의 규모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현재는 33개의 나라에서 Youth In Action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10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Youth In Action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하위 프로그램은 최소한 3명의 지원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Action 2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30명이 초과되어서는 안 된다.

## 4. Youth in Action 프로그램의 구성

<표 2> Youth In Action 프로그램의 구성)

Action	하위 프로그램	개요	Youth Pass
1	1.1-Youth Exchanges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을 만나 서로의 문화에 대한 교류	인증
	1.2-Youth Initiatives	청소년이 직업 제안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인증
	1.3-Youth Democracy	청소년 참여증진을 도모하여 유럽 시민성 함양이 목적	
2	Multi-Measure projects	Action 1에 해당하는 활동 여러개를 최대 18개월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그램	
	하위프로그램 별도로 없이 Action 2 자체가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12개월까지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	인증
3	3.1- Cooperation with the Neighbouring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상호 이해와 문화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인증
	3.2-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of the World	유럽연합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청소년 교류프로그램	
4	4.1 - Support to bodies active at European level in the youth field	NGO의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4.3 - Training and networking of those active in youth work and youth organisations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를 통해 이들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인증
	4.4 - Projects encouraging innovation and quality	프로그램의 혁신과 질적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4.5 - Information activities for young people and those active in youth work and youth organisations	ICT 기술향상과 이를 통한 청소년참여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4.6 - Partnerships	장기간 교류프로그램의 파트너십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5	Support for European cooperation in the youth field	청소년정책 전문가와 청소년정책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1) European Commission (2011) Youth in Action Programmes Guide [www.ec.europa.eu/youth](http://www.ec.europa.eu/youth)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 5. Youthpass

Youthpass는 Youth In Action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유럽의회로부터의 공식 증명서나 인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증명서를 통해 고용인이나 학교들이 국제교류와 비형식교육에의 참여를 통해 얼마나 청소년의 기술과 지식, 경험이 개발되었는가는 것을 알게 할 수 있게 함이 목적이다. 현재 Youth In Action에 대한 공식 인증서는 Youthpass외에는 없으며 Youthpass는 청소년에게는 포트폴리오 작성 시에 매우 도움이 된다. 그러나 Youth In Action 프로그램에서 Youthpass의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위의 <표 2> Youth In Action 프로그램의 구성에서 별도로 표시해두었다.

European Voluntary Service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단체에게 Youthpass는 그 자체가 곧 통합적인 평가 과정이기도 하다. European Voluntary Service를 참가한 모든 개인은 프로그램의 종료와 함께 Youthpass를 수여받게 된다. 이 인증은 웹에서 이루어지며 프로젝트에 따라서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므로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의 기록과 인증과정에서 프로그램 고유번호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인증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모국어 의사소통 능력
-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 수학, 과학, 기술 능력
- 디지털 문해와 사용능력
- 학습 의지
- 사회적·시민적 역량
- 기업정신
- 문화적 이해와 표현능력

Youth In Action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 비형식 학습
- Youthpass
- Youth In Action 프로그램의 가시성
- 착취 및 인종차별 금지
- 양성평등

- 참가자 보호와 안전
- 다중언어 사용

이외에도 Youth In Action에 참가하는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는 기본원칙이다. Youth In Action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정서적, 영적 개발에 있어 최대한의 개발을 이루어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안전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고 청소년의 안전권과 복지권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물론 청소년들도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Youth In Action에 참여하는 모든 운영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 IV. 결론 및 제언

---

이상의 유럽 연합의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을 고찰하고 얻을 수 있는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의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의 중·장기적 목표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럽 연합은 그 프로그램의 특징에 따라 조금씩 프로그램의 내용과 이름이 변경되었지만,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20년 넘게 다양한 영역에서 국제교류프로그램을 보급해오고 있다. 물론 한국도 청소년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국제교류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기는 하지만, 일관성과 통일성, 방향성을 제 점검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목표 수립 시 유럽 연합에서처럼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지형의 변화와 청소년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 중·장기적 목표 수립 시에는 여러 나라와 협력하여 동북아와 세계의 변화에 우리의 청소년들이 경쟁이 아닌 협력과 상호 공존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관점이 제시되어야 한다. 국제교류활동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또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서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활동 전문가, 청소년기관, 학계가 포함된 포럼 등이 구성되어 지속적이고 장기

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국제교류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글로벌 시민의식의 함양과 실천이어야 한다. 유럽 연합의 초기 청소년교류활동은 각국에 대한 이해와 문화교류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로 올수록 유럽 연합 안에서의 시민성은 물론이고 지구적 관점에서의 시민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국제교류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체험해왔다면 이제 글로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책임감과 역할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의 리더로 발돋움하기 원하는 한국은 일본과 중국을 포함하여 아시아지역의 개발과 발전에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단순히 단기간의 해외 자원봉사에서의 참여만으로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하기는 어렵다. 체계적인 국제교류활동에의 준비와 참가, 평가를 통하여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습득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민의 양성, 글로벌 리더의 양성으로 그 목적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셋째, 국가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유럽 연합이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에 거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국제교류의 활성화와 글로벌 시민 양성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국제교류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예산의 확보는 국제교류활동 전담기구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을 위한 예산 마련에 획기적인 방안과 아이디어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실시하는 청소년 단체, 시설, 기관에 대한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다. 학교교육을 제외한 비형식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유럽의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은 학교의 교육과정과도 연계하고 있지만 비형식교육, 즉 청소년관련 단체를 통한 교류활동의 장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청소년단체나 시설, 기관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융통성이나 청소년의 자발성은 국제교류활동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이런 기관에 대한 인정과 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를 위해 국제교류활동의 중요성과

글로벌 시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제기하고 공론화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학교와 청소년 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 기관 간 파트너십의 강화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국제청소년교류를 경험하지 않거나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정에서 국제 교류 및 외국어 능력을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청소년지도사가 우선 국제교류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갖추게 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관련 검정 과목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며, 외국어 사용능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기존의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청소년관련학과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우선 참여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교류활동 프로그램 선발 조건으로 관련 자원봉사활동을 요구한다거나 국제교류 관련 과목에의 수강 여부 등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Youthpass 같은 인증제도나 증명서를 도입한다면 청소년과 단체에게는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한 것이 중요한 경력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 양성과정과 교육 및 훈련 과정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유럽 연합이 2011년부터 중국과의 교류를 중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것에서 착안하여 한국도 국제교류활동의 대상과 방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현재 영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를 혹독하게 경험하고 있는 영국은 한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노하우와 한국의 청소년들의 높은 학업성취도에 깊은 관심을 공공연하게 표현해오고 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관심이 있을 때를 이용하여 우리도 유럽의 국가들과의 교류를 좀 더 활성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서는 국제교류활동 전문가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은 말 그대로 ‘청소년’, ‘교류활동’이어야 한다. 일회적 방문이나 일방적인 견학이나 체험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 국제교류활동을 위한 사전 교육이 철저하게 선행되어야 한다. 행사위주의 사전교육이 아니라 해당국에 가서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청소년

년 교류활동이므로 국제교류활동 프로그램 및 정책수립에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다문화 청소년 등등 한국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청소년들이 국제교류활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포섭되어야 한다.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활동을 통한 자기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Youth In Action 프로그램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뿐만 아니라 평가까지 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주체가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우선 그들의 경험 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EACEA)(2011) [http://eacea.ec.europa.eu/index\\_en.php](http://eacea.ec.europa.eu/index_en.php)

European Commission (2011) Youth in Action Programmes Guide [www.ec.europa.eu/youth](http://www.ec.europa.eu/youth)

European Commission(2011) : [http://ec.europa.eu/atoz\\_en.htm](http://ec.europa.eu/atoz_en.htm)

European Commission(2011) EUROPA - Education and Training - The Lifelong learning programme

European Union(2006)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No L327 of 24 November 2006

## 토 론

### 조 아 미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이제까지 토론자는 토론원고를 쓸 때 주로 주어진 발표원고를 중심으로 작성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워크숍 전체에 대한 청사진을 보고 주어진 발표원고를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름 좀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토론을 하고자 한 것이다. 「해외 청소년국제교류활동 동향과 과제: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는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중장기 발전방향 마련을 목적으로 한 워크숍에서 <제1부>현행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문제점과 발전방향과 <제2부>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중에서 제2부의 발표논문 중 하나이다.

발표논문은 해외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의 동향과 과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청소년국제교류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발표자는 최근의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한 해외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을 조사해서 이에 대한 시사점을 매우 훌륭하게 제시해 주었다고 본다. 토론원고를 작성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발표자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의 중장기 목표수립, 청소년의 참여, 국가적 지원,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전문가의 양성 등 발표자가 제안한 많은 주장에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발표자에게 발표자로서의 역할이 있듯이 토론자에게는 토론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작은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첫째, 해외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의 동향과 과제를 유럽 연합을 포함한 다른 국가까지 포함해서 제시해야 한다.

이것은 발표자와 주최측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선 주최측에서는 이 워크숍

의 목적이 우리나라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중·장기 발전방향 마련이라고 할 때,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이 활발한 유럽 연합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실시되는 청소년 국제교류활동도 발표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균형 잡힌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을 살펴볼 수 있어야 이를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얻어 우리나라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발표자의 입장에서는 주제를 한정시키면 시킬수록 그 주제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발표자는 이 역할을 매우 잘 수행했다) 이 워크숍의 목적을 감안한다면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가 유럽 연합에서의 해외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을 다루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자세하게는 아닐지라도(이것은 워크숍의 제1부에서 다루므로) 우리나라의 청소년국제교류활동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수용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럽 연합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이 어떻게 현재의 프로그램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과거 유럽 연합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은 어떠했고, 그 결과 어떠한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이 진행되었는지, 지금은 어떤 새로운 당면과제와 정책방향이 등장했는지(이 부분은 발표원고에서 다루었음), 그 결과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은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발표논문은 유럽 연합에서 현재 실시되는 해외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의 동향과 과제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이 과정이 제시되어야 우리나라의 청소년국제교류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제대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발표자는 2011년부터 사업 선정 시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이 얼마나 자국 내 공공정책과 연관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2011년 Youth in Action의 특징 중 하나라고 했다. 그 예로 VSO와 같은 영국의 자원봉사단체는 해외 자원봉사 참여 시 필요조건으로 국내 자원봉사의 참여경험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경험보다 어학실력이나 학점 등이 더 주요한 선발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청소년

년 국제교류활동의 선발기준으로 어학실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고 해당 청소년이 해외에서 경험할 교류활동을 국내에서 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본다. 결국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선발기준이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선발기준으로의 어학실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어학실력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겠지만 어느 정도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토론자의 의견으로는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프로그램의 목표에 따라 참여 청소년의 어학실력은 다양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단순한 체험활동이나 일회성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어학실력이 덜 중요하겠지만, 국제회의에 참가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면 어학실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2011년 Youth in Action의 주요 목표와 방향 중 하나는 “EU - 중국 청소년의 해”이다. 발표자는 이것을 중국이 유럽 내에서 갖는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다. 즉 최근 유럽의 청소년교류활동은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교류가 아닌 유럽연합과 다른 국가와의 교류가 부각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우리의 시사점은 발표자의 주장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유럽국가의 관심이 높은 요즘 이들 국가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유럽과 중국의 관계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선진국이면서 비교적 청소년의 국제교류가 진행되어 왔던 유럽보다 2000년대에 들어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과 같은 신흥경제 4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추가된다고 한다. 물론 인도, 러시아, 중국과는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와의 국제교류활동은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아직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국제교류활동의 단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교류활동은 최근 들어 다양화되었지만 발표자가 제시한 것처럼 일회적이거나 일방적인 견학이나 체험에 머문 경향이 있다. 물론, 청소년 해외파견사업인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가다’ 프로그램, ‘국제회의 및 행사 파견사업’, ‘해외테마체험단’ 등과 같은 청

소년 국제교류프로그램은 과거보다 진화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이라고 본다.

토론자는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이 반드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아무 프로그램이나 활동이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다. 토론자가 의미하는 것은 수요자인 청소년의 입장에서 볼 때 청소년마다 주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의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청소년에게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국제교류활동이 그 청소년에게 도전이 되고 글로벌리더십을 발전시키고 세계인으로서의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청소년에게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그 청소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지각하게 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일회성 국제교류활동부터 시작해서 차츰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교류활동의 단계는 1단계(일회성 혹은 단순 견학이나 체험활동), 2단계(장기간 체류를 통한 교류활동), 3단계(주어진 주제에 대한 논의, 회의), 4단계(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등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 청소년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국제교류활동의 단계를 택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다. 유럽 연합의 경우 2000년대 청소년 국제교류정책의 목적은 시민성 함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청소년 국제교류정책의 목적은 글로벌 역량 강화나 타문화의 이해이다. 목적이 자주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나 청소년의 요구에 따라 목적이 바뀔 수도 있고 목적은 바뀌지 않더라도 세부적인 목표는 수정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에서도 2000년대에 와서 취업관련 고용가능성을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룬다고 한다.

이것은 또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정책을 다른 정책과 연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해외에서 취업을 하거나 교육받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유럽 연합의 대표적인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중 하나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의 목적은 직업훈련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가능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청년실업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을 취업과 관련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유럽 연합에서는 다문화시대의 사회통합보다 세대 간 통합이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비단 유럽 연합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세대통합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과 다른 국가의 청소년은 세대 차이를 주제로 회의 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다른 문화권의 청소년들이 세대 차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속한 문화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회는 청소년들이 세대 차이에 대한 보다 나은 해결책이나 접근법을 채택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다문화간의 통합과 세대 간의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중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의 많은 국가처럼 젊은 이민자와 나이 든 지역거주자 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덟째, 발표자는 Youth in Action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공식증명서 혹은 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 Youthpass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했다. 토론자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그러나 Youthpass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제도 안에서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 활동인증제도 안에서 Youthpass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제도에 접목하는 것은 새롭게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쉽다고 본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에 대해 수련활동 인증을 받는 것이다. 기존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서도 국제교류활동은 인증의 대상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단지 민간 단체와는 달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수련 활동 인증을 위해서는 제도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성취포상제에서도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인증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노력을 해보면 좋겠다.

국제교류사업 발전방안 및 새로운 국제활동방안

김 병 주 (한국외대 교수)

#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새로운 방향 모색

김 병 주

1

## 청소년 국제 교류의 목적

청소년 국제 교류는  
청소년의 다양한 국제 사회 체험을 통한  
글로벌 리더쉽과 국제 시민 의식 함양,  
타국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한  
우의 증진 및 미래 협력 기반 조성  
목적으로 한다.

2

## 청소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

### 국가간 교류

한-말레이시아: 1965년  
한-중, 한-중-일

### 체험 활동 프로그램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가다”: 2006년  
대한민국 청소년 발전 프로젝트: 2007년  
국제회의·행사 참가단: 2008년  
청소년 해외 자원 봉사단 “꿈과 사람속으로”: 2002년

### 국제회의 및 행사 개최·파견 사업

국제청소년광장: 1990년  
아시아청소년캠프: 2006년...etc.

3

## 현실적 목표

현실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목표:

청소년국제교류는  
최대 다수 청소년의 (다양한) 국제사회 체험(exposure)을  
통한 글로벌 리더쉽과 국제화된 시민 의식 함양을  
타국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한  
우의 증진 및 미래 협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현실적  
목표



최대 다수의  
해외 체험

4

## 결과

결과 (긍정적인 시각):

가속되는 국제화 조류 속에,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형태로 여러 조건과 상황에 맞게  
유연성 있고 열린 해외 체험 기회를 제공

결과 (비판적인 시각):

현재 청소년국제교류 체계는  
때로는 상호 중복되고  
경우에 따라 서로 차별화하기 어려운  
주로 단기적인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였으나  
그 내용과 성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효과적인 홍보가 아쉬우며,  
이 점에서 향후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요구됨

5

That was then.  
This is now.

국내외 환경 변화

6

## 국제 환경 : 한국의 위상

### THEN

Post-Democracy Movement  
Post-Asian Crisis  
Economic Reform in Prog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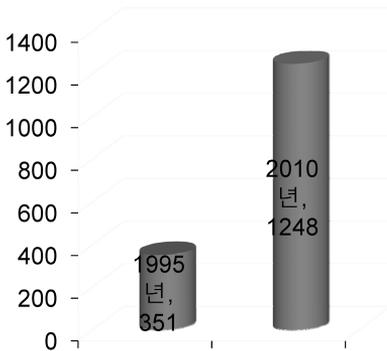
### NOW

Post-Seoul G20 Expectations (global interests)  
新東北亞 秩序 (regional interests)  
OECD – DAC Member Country (N-S interests)

7

## 국내 환경 : 보편화된 국제화

출국자수 (만명)



해외체험기회 확대

- 기업 - 글로벌 리더십
- 학교 - 교환 프로그램
- 외국어 연수
- 파견 / 출장
- 여행 - 배낭여행 등

8

## 청소년 국제 교류의 새 방향 (1)

<< 점진적인 변화 - So Far >>

지금까지의 청소년국제교류는

환경 요건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점차적으로 청소년들의 참여가 더 강조되고 글로벌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음

9

## 청소년 국제 교류의 새 방향 (2)

<< 새로운 방향 설정 - Now >>

청소년국제교류는

청소년의 다양한 국제사회체험(과 참여)를 통한  
글로벌 리더쉽과 국제시민 의식 함양,

타국 청소년들과의 (지속가능한) 교류를 통한  
우의 증진 및 미래 협력(의 전반적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10

## 실행 단계별 검토

기 획

프로그램 홍보

대상 선발

실 행

성과 관리

11

# 기 획

## 교류 / 체험 / 행사 → 목적 / 지역 / 수준

중장기 차세대 지도자 사업  
신동북아 네트워크 (한중, 한중일 프로그램 개선·강화 + 지역 청소년  
기구 개편·창설)  
문화권별 프로그램 개발  
전공·전문 분야별 협력 (정치, 경제, 경영, 의료, 과학, 공학 등)

## 단독 / 개별 지원 → 그룹 / matching funds

NGO·지자체·소규모 학교 기획안 지원  
지속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seed money 지원 (국제적 funding 조성)

## 일회성 행사 → 네트워크 관리

KEYOSC 개선  
지속적·장기적 네트워크 관리 기반 구축 지원 (SNS 협력 등)

12

# 프로그램 홍보

## 개념별 그룹핑·정리

PR 전략에 바탕을 둔 개념화

## 홍보 채널 종합화

원스톱 정보 서비스 제공

## 우수·관심대상 청소년 참여 유도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및 효과 극대화

## 상대국 해외 홍보

상대국 협조 강화 및 현지의 우수한 청소년 참여 유도

13

## 대상 선발

### 선발 단계별 참여 유도를 통한 홍보

NGO, 지자체, 교육계, 언론계 등 단계별 참여  
인지도 확대

### 선발 과정 개선

다양화 기획을 통해 선발 과정에서 청소년 네트워킹 강화  
인지도 확대

### 선발 기준 다변화

우수성 및 사회적 여건 등을 넓게 고려하여 다각도의 효용성  
극대화 모색

14

## 실행

### 참여 확대

교수진, 지역 사회 지도층의 멘토링 강화

### 비용집행 관리개선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교육 강화

### 상대국 counterpart 와 의 공조 강화

일방적 파견 지양  
프로그램 진행시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정성 확보

15

## 성과 관리

### 결과 홍보 (공유)

국민과의 소통

### 지식 공유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청소년들이 얻은 지식과 지혜를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방안 연구 - SNS 등 더욱 활성화

### 지속 가능한 글로벌 네트워크 관리 지원

노하우 개발 · 청소년 자체 네트워크 관리 지원  
일회성이 아니라 평생 함께하는 인적 네트워크 론칭 지원  
기참가자 조직 강화 → 청소년 교류 세대간 자체적 피드백 구축

16

## 청소년 국제 교류의 새 방향: 정리

세분화 / 차별성 / 참여성 / 지속성 !



대규모 / 중복성 / 일방성 / 일회성 ?

17

##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새로운 방향 모색

조 우 진 (유네스코 팀장)

먼저, 김병주 교수님의 발표문이 PPT 자료여서, 토론 내용에 발표문에 대한 토론자의 역량 부족으로 이해가 부족했거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의 발표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 발표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포괄적인 새 방향에 대한 제시이며, 두 번째는 사업의 각 실행 단계 별 검토를 통한 단계 별 실행 방향의 전환을 모색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토론자로서 대체로 발표 내용에 동의하면서, 오늘 워크숍의 취지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먼저 두 가지 발표 자료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견을 듣고 싶은 궁금한 점을 여쭙고, 토론자의 단견이지만 몇 가지 함께 고민하고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 자료에는 청소년 국제교류의 새 방향이 대규모, 중복성, 일방성, 일회성 등으로부터 세분화, 차별성, 참여성, 지속성을 향해 가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리고 현실적 목표로서 최대 다수의 해외 체험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발표문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편화된 국제화'를 언급할 수 있는 국내 환경이라면 최대 다수의 해외 체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국제교류가 환경 요건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점차 청소년들의 참여가 더 강조되고 글로벌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은 현황에 대한 설명인지 아니면 발표자의 제안이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각 단계 별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와 전환 방향은 향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발전 방안을 위해 매우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실행 방향을 전환해가기에는 열악한 환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을 위한 논의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발전을 위한 더욱 구체적인 논의에서 다루어야 할 우선적인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발표 내용이 방향 제시의 차원에서 다루어진 것이며, 이것은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실행 단계 별 검토를 통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시며, 종합적으로 이러한 방향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이제 토론자로서 외람되지만, 이 자리를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구조나 체제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내용 또는 주제적인 차원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관점에 대한 다소 철학적인 의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실적으로 양질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저는 청소년들과 국제교류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지도자 또는 관계자들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의 확보가 그리 쉬우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책임 있는 정책결정자들과 청소년계가 의지를 갖고

그야말로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질적 제고와 창의적인 사업 개발을 위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과 연수 그리고 사업의 실행 단계에서 참여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들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즉,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또 다른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나 개발이 이루어진다 해도 결국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고 참여하는 이들의 역량과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그대로 안고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국제교류 사업 참여 청소년들과 담당자 및 관계자들을 위한 교육 및 연수, 훈련 사업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미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더욱 국제사회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의제들이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삶과의 연관 속에서 제기 되었으면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일상적인 청소년들의 삶의 문제와 관련 있는 지구 의제(Global issues)들이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생활 세계는 인간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생동적인 삶의 세계입니다. 이런 생활 세계가 경제와 과학기술의 주도적인 흐름 속에서 덮이거나 때로 은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생태와 같은 어원을 갖는 경제나 과학기술은 주관적인 현상 배후의 객관적인 실체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제사회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시 생활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 더욱 그러합니다. 그들의 삶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교류 사업이라 할 때 exchange programme 이라 하는 것에서 관점을 조금 바꾸었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 아래에 인용한 독일의 실존철학자 야스퍼스의 교류(Kommunikation)에 대한 글은 교류 사업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다시 성찰하는데 귀한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내성을 통해 자기만의 것으로서 획득하는 것은, 만일 그것이 모든 것이라면, 획득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교류를 통해 실현시킬 수 없는 것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교류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2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철학은 끊임없이 교류를 원하는 것, 주저하지 않고 교류를 감행하는 것, 끊임없이 다른 변장을 하고 자신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나의 자기주장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러한 포기를 통해서 몇 번이고 자기도 모르게 반복해서 내가 나에게 받아들여진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안심해도 안 되며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명해서, 진리로 평가하는 내 속에 있어서의 그릇된 확고한 받침점을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자신은 불성실한 자기주장에 가장 빠지기 쉬운 형태입니다.<sup>1)</sup>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국제교류 사업은 어쩌면 공간적인 교류와 함께 시간적인 교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시간의 대화' 또는 '시간과 대화하기'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공간적인 교류 사업의 과정 속에서 시간 또는 역사와 대화할 수 있는 관점이 함께 접목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유네스코 활동으로 잘 알려진 세계문화유산이나 세계자연유산 또는 생물권보전지역은 단순히 현재의 문화적, 자연적 다양성에 근거한 다름의 의미만이 아니라 문화사적 또는 자연사적 가치를 함께 고려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이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서 뿐 아니라 국내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그리고 자연적 환경의 시공간적 의미로 청소년들에게 이해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사회문제에 관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그 사회문제에 대해 실제로 어떤 태도를 갖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1) 칼 야스퍼스 지음, 이정식 역, 철학입문, 다문, 1991. 143쪽.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국제사회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그러한 국제사회의 공동 문제들에 대해 능동적인 태도를 갖도록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부족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와 청소년 국제 활동

김 병 관 (한국국제협력단 인사교육실장)

## I. 서론

- 최근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관심 크게 증대
  -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활동과 교류가 증대되고 있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의 ODA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도 관련
  - 정부는 현재 약 0.1% 수준인 GNI 대비 ODA 비율을 2015년까지 0.25%까지 확대할 계획
  -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1월 25일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마침내 가입함으로써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최초의 사례로 명실상부하게 국제사회에서 개도국들의 희망으로 부상
  - 개도국들로부터 우리의 개발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요청이 크게 증대되고 있고 선진국들은 개발원조가 성공한 실제 사례로서의 한국의 역할에 큰 기대
- 이러한 ODA의 역할 증대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ODA와의 연계방안 모색
  - 개발원조(무상)의 집행기관인 KOICA 입장에서도 우리 사회의 여러 전문성이나 경험, 관심을 함께 활용하여 더 효과 있고 포괄적인 원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 공유
  -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 정부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

봉사단 파견 사업을 통합한 WFK 사업, 무상원조 통합 노력, 개발 NGO 지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계를 강화한 PPP 사업 등

- KOICA 내에서도 프로그램 방식에 의해 각 국가의 수요와 상황을 종합하고 다양한 지원 요소를 결합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각 대상국들을 지원하려는 노력 집중
- 따라서 오늘의 주제인 청소년 국제 활동과 관련해서 ODA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최근의 추세에서 바람직
  - 다만, 청소년과 관련되거나 청소년의 국제 활동과 연계된 ODA 사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뚜렷한 것이 없고, 따라서 실적이나 통계를 잡기 어려워 이 분야와 관련한 추세를 말하기는 곤란
  - KOICA가 지원한 분야 중에서는 교육 분야가 비교적 청소년 지원과 관련이 있으나 너무 광범위하고 청소년 국제 활동과도 무관
  - 개발 NGO 지원 등에서 일부 관련이 있는 것이 있으나 사례가 매우 적은 것은 마찬가지
  -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청소년 국제 활동을 모색함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있는지를 점검해보는데 초점

---

## II. KOICA 사업 및 활동 중 주요 참고 사례

---

### 가. 프로젝트 지원

- 교육시설 지원 :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추어 필요한 교육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설지원에 중점을 둔다고 해도 관련공무원이나 교사 등의 연수, 필요 기자재 지원, 운영능력 지원 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 초등학교 건립 : 베트남(네안성, 빈딩성, 중부지역 등 취약지역), 팔레스타인, 도미니카공(농촌지역), 케냐(취약지역), 에티오피아(참전용사촌) 등
  - 여성 기술학교 건립 : 파푸아뉴기니(카리타스 여자기술고등학교)

- 직업훈련학교(청소년 대상 직훈 포함) 건립 : 과테말라(청소년 직업훈련원 자동차정비 훈련소), 자메이카(청소년 IT 정보센터)
  - 교육센터 건립 : 팔레스타인(초등학교 및 청소년센터 건립)
- 청소년 복지 향상 지원 : 주로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시설 및 교육훈련 등 지원
- 아동 복지 : 스리랑카(아동복지 지원), 과테말라(아동복지원 건립)
  - 취약청소년 재활 지원 : 태국(벽지지역 학생 복지 지원), 파라과이(취약 아동, 청소년 재활훈련원)
- 청소년 보건 향상 지원
- 도미니카공(미성년 임신방지 및 보건관리 강화)
- 교육 체계 및 환경 개선
- 콩고 공(중등학교 교육정보화 지원), 엘살바도르(교육환경 개선), 팔레스타인(교육 시스템 개선), 라오스(중등학교 교과서 보급), 자메이카(청소년 IT 정보센터 지원 및 사회참여 역량 강화)

#### **나. 개발 NGO 지원(개도국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의 사업에 대한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통해 정부차원의 원조와 상호보완)**

- 교육 분야
- 빈곤 아동들을 위한 초등교육 지원
  - 고아 및 취약계층 교육 복지
  - 취약지역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교육 복지
  - 청소년 교육 지원
  - 분쟁 영향 지역 아동 교육
  - 초등교육 환경 개선 및 중등과정 신설
  - 도서관 지원
  - 청소년기 여성 교육 지원

- 방과 후 학습 지도 및 적성개발 증진

○ 복지 분야

- 이주 노동자와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양육, 교육 및 무료급식
- 고아 및 취약 아동 지원
- 도시 빈민을 위한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및 식수 지원
- 아동 복지센터 개발

○ 보건 분야

- 청소년을 위한 학교 보건 시스템 구축
- 청소년 성생식 보건 증진
- 결식아동 건강 증진

## 다. 기타

○ 청소년활동진흥원 파견 “한국청소년해외봉사단”과의 연계

- 동 봉사단 사업이 공공성격을 가지므로 사업 초기부터 KOICA에 공식적인 협력 요청
- 사업 형성을 위한 사전조사 및 준비, 봉사단 파견 후 오리엔테이션, 봉사활동 등 각 단계에서 현지의 KOICA 해외사무소가 필요한 지원 제공
- 특히, KOICA가 현지에 파견하여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원을 지원요원으로 투입하여 봉사활동 기간 동안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 봉사단원들과 인솔자 등에 대한 각종 지원활동 전개
- 이러한 지원과 협력은 동 청소년해외봉사단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과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

○ KOICA의 “지구촌체험관”

- 동 체험관은 2010년 개관 이래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에게 지구촌 이웃나라들의 현실과 과제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주요한 방문객으로 국제사회와 교류에 대한 이

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훌륭한 교육의 장으로 기능

- “해외원조단체협의회”의 개발협력 이해증진 사업
  - KOICA의 지원과 상호협력을 통해 세계시민 양성이라는 목표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국제개발협력 교육을 담당할 실무자 및 강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직 교사 대상 연수 실시, 초중등학교 학생 및 교사용 지침서(“담장너머 지구촌 보기”) 개발과 배포,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배포,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워크숍 및 캠페인 등

---

### Ⅲ. 청소년 국제 활동과 ODA

---

#### 가. 국제 활동에 있어 중점 고려 사항

- 목적과 지향에 대한 분명한 설정
  - 각 활동이나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그것을 왜 하고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정립 필요
  - 많은 경우에 그러한 기본적인 설정이 미흡(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이고 심지어는 공허한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하고 이로 인해 방향성과 효과성, 중장기적 전망 등이 불투명한 결과 발생
- 국제사회의 MDGs 달성 노력과 연계
  - 단순한 청소년들의 교류나 방문 등은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가급적 실제적인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UN이 정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염두에 두고 실천적인 활동 추진

○ 현장의 운영 능력이나 파트너십

- 국제 활동은 현장의 운영 능력이 부족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현지 운영자나 파트너를 잘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
- 현장의 능력 있는 기관이나 인력과의 연계, 상대국 신뢰성 있는 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 추진

○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

- 많은 국제 활동들이 단발성, 홍보성 사업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막대한 자원낭비 초래(특히, 국제 활동은 돈과 물질 등 자원이 많이 소요된다는 현실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자세 필요)
-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효과와 운영이 가능할 지에 대한 전망과 실제적인 계획 수립 필요
- 이와 관련, 활동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 중점 고려
- 또한, 현지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이해(혹은 적응)가 없이는 지속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 공감 필요

## 나. ODA 사업과의 연계 방안

○ KOICA의 현장 관리능력(해외사무소) 활용

- 개도국을 대상으로 현지 봉사활동,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경우 현지 상황과 여건을 잘 알고 있고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는 KOICA 현지 해외사무소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 공식적인 협력체계 구축

○ KOICA 지원 사업장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KOICA가 지원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이곳과 연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 개발 NGO 활동 또는 사업 연계 프로그램 개발

-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개발 NGO의 사업장이나 활동지를 연계하여 프로그램 개발

- 좀 더 다양하고 직접 청소년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

○ 공공 성격의 사업 개발과 운영

- 개도국 청소년 단체(공공기관)나 활동과의 연결망 구축과 지원 사업 실시
- 개도국 정부 관련 부서나 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정책 관련 자문을 하거나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청소년으로 구성된 봉사단 파견(청소년활동진흥원 파견 “한국청소년해외봉사단” 중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 개도국 청소년의 한국 방문을 포함한 청소년들 간 직접 접촉 프로그램 확대 (‘교류’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측의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 프로그램이 되는 것에 주의). 끝.

## 토 론

### 오 해 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은 세계 이차대전 이후 약 40년 동안 ODA의 수혜국 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11월 25일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24개국 마침내 가입함으로써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최초의 사례로 명실상부하게 국제사회에서 개도국들의 희망으로 부상하였다. 이것은 한국이 글로벌 원조 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원조는 증여, 차관, 기술원조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에서는 국민총생산(GNP)의 0.31%에 육박하는 600억 달러 규모의 ODA를 공여하고 있으며, 국제연합(UN)에서는 일정한 시점까지 원조를 0.7%로 증대하기로 결의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원조 선진국으로 불리는 덴마크는 인근의 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꾸준히 UN 권고기준인 0.7% 원조를 초과 달성해 오고 있는 모범적인 원조 공여국이다. 개발협력은 이 나라의 외교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덴마크 정부는 이에 관한 한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의 하나로서 지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동주, 2010).

우리나라는 새로운 원조 공여국으로서 2010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목표로 원조 정책과 체제를 정비해가는 과정에 있으며, 이러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적절히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양허성차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출연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치하고 유상협력을 집행하고 있으며, 1991년에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무상협력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11년 유·무상협력 분야에 각각 6000억원씩 1조2000억원, 다자협력 분야에 5000억원 등 전년 대비 20% 늘어난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개도국 지속성장을 위한 역량제고, ODA를 보완하는 민간재원 유입 활성화, 개도국과의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 증진 등을 올해 3대 목표로 설정해 중점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올해 총리실은 제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시행계획’과 ‘2011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을 확정하고 총 34개 기관에서 1035개의 ODA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국제활동 참여 강화를 위해 주요 20개국(G20) 개발의제 후속조치 추진, 원조효과 고위급포럼(HLF-4) 개최 준비, 국제원조규범 준수 및 형성에의 참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폭 확대될 ODA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현장중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부 주관으로 국제협력개발센터(KOICA)와 수출입은행(EDCF)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 조직체계를 효율화하고 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력(KOICA 105명, EDCF 72명)을 보강키로 했다.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및 경제개발 지원과 같은 국가적 ODA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청소년 국제 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며 국가 간 상호 공존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범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 각 국은 반목과 대립의 역사를 극복하고 신뢰, 협력, 상생의 공동가치를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 지구 공동체가 처한 다양한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평화와 번영의 지구촌을 가꾸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둘째, ODA 사업과 청소년 국제활동에 대한 역할분담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ODA 사업은 정부가 직접 사업수행 및 민간단체에 위탁 형태로 시행됨으로서 원조국과 수혜국 모두가 국가적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국제활동은 청소년이 주 고객인 만큼 그들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여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앙-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정부 간의 공적기능과 전문성에 대한 역할 분담과 협조 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단위 사업별 평가시스템과 장기적인 추진체계에 대한 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셋째, ODA 사업과 청소년 국제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정부 내에 지자체와 민간차원의 ODA와 청소년 국제활동을 지원하는 부서 확대와 주재공관과 지자체 및 민간단체 간의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외교통상부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국제활동 전담 부서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청년 인력에 대한 글로벌 역량강화 차원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넷째, ODA 사업의 체계화와 청소년 국제활동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 ODA 정책의 변화상을 살펴보면, 먼저 전후 배상기(1954-1976)와 원조 확충기(1977-1990)를 거치면서 1989년 세계 제1위의 원고 제공국이 되었다. 1991년 이후에는 원조 이념과 전략이 국제정치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하였으며, 2006년에는 ODA 관련 여러 지침을 개정하는 동시에 국제협력국과 국제협력 기획입안 본부 등을 설치하면서 ODA 사업의 다변화와 체계화를 도모하였다(박홍영, 2010). 한편 정보화시대의 확산과 함께 컴퓨터, TV, 영화 등을 포함한 뉴미디어를 이용한 청소년 국제교류가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미 한류열풍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가 제작한 TV드라마나 영화 등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국제활동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뉴미디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ODA 사업이 한국의 전체적인 국가브랜드 가치향상 전략과 연계되어

야 한다.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 평가절하의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ODA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부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ODA 확대를 통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기여를 시도함으로써 국가브랜드 가치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가 국가 브랜드 가치에 미치는 영향 연구(김유경·이효복, 2010년) 결과에 따르면, 한국 공적개발 원조의 수혜국 국민의 인식은 한국 국가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매개로 하여 한국 관광의도와 제품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ODA에 대한 지지기반으로서 우리 국민의 인식전환의 계기 마련과 다양한 기업의 ODA 참여의 당위성에 대한 실증적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